



3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3호

(루계 제761호)

차 례

작가들은 올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는데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위대한 행군	5
주체문학의 대강	6
맹세	6
미곡벌에서 상봉하시다	7
전모봉은 멀리 있어도.....	7
땅과 조국.....	8
축복의 밤.....	9
4계절의 소원	15
시대의 명작들과 더불어 삶을 빛내인 작가.....	16
벗과 우정.....	17
김철의 목소리	18
김철사람 (외1편).....	20
붉은 거목 (외2편).....	21
강선의 불.....	22

기후와 건강	28
위대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에 대한 철학적인 형상	29
봄빛이 흐르는 곳	34
이 나라 여성들의 자옥우에	35
땅의 걸음마	36
사랑하는 대지우에 바쳐진 순결한 땀과 뉘에 대한 특색있는 탐구	37
나의 착정기야	40
강변의 석축돌 하나... ..	41
땅의 진정	42
초침소리... 구령소리... ..	43
다시 찾은 모습	44
우리 도시 방직동	53
가을의 체험과 가을의 서정	54
딸의 마음	57
밀불	58
경구, 격언	67
푸르른 나무들의 설레임속에	68
한그루 나무에 실어보는 마음	69
어서 떠나거라 애기모들아	70
담배란	70
뜻과 정서, 생동성으로 충만된 석윤기의 자연묘사	71
전쟁의 마지막이야기	73
음식물의 색깔과 건강	78
레르몬토프의 생애와 창작적 특징	79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작가들은 올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는데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0(2011)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작가들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과 김책제철련 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전투적호소를 뜨거운 심장에 받아안고 누구나 흥분에 넘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 열의에 넘쳐있다.

주체99(2010)년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건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경사들을 통하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었을뿐아니라 장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떨쳐졌다.

문학예술부문에서도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된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우리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가 이처럼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발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

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새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과 방도는 명백하며 우리에게는 총공세의 산울림이 온 나라에 메아리치게 할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있다.

다음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해야 한다.

작가들은 올해 무엇보다먼저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데 이바지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여기서 작가들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뿐아니라 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을 비상히 높이는데 기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비롯한 경제전선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려나가는데 복무하는 작품창작에 힘을 넣는것이다.

작가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정도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을 고무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원에서 혁명을 일으키

는데 기여하는 작품,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복무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창작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데 복무하는 문학작품들도 적극 창조해내야 한다.

여기서 작가들은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뿐아니라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사업을 잘해나가는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도 활발히 창작해냄으로써 이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있다.

오늘 당이 바라는것은 작가들의 명작창작이고 작가들의 한결같은 지향도 명작창작이다. 작가들은 한편의 소설, 시, 수필을 써내도 명작들만을 창조해낸 우리 장군님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선배작가들의 모범을 따라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해 언제나 분발하고 피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작품, 선군혁명로선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는 좌우명을 안고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데 복무하는 작품창작에도 많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군인들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준비하고 훈련을 잘하여 래일의 전투영웅으로 준비되어가는 모습,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를 창조해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런 모습들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창작에 언제나 깊은 창작적열정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다음으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주제의 작품창작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새해에도 작가들은 우선 당의 붓대철학을 깊이 간직하고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왕성히 창작해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무한히 충직한 작가들이 있는 한 올해 우리들의 명작창작전투의 성과는 확정적이다.

작가들이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한 마음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적인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만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들을 우수하게 창조해낼수 있다. 그리고 자기 령도자의 사상에 끝없이 매혹되어야 우리 당의 진짜배기 혁명동지가 될수 있으며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이 바라는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명작들을 언제나 창작해낼수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의 명작창작과정이 잘 말해주고있다.

작가들이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또한 아는것이 많아야 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있어야 한다.

작가들은 정치와 경제, 군사, 력사 등 지식에 대하여 모르는것이 없어야 하며 전문가들만큼 언제나 깊이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읽어보고 감상할만 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들이 또한 현실체험을 잘하는것도 명작창작의 중요방도이다.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도 현실속에 있고 그것을 꽃피울수 있는 형상의 원천도 현실속에 있다.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당에서 바라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작가들은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면서 우리 문학의 전반적사상예술적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올려세울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 너도나도 창작적열정을 끓이고있다.

작가들은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명작창작으로 주체101(2012)년을 땃땃하게, 궁지높이 맞이하기 위해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전진해나가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전투적과업들을 자기들의 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올해의 력사적인 대진군에서 명작풍년만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애국의 일념으로 불리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부담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일제를 조국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액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었으며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준 세기적인 사변이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행군

허수산

그날에 벌써
멀리 오늘을 내다보시였던가
열두살 어리신 우리 수령님
조국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천리길 굵이굵이에 새기신것은

헐치 않은 결심이였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정든 집을 떠나
두 나라 지경을 지나
북방의 3월의 맵짠 추위를 뚫고
조국으로 만경대에도 향한
배움의 천리길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보시는
즐거운 걸음이 아니시였다
가는 곳마다 일제의 죄사슬에 얽매어
신음하는 동포들의 모습
그것으로 더욱 무겁고
더 힘겨운 행군이시였다

허나 빼앗긴 나라를 찾고
인민의 새세상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한걸음한걸음에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한굽이 또 한굽이마다에서

지원의 큰뜻을 굳히신 수령님
그 뜻으로 넘으시였다
힘하디 힘한 오가산
날새도 오르기 주저하는 명문고개도
어리신 나이에 너무나 아름찬
천리길을 단숨에 걸으시였다

정녕 그 걸음은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로
이 땅에 봄을 부르고 새날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행군
배움과 투쟁의 의지 가다듬는 철의 행군

오 그날의 배움의 천리길에
항일의 20여성상을 이으신 수령님
조국을 찾아주시고 미제를 때려부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세우시며
오직 승리의 길로 빛내이시였거니

오늘도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척척 발걸음 울리는
조선의 행군길은 끝없이 이어진다
걸음마다 대고조의 진군으로 이어지며
강성대국 때문에도 향한
그날의 천리길은 끝나지 않았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과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조선혁명의 발전과정과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 오늘의 자랑스런 성과와 래일의 밝은 전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작품에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

《창작의 주인은 작가, 예술인들인것만큼 그들자신이 문예관을 바로세워야 당이 바라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맹세

-평양방직공장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앞에서-

염득복

잠을 자며 꿈결에도 짜던 천필을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어
이른새벽 남먼저
마음속에 안고 들어서는 공장구내

그러면 아 그러면
구내엔 벌써 해가 솟은 아침인듯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방직공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
우리들의 가슴 불래웁니다

정녕 또 한밤을
우리 방직공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인민들이 입을 옷감을
더 많이 더 좋게 짤
새로운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하루일 마친 우리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계획 넘쳐한 자랑도
래일의 혁신도 약속하며
정중히 인사드리던 우리

그런 순간이면 우리는
생각도 깊어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수령님과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가실 곳 만나주실 사람 그 얼마이시랴만
낮이나 밤이나 사시장철
우리들의 일터에 함께 계시는
크나큰 사랑과 행복을 두고

어려웁니다
해방의 기쁨 넘치는 대동강기슭에

인민들의 옷감을 짜는
방직공장을 크게 짓자고 하시며
천필길 걸으시던 그날이

목메입니다
저희들이 짠 천필을 만져보시며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짠 천으로
옷도 해입고 이불도 만들어 덮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말씀

세월이 흘러
수령님 찾아오셨던 그 길로 우리 장군님
천지개벽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여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잘 꾸렸다고
못내 기뻐하신 장군님

언제나 방직공 우리들을 잊지 못하시여
이른새벽에도 찾아 사랑주시고
깊은밤에도 찾아 새힘 주시던
그날의 그 걸음 그 모습으로
오늘도 그날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또다시 올해에도 우리의 일터를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워주시고
그 앞장에서 우리들을 이끄시나니

맹세를 다집니다
어버이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를 이끄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길을
비단필로 펼쳐가겠습니다

미곡벌에서 상봉하시다

김창호

뜨거우시다
열렬하시다
봄빛질은 3월의 미곡혁명사적관
여기서 우리 장군님 끝없는 정회에 넘쳐
아버이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시다

순간
누리에 가득 울리어오누나
열정넘친 장군님의 기쁨의 말씀
우렁우렁하신 수령님의 격찬의 말씀

—수령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미곡벌이 선군10경
사회주의리상촌이 되었습니다

—고맙소
선군혁명천만리 그 길에서
장군이 정을 다해 미곡벌을 가꿔온
현명한 령도의 결과요

아 아
위대한 심장과 심장이 나누시는
백두산위인들의 심중의 대화
5년전 12월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던
력사의 그 시각처럼

장군님 또다시 펼치시는 그리움의 세계

이 시각 우리
위대한 심장의 대화 넘으로 들노라
미제의 《북진》소동에 쌀로 쳐 이기리라던
그 유명한 대답의 배짱군 농민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벼농사 장훈을
불러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뜨거우시다
열렬하시다
절세의 위인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영광이 빛발치는 여기에서 상봉하시나니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시여 인민위한 복무의 길
함께 가시며
강성대국의 위대한 새봄을 꽃피가시여라

뜻깊게 나누시는 위인들의 심중의 대화
끝없이 메아리쳐 오는 영광의 땅 미곡벌에
애국의 땀 깨끗한 량심 아낌없이 바쳐
하늘높이 로적가리 쌓아
인민의 기쁨으로 솟게 하리
흥겨운 농악속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

전모봉은 멀리 있어도

서봉제

전모봉에서 흘러내리는 봄빛에
때이르게 맞이한
압록강의 눈석이 바라보며
답사대오의 붉은기를 따라
층층절벽에 오르니
포평나루가는 지척 팔도구는 강건너 지척

총검인양 하늘을 찌른 기암들
천연바위를 휘감아잡은
소나무의 억센 기상 우리를 불렀더냐
처녀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왜 이리도 가슴을 흔드느냐

여기로구나 전모봉 칼벼랑아래
독립의지로 피가 끓던 반일투사들
결사맹세로 맥박높던 그 손과 손들에
조선독립의지가 비낀 총대를 안겨주시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앉아서 부르는 독립만세로야
어찌 나라독립 이룩할수 있으랴
손에 손마다 굳게 잡은 이 총대로
승리의 총성 국내깊이 울리자!
툭툭 흥벽을 치던 선생님의 말씀이여

그 누가 선사하지도 않고
 그 뉘에게 바랄수도 없는 조선독립
 겨레의 피값도 오직 총대로만 결산할수 있음을
 우리 동포들에게 깨우쳐주신 뜻
 오늘도 산천을 흔들며 울려주는 전모봉

예로구나 백두령장 높이 모시여
 멸적의 죄성을 품고 숨쉬는
 이 땅의 무성하는 총대산악

그 주춧돌 네 바위에도 얹혀있어
 그 총창이 네 산정에도 세워져있어

아 독립력사의 증견자
 압록강기슭의 전모봉아
 너는 조국땅 북변의 한끝에 솟아있어도
 선군조국 군민의 마음속엔
 영원한 지척으로 솟아있구나

땅과 조국

송재하

나라없던 지나간 세월
 땅은 있었어도
 이 땅은
 농민들의것이 아니었다

허리가 굽도록 땅내를 맡으며
 온 한해 땀흘려 가꾸었어도
 찾아오는 가을엔
 인민들의 밥그릇에
 한숨과 눈물만 고이였거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수난의 세월엔
 태를 묻은 고향을 두고 타향길에 올라야 했고
 징용 징병에 끌려간 젊은이들
 이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야 했다

허나 언제부터였던가
 인민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이 제살불이처럼 여겨지고
 땅과 농민이 하나의 운명으로 된것은

땅 3천평!
 수난에 찬 세월의 구름장을 헤치고
 따사로운 봄빛이 쏟아지던 그 봄날
 제 이름 석자 새긴 표말을 제 발머리에 박으며
 농민들은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알았나니

전쟁의 포화속에서 발을 갈아 씨를 묻어

전쟁승리를 이룩하였고
 협동화의 우렁찬 노래소리
 하늘가에 높이 올린것은
 고난의 그 나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이 땅을 억척처럼 지키고 가꾼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조국이였다

지난날 수난의 피눈물에 젖었던 이 땅이
 오늘은 볼수록 희한한 선경마을로 전변되고
 끝없이 설레는 오곡백과를 떠이고
 번영하는 조선의 모습으로
 온 세상 보란듯이 펼쳐졌나니

그 봄날부터였다
 땅이 없어 땅의 노예가 되었던 인민이
 땅의 주인이 된 그 봄날부터
 우리 공화국의 국장에 빛나는
 탐스런 벼이삭들은
 인민이 땅의 주인임을 말해주는것 아니냐

아 땅과 조국
 이 숭엄한 부름은
 세월이 갈수록 인민의 가슴속에
 더 깊이 더 소중히 새겨지나니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우리 장군님 빛내주시는 땅
 우리 삶의 영원한 터전이어!



안흥운

1951년 3월 7일 아침.

부관은 조심히 문을 열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의 깊게 문건을 보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문건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부관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요?》

《13번동지의 긴급보고입니다. 놈들이 오늘 아침 드디어 〈리퍼작전〉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전문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로소 문건에서 눈길을 떼시고 부관이 올리는 전문테프를 받아드시었다.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은 지금 절정에 이르렀다. 또다시 37도선이남까지 내리밀린 적들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려고 련속 발악적인 대공세를 가해왔다. 전달에 있었던 《킬러작전》(《살륙작전》)에 이어 이번에는 《리퍼작전》(《절단작전》)을 개시한것이다. 이른바 전력을 다해 전선을 밀어올리는 한편 항공록전대를 전선서부의 아군후방에 투하하여 전선과 후방을 절단함으로써 전선서부의 아군주력집단을 포위소멸하자는것이였다. 적들은 이 작전을 위하여 항공록전대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집결하여 어찌까지 만단의 공격준비를 갖추고 오늘 아침 드디어 대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미 놈들의 기도를 간파하신 그이께서는 아군련합부대들로 하여금 공격하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다음 신속히 방어에 유리한 림진강우안으로 기동하여 새 방어진을 구축하도록 명령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신 후 부관에게

이르셨다.

《전선사령관에게 림진강우안의 부대들에 익숙과 림점을 잘 보장하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부관은 나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시 문건에 눈길을 주시었다. 그것은 수훈문건으로서 오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될 정령 《황해도 벽성군 녀맹위원장 조옥희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였다.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름 조옥희

난날 1923년 9월 25일

난곳 황해도 연백군

극빈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출생.

8.15해방후 1946년부터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

군녀맹위원회 조직부장, 군녀맹위원회 부위원장, 송림시녀맹위원회 위원장, 벽성군녀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헌신적으로 투쟁함.

6.25전쟁이 개시되자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여 인민군대를 적극 후원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지남산인민유격대의 후방부대장으로 맹활약을 하였는바 특히 적들의 대《토벌》로 부대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단신으로 적들을 유인하여 동지들을 구원하였으며 치명상을 입고 놈들에게 체포됨.

놈들의 야수적고문에도 굴함없이 부대의 비밀과 혁명적지조를 지키고 1950년 11월말 27살의

꽃나이에 장렬하게 희생됨. …

문건의 중점적인 내용들만 추려보아도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강의하고 열정적인 한 여성의 인생행로가 소리치며 흘러가는듯 하였다.

그이께서는 눈길을 돌리시여 창박을 내다보시었다. 어느덧 3월초순이라 가릴처절한 전화속에서도 봄은 찾아와 산마다 연록이 비끼기 시작했다. 문득 앞산중턱에서 수리개 한마리가 살같이 창공으로 뿔겨오르더니 나래를 활짝 펴고 유유히 날아돌아간다.

(스물일곱살에… 이제 한창 저 수리개처럼 창공으로 나래쳐오를 나이에 그렇게 가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통분하시었다.

그이께서 조옥희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것은 석달전이였다. 그후 며칠동안은 너무도 가슴이 아파 작전대앞에서 잠간씩 눈을 붙이던 쪽잠마저도 이룰수 없으시였다.

부관이 들어왔다.

《최고사령관동지, 중앙녀맹위원장이 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를 부르시였던것이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그이께 깊이 허리숙여 절을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갑게 답례하시면서 그에게 집무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시였다.

《앉으시오. 몇가지 의논할 문제가 있어서 찾았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거나 한듯 따르릉 전화종이 울렸다. 전선동부에서 적들이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긴급보고였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쁘게 재차 다른 전화기가 따르릉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황을 보고받고 명령을 주시면서도 녀맹위원장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시였다.

녀맹위원장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이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오늘 아침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가슴이 가지 않는듯 송구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히 의자에 앉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고 잠시 문건을 내려다보시다가 약간 갈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중앙녀맹에서 언제인가 조옥희동무의 수훈문제를 제기한적이 있었지요?》

녀맹위원장은 또다시 따르릉거리는 전화기를 쳐다보다가 얼굴을 붉히며 황황히 눈길을 떨구었다.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기까지 하면서 떠듬거렸다.

《이처럼 바쁘신 때에… 전쟁의 운명이 관가름되는 때에… 우리들 생각만 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도리머리를 하며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그게 왜 짧은 생각이겠습니까. 것처럼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되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03번에게 연결하라고 하시고는 전화기를 약간 밀어놓으시였다.

《조옥희동무의 감옥투쟁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시오.》

《장군님!》

녀맹위원장은 난색을 지었다. 그 내용만은 차마 다시 말씀드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가지가지 상실의 가슴속 상처를 안고계시는 그이이시였다. 조옥희의 생활과 투쟁에 대해서도 이미전에 다 말씀드렸었다. 그때도 장시간 다 들어주시며 그리고 가슴아파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또…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심증을 헤아리시고 부드럽게 타이르시였다.

《어서 마음놓고 이야기하시오. 지난날… 그리고 모진 천대와 멸시를 받던 우리 녀성들이, 해방후에 새 조선의 주인으로 자라난 우리 녀성들이 어떻게 장하게 싸웠는지… 그걸 새겨두고싶어 그러오.》

녀맹위원장은 왈각 눈물을 쏟았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조옥희를 체포한 적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그를 끌어내여 집게로 손톱과 발톱을 뽑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몸을 지저대였다. 그 귀축같은 만행은 1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조옥희는 추해도 동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추상같이 놈들을 단죄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공화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난 눈이 없지만 이제 여기서 쫓겨가게 될 네놈들의 물골을 톱톡히 보고있다!…

그 불굴의 기상앞에 야수같은 교형리들은 전를 하였다고 한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뒤짐을 지신 주먹을 짹 부르짖시고 창가에 다가가시였다. 한동안 연록이 비끼기 시작한 산발들을 바라보시다가 갈린 음성으로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정말 훌륭한 동무입니다. 영웅칭호를 받을만한 동무입니다.》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너맹위원장은 눈물이
그렇 그렇게서 그이를 우려했다. 그 어떤 격동적인
일이, 사변적인 일이 생길것 같은 예감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태일이 3.8국제부녀절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부녀절경축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맹위원장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그이
께서 부녀절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리실줄은 생각
도 못했던 너맹위원장이였다. 너맹위원장은 머뭇
머뭇거리다가 어줍은 어조로 말씀올렸다.

《이 엄혹한 시기에 어떻게 너자들의 명절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너맹일군들끼리
몇명 지하실에 모여 소박한 경축모임을 할가 합
니다. 나라의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시기
가 아닙니까?》

《준엄한 시기란 말이지요.》

그이께서는 너맹위원장을 돌아보시였다.

너맹위원장은 작전탁우에 놓인 등고선들이 가
득 얹히고 붉고 푸른 부호들이 새겨진 지도쪽을
열췌 스쳐보며 송구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윽도록 너맹위원장을 보시
다가 뒤집을 진채 작전대안을 천천히 거닐며 말
씀을 이으시였다.

《웁습니다. 그야말로 준엄한 시기입니다. 그렇
다고 우리 녀성들이 국제부녀절을 제대로 쇠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크게, 성대하게 경축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너맹위원
장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다소 걱정이 담긴 어
조로 계속하시였다.

…우리 조선녀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선
량하고 아름답고 소박하면서도 강의하고 조국을
위함이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사람들
이다.

멀리로는 설죽화, 론개, 행주산성의 녀인들로부
터 가깝게는 독립군의 녀걸 리판린이…

세상사람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의 녀투사
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령하 40
도를 오르내리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10년, 15
년이상씩 풍찬로숙하며 싸운 우리 녀투사들, 남자
들과 똑같이 행군도 하고 총도 함께 쏘고 훈련도
함께 하면서도 설참이면 쉬지 않고 밥도 짓고 빨
래도 하고 옷도 깎고 나물도 뜯고… 그들이 없었
더라면 그 장구한 기간 우리가 산에서 어떻게 적
과 싸울수 있었겠는가.

오늘은 우리 나라의 천만의 녀성들이 그뒤를

이어가고있다. 해방후 5년동안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된 우리 녀성들이 그 행복을 짓
밟으려는 미제와의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전선에는
육탄이 되어 적땅크를 까부신 간호원이 있는
가 하면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피를 바친 녀전사
도 있고 적구에서 남자들 못지 않게 잘 싸우고있
는 녀성들도 있다.

후방의 녀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전선에 나간 남
편들을 도와, 그들을 대신하여 지난날에는 장정들
이나 할수 있는것으로 알았던 어려운 일들을 역
척같이 감당해나가고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 녀성들을 위해주고
내세워주고 싶습니다. 그래 이번에 녀성들의 명절
을 어느때보다도 더 크고 성대하게 경축하도록
…》

부관이 조심히 들어왔다.

그이께서 말씀을 끊으시고 부관을 돌아보시였
다.

《무슨 일이지요?》

《홍명희부수상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
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는 과정에 최고사
령관동지께 시급히 결론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지난 1월에 도시설계일군들과 관계
부문 일군들에게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신 후 부관에게
말씀하시였다.

《한시간후에 만날수 있게 부수상을 대기시키시
오.》

지금은 전쟁을 하고있다.

전쟁에서 시간의 긴박성을 두고 어느 나라의
한 군사가는 이렇게 말했었다.

…1분은 전투결과를, 한시간은 전역의 결과를,
하루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

지금은 바로 그러한 때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맹위원장과의 대화를 다시
이으시였다.

《오늘 저녁 경축대회를 최대한 성대하게 조직
하시오. 장소는 지하실이 아니라 모란봉극장으로
하시오. 녀성들이 많이 참가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알만 합니까?》

《알았습니다, 장군님!》

너맹위원장은 또 눈물이 그렇게졌다. 생각할수
록 과분하고 황송하고 송구하기만 하였다.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 군대가 한치의 땅을 두
고 피를 흘리면서 적들과 결사전을 하고있다.

그런데 후방의 아낙네들이 어떻게 경축대회가

지 벌리겠는가.

하여 어제 일군들과 경축모임이나 간단히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이미 경축보고문도 짧막하게 써놓은 그였던것이다.

그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장군님을 우러렀다.

그이께서는 아직도 부족하신듯 전화로 민족보위상(당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였다.

《오늘 저녁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장에 적기들이 범접 못하도록 철저한 반항공대책을 세우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전화로 내무상(당시)에게 명령하시였다.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를 안전하게 치르도록 하시오. 대내의 적들이 꾀방을 놓거나 란동을 부릴수 있소. 사소한 소요도 없도록 단단히 대책하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전화로 인민군협주단 단장에게 물으시였다.

《3.8국제부녀절축하공연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전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준비했습니다. 노래는 합창, 중창, 독창들이 있고 화술작품으로서는 연극, 촌극, 재담이 있습니다. 무용은 군무, 독무 등 다섯종목이 있습니다.》

《좋소, 공연마감에는 모든 녀성들이 춤도 출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시오.》

《알았습니다.》

녀맹위원장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이미전부터 이번 국제부녀절을 두고 여러모로 마음을 많이 쓰신것이였다.

가렬치절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녀자들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신단 말인가.

그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장군님을 우러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부관을 찾으시였다.

《시인이 왔소?》

《예, 대기시켜놓았습니다.》

《들어보내시오.》

시인이 안경을 번쩍이며 들어왔다. 군관복차림의 중군작가였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백있게 거수경례를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색하시며 그에게 물으시였다.

《수고했습니다. 그 시는 다 썼습니까?》

그이께서는 얼마전 전선시찰의 길에서 만나셨던 시인에게 조옥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공화국의 첫 녀성영웅칭호가 수여될것이니 그에 대한 시를 쓰라는 과업을 주시였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쓰느라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원고를 그이께 올리려고 하였다.

《아니, 작가자신이 읽어보시오. 시야 읽는것보다 읊는것을 들어보아야 더 감흥이 있지요. 녀맹위원장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녀맹위원장은 미소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는 그만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만류하시였다.

《녀맹위원장동무, 우리 같이 시를 감상합시다.》

녀맹위원장은 송구스레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일순간 당황했던 시인은 자신을 수습하였다. 옷자락을 바로잡고 안경을 고쳐썼다. 오른손에 원고를 들고 잠시 감정을 토했다. 드디어 시인이 자못 근엄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나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였다.

부관이 급히 들어오더니 저으기 긴장한 기색으로 그이께 조심히 말씀 올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 공습입니다. 빨리 경도안으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적기들이 몇대나 되오?》

《〈그라만〉 폭격기들이 스무대가량 날아온다고 합니다.》

벌써 적기들의 둔중한 폭음이 들려왔다.

모두 저으기 긴장해졌다.

《정말 고약한 놈들이요. 굳이 이 시각에 달려들건 뭐겠소. 우리 시인의 감정이 깨지게. 자, 그럼 경도안으로 들어가서 시를 감상합시다.》

그이를 따라 모두 경도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쿵크리트피복을 못해서 들쭉날쭉한 경도벽의 암반에서는 물기들이 번들거리고 천정에서는 석수가 툭툭떨어졌다.

곧 경도안의 최고사령부작전실에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는 적기들의 아츠러운 동음이 머리우에서 으르렁거리였다.

좌석들이 정돈되자 시인이 원고를 들고 앞에 나섰다. 드디어 그는 자못 숭엄하고 엄숙하게 시의 제목을 떼었다.

조국은 그대를 잊지 않으리

...

순간 파르릉! 하고 둔중한 평음과 함께 적기의 첫 폭탄이 강도우에서 작렬하였다. 한톤짜리이상의 폭탄이 분명하였다. 뒤이어 줄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땅, 따당 땅, 팡, 팡팡팡...

최고사령부의 고사포와 고사기관총들이 적기들을 향하여 맹렬히 불을 토했다.

쿵쿵쿵, 쿵쿵, 쿵쿵쿵쿵, 뚜루룩, 뚜루룩...최고사령부의 주변은 치열한 격전장으로 변하였다. 폭탄과 포탄들의 둔중하고 아츠러운 평음에 하늘땅이 벌컥 뒤집히는듯 강도안이 드렁드렁 울리고 바닥이 움썽움썽 흔들렸다.

첫 폭탄이 작렬하는 순간, 시인은 흠칫 놀라며 원고들었던 손을 내리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미소하시며 시인을 고무해주시었다.

《일없습니다. 우리 대공화력의 포소리를 반주음악으로 삼으시오. 어서 계속하십시오.》

시인은 격동되었다. 그렇다, 저 소리들은 반주음악이다.

드디어 걱정어린 시인의 목소리가 작전실안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누구도 몰랐더라
연백시골의 가난한 산당집에서
그대 가냘픈 고고성을 울렸을 때
장차 조선의 장한 딸이 될줄은

정녕 꿈에도 생각 못했더라
월사금과 회사금을 못 냈다고
소학교문전에서 두번씩이나 쫓겨나
그리도 서럽게 울던 그 불쌍한 소녀가
장차 조선의 여성영웅이 될줄은!

...

파르릉, 팡팡... 쿵쿵쿵, 뚜루룩, 쿵쿵...
반주음악은 점점 더 요란해졌다. 그에 따라 시인의 격조도 더욱 높아졌다. 시인의 손에서 원고지들이 연방 힘차게 번져넘어간다.

그대의 그 불굴의 기상앞에서
교형리들도 전율하며 뒤걸음쳤거니
말하라 영웅이여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그처럼 강철의 인간

불굴의 투사가 되게 했더냐?

...

반주음악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시인의 격정도 절정에 이르렀다. 그의 손에서 두툼하던 원고가 점점 얇아지더니 그에 마지막장이 남았다. 그는 원고를 높이 추켜들며 온 세상에 고하듯 걱정의 불을 토하였다.

오, 장하다 조선의 딸이여
그대는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니
그대의 이름 후세에 전하리라
길이길이 빛내여주리라!

시랑송이 끝났다.

김일성동지께서 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의자에서 일어서시었다.

《그렇소! 그의 고향도 그리고 학교들도 조국회의 이름으로 부를것이요. 동상도 크게 세워줄것이요!》

그이께서는 다소 흥분하신 음성으로 녀맹위원장에게 물으셨다.

《시가 어떻습니까?》

녀맹위원장은 눈물이 글썽해서 대답을 올리였다.

《저는 시를 들으면서 몇번이나 울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저녁에 우리 녀성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족하시여 시인에게 물으셨다.

《오늘 저녁에 평양시녀성들의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할수 있겠습니까?》

《그 경축대회에서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인 자신이 직접 랑송해야 녀성들에게 주는 감동이 더 클수 있습니다. 그 시로 녀성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시오.》

시인은 흥분하여 가슴을 짝 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불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무하시듯 시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시었다. 그러시기도 무엇인가 미흡하신듯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관을 찾으시었다.

《부녀절경축대회에 정부의 간부들과 각계의 인사들도 참가해서 축하를 하도록 하고 또 소년단 축하단도 조직하도록 포치하시오. 그리고 각국 주조외교관들과 내외의 기자단들도 초빙하시오.》

녀맹위원장의 두눈에서는 마침내 두줄기의 눈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

1951년 3월 7일 저녁.

평양에서는 3.8국제부녀절경축대회가 성대히 열리었다. 대회장은 평양지구의 기관, 기업소들과 농촌들에서 선출된 녀성대표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래빈석에도 역시 각국 외교관들과 내외의 기사단들이 짝 들어차서 개막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또한 밖에서는 대회장을 중심으로 요소요소에서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춘 고사포들이 포신을 하늘로 곧추 세운채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수많은 내무원들이 이중삼중의 경계망을 펴고 대회의 안전을 담보하고있었다.

저녁 8시.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모범녀성대표들이 정부의 간부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그리고 저명한 각계인사들과 함께 주석단에 올랐다.

뒤이어 취주악대를 앞세운 소년단축하단이 북과 취주악에 맞추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입장하여 대회시작전부터 벌써 참가자들을 격동시켜놓았다.

사회자가 연단에 나섰다. 개회를 선언하고난 그는 이례적으로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에게 언권을 주었다.

그 일군이 만장의 호기심을 모으며 연단에 나섰다.

《여러분, 오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정령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댔 그는 또박또박 력점을 찍어가며 정령 《황해도 벽성군녀맹위원장 조옥희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를 엄숙히 랑독한 다음 이렇게 끝을 맺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나는 우리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녀성영웅을 배출한 공지와 자랑을 안고 오늘의 국제부녀절을 경축하는 전체 조선녀성들을 열렬히,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와!- -》

장내가 떠나갈듯 한 폭풍같은 환성이 터져올랐다. 동시에 악사석에서 취주악의 요란한 환영곡이 울려나왔다. 모두 일어나서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너무도 격동되어 울

지 않는 녀성이 없었다. 래빈석의 외교관들까지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내외기자들이 이 력사적화폭을 촬영기에 담느라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사방에서 사진기의 섬광들이 번쩍거렸다.

박수소리, 만세소리, 환영곡소리...

그 열광적인 환호는 오래도록 그칠줄을 몰랐다.

해방후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녀성중시정책으로 하여 남존녀비관념이 퍼그나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장구한 세월에 형성된 녀성경시관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녀자가 남자들도 쉽지 않은 영웅이 되었다는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그 한건의 정령은 마치 굳잠에 든 사람을 세차게 흔들어깨우는 충격파와도 같이 녀성들의 가슴을 광광 두드렸다.

...우리도 영웅이 될수 있다!...

이것은 녀성들로 하여금 비로소 자기들이 지닌 존엄과 무한한 힘을 깨닫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이 엄혹한 시기 자신들의 어깨우에 지워진 성스럽고도 무거운 사명감을 절감케 하였다.

누구보다도 더 격동된 사람은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아침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돌아와서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경축보고문을 쓴 그였다. 허나 그는 이 시각 아침에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던것, 다시말하여 우리 녀성들에 대한 장군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푹푹히 깨달았던것이다.

아, 그래서 장군님께서 조옥희에 대한 수훈을 오늘로 정하셨구나. 오늘의 국제부녀절경축대회를 더 크고 의의있게 해주시려고...

장군님의 그 심원한 뜻이 가슴을 쿵쿵 울려주는것을 느끼며 그는 경축보고문을 들고 연단에 나섰다. 보고문을 연락우에 올려놓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아무리 흥분된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쓴 장문의 보고문이었지만 이 시각에 와서보니 그것은 너무도 내용이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잠시 흥분의 파도로 설레이는 장내를 일별하고나서 마침내 격정에 찬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무릇 위대한 진리들도 알고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그속에 바로 진리의 위대성이 있는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녀성들도 영웅이 될수 있다!...

이 얼마나 당연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녀자가 영웅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수천년래에 굳어진 녀성천시의 봉건관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우리 녀성들자체가 자기들이 지닌 존엄과 무한한 잠재력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영웅이 될수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떨쳐나섭시다.

전선에서 싸우는 남편들과 오빠들을 도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웁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동지들, 우리 녀성들을 믿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녀성들은 이 전쟁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시위할것이며 나아가서 국제무대들에서도 세계적인 강자들과 당당히 패권을 다투게 될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오늘 새롭게 태어난 조선녀성들의 가슴벅찬 환희를 대변하여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자 합니다.

세계여, 수령복을 지닌 조선녀성들을 부러워하라.》

또다시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뒤이어 각 계인사들의 축하와 소년단축하단의 축하문 그리고 종군시인의 그 자작시랑송과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꼬리를 물고이어졌다.

경축대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면서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그날 밤 자정무렵.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사령부 성원들과 함께 적들의 《리퍼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작전토의를 하고계실 때였다.

부관은 저오기 흥분된 기색으로 작전실에 들어왔다. 경축대회정형을 직접 나가보라는 과업을 받고 현장에 나가있다가 들어온 길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경축대회는 대성황입니다.》

《대성황이란 말이지!...》

그이께서는 눈길을 돌리시며 어둠속에 잠긴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환희의 선풍에 휩싸였을 경축대회장의 녀성들을 그려보시였다.

이제 이 소식은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퍼져갈것이며 온 나라 녀성들은 세찬 격동과 환희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동시에 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총결사전에 산악처럼 일떠설것이다. 더 억세어진 녀성들의 힘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떠밀고나갈것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바퀴 힘있게 굴러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뿜어오르는 격정을 누르시며 낮으면서도 근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애석하게도 조선의 참된 딸이었던 조옥희동무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땅에는 수천, 수만의 조옥희들이 태어나게 될것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안팎에서는 불이 번쩍 일었다.

가사

4 계절의 소원

리계주

봄꽃의 향기를 드리고싶어
가슴에 꽃피난 봄날의 소원
저 멀리 전선길 가고가시는
장군님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봄날의 소원이여라

시원한 그늘을 드리고싶어
날마다 커가는 여름의 소원
북변의 험한 령 넘어가시는
장군님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여름의 소원이여라

향기론 열매를 드리고싶어

언제나 넘치는 가을의 소원
군대와 인민을 찾아가시는
장군님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을의 소원이여라

행복의 설노래 드리고싶어
더더욱 간절한 겨울의 소원
온 나라 끝까지 돌봐주시는
장군님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겨울의 소원이여라

4계절 바라는 소원은 하나
장군님 장군님 건강하시라

시대의 명작들과 더불어 삶을 빛낸 작가

가을훈풍이 대지를 누빈다.

풍요한 이 강산, 이 전야를 차마 떠나지 못해 바람도 하냥 쓰다듬듯 정겨이 불고부는가.

들에는 벼이삭들 무겁게 고개숙이고 길가엔 하얀색, 분홍색코스모스꽃잎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경을 이루고있다. 동화속의 그림같은 아담한 살림집들의 뒤편에는 과일나무가지마다 무겁게 사과며 배, 감들이 매달려있고...

고향을 찾은 병사의 바지자락을 장난치듯 툭툭 건드리는 벼이삭들을 굽어보며 병사는 감개에 젖은 어조로 노래를 부른다.

하늘엔 파사론 해빛 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아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지나간 세기의 70년대에 창작된 노래가 오늘도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고있다.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노래의 생명력.

이는 우리 천만군민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이니 우리 오늘 노래와 함께 흘러간 한 시인의 인생에 비끼는 위인의 손길을 마음속깊이 느껴보고저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진심으로 자기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노래할줄 알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땅우에 선군혁명실록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새겨오시던 나날들 중의 어느 한 날이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노래를 무기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던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뜨거운 감회에 잠기시여 우리 나라 문단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공로있는 시인들가운데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가

였던 김두일도 있다고,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한 재능있는 작가였다고 최상의 평가의 말씀을 하시였다.

령도자의 기억속에 이렇듯 뚜렷이 남아있는 작가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가.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가 시인 김두일.

그는 해방전 남반부의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시대의 불행아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며 문학의 꿈도 마음껏 꽃피워 당과 수령을, 조국과 인민을, 시대를 마음껏 노래할수 있었다.

1970~1980년대는 창작가로서의 김두일의 생애에서 전성기였다고 할수 있다.

이 시기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5대혁명가극창조에서 기동작가로 활약하면서 80여편의 노래가사를 창작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창조전투를 벌리던 그 나날은 김두일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스승의 은혜로운 손길을 걸음걸음 가슴사무치게 절감한 잊을수 없는 날들이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창조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작부진으로 진통을 겪고있던 그와 밤늦게까지 무릎을 마주하고 작품의 주제를 놓고 사색을 합쳐주시며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주신적이 있었다.

머리가 포화되다싶이 한 그에게는 눈이 번쩍 트이는 깨우침심이였다.

《이젠 자신있습니다!》

그는 기쁨을 금치 못하여 환성을 올렸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더니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작가동무, 복창해보시오 라고.

지내 흥분한탓으로 더러 흘리거나 앓을가 했던 그는 록음테이프를 풀어놓은듯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되풀이하였다.

그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대견한 미소를 지으셨는지 모른다.

위대한 스승과 제자간의 친근하면서도 무렵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세부들이 쌓이고 덧

쌓이는 과정에 김두일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가사들을 수많은 창작할수 있었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만풍년의 우리 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평양은 나의 심장》,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신심드높이 가리라》...

오늘 《조선노래대전집》에 수록되어 우리 나라 가요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주고있는 이러한 명가사들은 작가 김두일이 세상에 남긴 삶의 뚜렷한 흔적으로 되고있다.

정녕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나날에 작가의 성장의 자욱자욱 살펴주시고 키워주신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들으시는 기회때마다 이 노래가 참 좋다고,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는 병사의 심정을 통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바쳐야 한다는 깊은 사상을 안겨주고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리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던 어느날엔가는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참으로 좋은 노래라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를 듣노라니 수령님의 령도밑에 빈터에서 락원을 일떠세운 지난날을 회고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오늘 우리가 벌리고있는 투쟁을 놓고 또 저런 노래를 지어부르면서 우리를 회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참으로 뜻이 깊고 내용이 있는 노래라는 걱정없는 들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말씀도 하시였다.

작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장군님의 이런 뜨거운 말씀들을 어찌 셴으로 셀수 있으랴.

또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신심드높이 가리라》는 들을수록 훌륭한 노래라고,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담은 시대의 명곡이라는 뜻이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노래가사를 인민군협주단 작가였던 김두일동무가 썼는데 그가 쓴 가사들은 모두 발견이 있고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들로 되어있다고 작가에 대한 과분한 치하의 말씀도 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의 걸음걸음을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스승다운 심정으로 자욱자욱 이끌어주시였거니.

바로 그 품, 그 손길밑에서 문학을 배우고 성장한 작가였기에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것처럼 훌륭한 명가사들을 써낼수 있었던것이다.

김두일의 창작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내세워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군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우리결을 떠나게 되자 재능있는 아까운 작가를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며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오늘도 잊지 못해 두고두고 추억하시는 작가 김두일이야말로 위대한 스승의 품에 안겨 창작가로서의 삶을 빛나게 장식한 복받은 행운아였다.

정녕 노래를 사랑하시고 노래와 함께 선군혁명을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시인은 시대의 명작들과 더불어 영생한다.

조은향

조선속담

벗과 우정

- 흠없는 벗을 찾는 사람은 아무런 벗도 구하지 못한다
- 벗은 형제보다 가깝다
- 부유한 사람은 누가 자기의 벗인지 모른다
- 한명의 친구(벗)는 여섯명의 친척맞잡이다

- 가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지 말라
- 네가 힘들 때 너의 친구는 갑절이나 힘들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 헤어질 때가 오기 전에는 친구의 가치를 모른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이것이 우리 당의 부름이다.

-공동사설에서-

시류음

김철의 목소리

나는 백두산악을 보고있다

김정삼

달아오른 로체속에 사뭇쳐 끓는것은
분화구를 찾는 백두의 용암인가
불물의 격파를 안고 소용돌이치는 열풍은
김철의 불가슴들의 숨결인가

장쾌하게 타번지는 저 쇠물노을은
혁명의 진두에 날리던 백두의 붉은기린가
뢰성인양 진동하는 로의 동음은
강도 일제를 백두산악에 흘날려버리던
총공격전의 우렁찬 합성인듯

오, 주체철용광로여
달리는 너를 형용할수 없나니
자력의 도도한 기상 펼치며
김철의 하늘가에 치솟아 거연한
너는 성스러운 백두의 철의 산악!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들을 안고
주체철용광로여 너는 솟았더냐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지켜낼수 없는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운명이기에

처억처억—
시련의 장설우에 강행군자욱 새기시며
장군님 단행하신 김철에로의 길
무쇠가슴들에 세워주고 지퍼주신
신념의 불기둥이 네가 아니더냐

충천하는 너의 화광에서 나는 본다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우리의 전진을 반대하는 온갖 원썬들
그 정수리에 번뜩이는 백두의 천둥번개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엄엄한 존엄 필승의 그 선언을

잡것이 섞이지 않은 용융한 불의 흐름이여
황홀히 피여오르는 주체철의 붉은 노을이여
예가 아니더냐 수령님 평생소원 꽃피워
민족번영의 새시대 펼쳐가시는 장군님
그이 받들어 올리시는 승리의 강성대국 해돋이를
가장 가까이 심장으로 볼수 있는 곳

창창한 앞날의 아침처럼
희망과 환희가 빛발치는 곳
아득한 미래의 한끝까지도
손을 뻗쳐 눈앞에 당겨올
불같은 욕망으로 피가 끓는 곳

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철신념의 대전승탑으로
승리의 거세찬 봉화로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솟은 주체철용광로여

너는 정녕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세계앞에 백두의 산악이 되어 우뚝 솟은
조선로동계급의 영원한 모습이다!

누가 애국에 사는것입니까

정동찬

멀고먼 북방천리길에
김철을 찾으신 장군님 우러러
오시는 걸음걸음 따르는 생각
이 땅에서 누가 애국에 사는것입니까

12월의 강추위속에 오신분
그이앞에서 출선구를 터쳐놓고

쇠물도랑 불모래 북을 돌구는데
다정히 불러주시는 그이의 음성
저희들더러 애국자라 하십니다

남의것이란 한점도 섞이지 않은
주체철쇠물을 보니
수령님 생각에 눈물난다고...

더운 눈물 번뜩이시는 그이의 눈빛앞에서
울먹이는 이 가슴 달래일길 없는데
가슴저리게 마쳐오는 생각

한평생
주체철큄문에 고생많으신분
파연 뉘시온데
어찌 저희들더러
애국자라 하십니까

모래길을 지지고 태우며
쫄쫄 내리고내리는 쇠물에 대고
내 물어봅시다
이 주체철큄물의 흐름을 보자고
비뿌리는 구내길끝엔들아니 걸으셨습니까
눈덮인 철산봉마루엔들 아니 오르셨습니까

덩실한 남비를 내리쫓는 저 쇠물빛에
못 잊을 날들의 낮과 밤이 다 어려있습니다
찬눈길에 오시던 그런 날
장군님 야전복자락의 얼음버께
지금 한창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내리는것 아닙니까

삼복철의 잊지 못할 땀젖은 그 야전복
안아주고 베풀어주신 그 믿음과 사랑에 겨워
그이의 옷자락에 말없이 떨구었던
그런 날들의 더운 눈물줄기들
이 쇠물길 한푼에 다 흘러든것 아닙니까

참으로 장군님 아니셨다면
주체철큄를 생각할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의 살점같고 피줄같은 우리의것
나라의 생명같고 명줄같은 우리의것
사랑하고 아끼는 그만큼
태어나고 태어나는 새로운 모든것
이 땅을 진동하거니

아버이이시여
주체철큄덩이 두손에 받쳐들고
저희들은 아뢰고싶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애국에도 최대의 애국에 사시는분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열여덟살

김 연

공민증 품은지 이제 겨우 한해
아직은 응석기도 채 벗지 못해
어머니지청구 때없이 듣던 이 몸에
이렇듯 아릅찬 영광이 안겨질줄이야

화선입당!
목이 짹 메고 심장은 후두두
아직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하늘같은 높은 세계에
열여덟살 내가 안겼단 말인가

아버지손목 잡고
김철의 품에 안긴지도 짧은 한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
그 영예만으로도 늘 가슴은 벅차
단발머리 자랑스레 날리며 살았건만

하루일 마친 저녁이면
공로많은 녀인들과 함께
주체철큄용광로에 바친
나의 진정 나의 땀 소중히 여겨
조선로동당원으로 내세워준 당이여

한해밖에 안되는 나의 로동년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으랴
그저 우리 수령님 그러도 절절히 원하신

그 주체철큄이야기 가슴에 뻗혀

북방의 찬바람
삼복철 무더위
그리고 자주 헤치시며 김철에 오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그 로고
가슴저리게 듣고 보아와서

퇴근후면
꽃잎같은 나의 발자욱
용광로 층층계단에 새겼고
작은 땀방울도 쇠물을 보태려고
나의 삶을 불태웠나니

아 심장은 맹세로 불타올라라
가슴은 한없이 넓어져
저 푸른 하늘 우주의 한끝까지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다 안고 가고싶어라

고귀한 나의 생명 당원증에 뺨을 비비며
열여덟 주체철큄의 딸은 소리높이 웨치노라
리수복영웅이 그 나이로 조국에 영생하듯이
당이여 그대의 고귀한 믿음안고
백발이 내려도 열여덟
내 이 나이와 작별하지 않으리라!

김철사람 (외 1 편)

주광남

이른아침마다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노라
온 나라 그 어디선가
나먼저 출근길에 나선 사람 있을듯싶어

일손을 잡아도
성급히 출선구를 터치노라
쇠물의 흐름으로
온 나라 총진군대오를
말없이 앞장서 이끌어야 할
김철사람이기에

눈보라 사나운 겨울
찾아오시여 믿음을 주시며
새해의 총진군길에선
김철이 김철이 앞장에서 나가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생활에서 필요한 모든것
강철에서 쌀도 나오고
강철에서 사랑도 나온다고
얼마나 절절히
김철의 책임을 깨우쳐주셨던가

쇠물을 뽑아도
그 높이신 뜻 생각
아 그래서 우리를

온 나라의 앞장에 세워주지 않았던가
얼굴은 불에 그슬려 늘 거뭇거뭇하고
쇠를 다루며 쇠처럼 굳어진 손은
마디 굵고 투박스러워도
비단다루는 손길처럼 섬세하고
사랑문 아기의 불을 쓰다듬는 손이거니

걸음걸음 장군님따라
그이의 기쁨이 되는 모든것
다 말아안고 다 꽃피울 생각으로
쇠물을 꿰이여도
천만가지 몫을 다 담아 꿰이노라
김철사람의 본분이기에

이제 강성대국대문 활짝 열어제끼고
온 나라 인민들 환호하며 들어서는 그날
맨 앞자리에 내세워준다면
그때엔 서슴으리 김철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엔 선뜻 못 나서리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라고
앞장에 내세워준대도
웅대한것인듯 못다한것 있는듯
머리숙여 대답하리
—저는 김철사람입니다!...

암, 돌보여야지

지원나온 의료일군들
용해공들이 건강해야
쇠물도 광광 뽑아낼게 아니냐고
검진이요 투약이요 못 건디게 굴더니

어허 이제는 또 리발사에
재단사까지 찾아왔단 말이지
장군님께서 귀중히 아끼시는
용해공 우리들의 몸도 가꿔주겠다고

불앞에 살며 저도 몰래 더부룩해진
내 머리 쓰다듬으며 리발사녀인은 말하네
김철사람들을
온 나라 사람들 우러러본다나

재단사는 한수 더 뜨면서
웃은 날개라 하였거니

겉모양도 알뜰하고 끝끝해야
김철사람의 격에 맞는다나

어허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사람마다 살뜰히 더운 정 부을가
겉도 속도
쓰다듬어 보살피는 고마운 사람들

다시 또 되새겨지네
용해공들을 아끼시는 장군님의 그 뜻이
인민들모두의 한생각으로 되는 나라
이 땅에서 받들려사는 공지며 행복이여

암, 돌보여야지
쇠물계획 넘쳐한 위훈자로 돌보이고
걸음도 씩씩하게 용모도 튼튼하게
장군님 내세우시는 김철사람답게!

붉은 거목 (외 2 편)

김명익

북변천리
여기 분수령에서
1 100년만에—
너 전설처럼 맞이하였구나

천년을 더 귀인을 기다림에
피갈은 진액이 흘러 너의 자태 붉어졌던가
오가산의 주목이여!

오호라, 아득히 이끼오른 중세사에
나라잃은 근대사를 다 보며
만경대혁명일가 3대의 피어린 자욱을
다 보아온 너

저 태고의 원시림을 거느리고
마침내 2008년 7월 초하루에
절세의 위인을 맞이하여
그리도 환희로운 년륜을 감았거니

와와— 너 장엄히도 설레이는데
북변의 력사가 파도치는듯
고난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
여기 정든 고장 선구자의 땅에서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펼쳐가신 그 이야기
붉은 거목이여, 오늘 네 다 말하려나
너야말로
선군력사로 빛나는 자강땅의 증전자로다!

시인에게

—혁명시인 조기천을 노래함—

먼 타향 씨비리에도 갔느니
한많은 두만강을 건너…
해방년에 고국으로 달려올 땐
시를 쓰려
영웅의 시가를 쓰려 왔더나

—조선은 죽지 않았다!…
그 웨침, 빨찌산 김대장의
뢰성을 못 잊어서 그는 왔나니
전화의 해 51년, 그가 쓰려진 땅에서
사람들 폭연속의 시인을

조선은 싸운다고 고지들을 오르던
군복입은 시인을 보았다
얼마드뇨! 불타는 그가 쓴 원고지들
그것을 뿌려 뿌리던
전전선을 하얗게 덮을거다…

불타는 시혼이여, 애국자가 아닐진대
어이 절세의 애국자에 대해 쓸수 있었으리
이 나라의 혁명시인이여!
그대의 원고지들로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워졌느냐!

최후의 시

—시인 강승환을 노래하여—

그를 교형리들은
거꾸로 매달고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또다시 우지끈—
청청한 거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육신이 부서지는 소리
이렇게도 부서져야 했더나 시인이여

캄캄한 철창속엔 고요히 타올랐다
눈가에 한점 삶의 불꽃인양
그것은 그의 마지막당생활의 서정이었던가
생의 마감노랜 원고지에 아니겠노라

두고가는 고향산천에 고이 남기였으니
그대 최후의 시여!
그날의 송가는
원썬들 총구앞에서 썼구나
《김일성장군 만세!—》

동서반구의 시단을 펼치거든
혁명절개의 시
이 나라 렬사들이 쓴 최후의 시 그 얼마드뇨!

강선의 불

주광일

(전호에서 계속)

4장

전선길에 불빛이 흐른다
야전차의 불빛이
새벽어둠을 단숨에 가르며
눈덮인 산밭을 쓰다듬으며
치달고 내달리다가도
금시 새날을 몰아오려는듯이
눈부시게 퍼져오는 야전차의 불빛
누구인들 그 불빛에
가슴울렁이지 않으리이 땅의 어느 누구인들
마음속에 비쳐오는 그 불빛을
생의 등불로 안고살지 않으리
조국의 운명을 안고 철령을 넘나든 그 불빛
락원의 길을 열며 고난의 눈보라를 헤친 그 불빛
그 불빛이 누비는 최전연고지들엔
철벽의 총대숲이 번쩍이고
그 불빛이 가닿은 마지막 마을까지
인민의 행복이 물결쳤거니
그 불빛앞에선 폭풍도 길을 내고
그 불빛앞에선 천길벼랑도 물러섰다
눈보라도 불구름도 가리울수 없는
우리모두의 그리움이며
인민에게로 오는 생명의 빛줄기
최고사령부의 불빛!

×

아침해가 솟을무렵
야전차는 레성강언제우에 멎고
장군님은 발전소를 돌아보신다
보기만 해도 멋쟁이언제
듣기만 해도 힘솟는 발전기소리...
금방 날아온 까치 한마리
언제우에 앉아 깍—깍
희소식을 물어온듯 깍—깍—깍
장군님의 기쁘신 음성
—까치가 우는걸 보니
올해엔 강선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겠소
명훈이 한말 나서며
—장군님 그 동무들이 지금

제힘으로 새 전기로를 건설하겠다고
모두 떨쳐나섰습니다
그이 명훈을 보시며
—그 동무들이 무척 힘들거요
이제라도 차를 돌려
강선으로 달려가
터갈린 손들을 잡아주고싶소...
장군님은 추억깊은 눈길을
먼 하늘가에 보내신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전후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40일만에 첫 쇠물을 뽑아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면
미제의 뒤통수에 쇠물벼락을 들썩웠소
발밑에 강선땅을 밟고서신듯
뜨거워지는 그이의 음성
—그후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든
그들은
어려운 날에도 행복한날에도 언제나
걸음걸음 수령님과 당을
강철로 받들어온 영웅들이요
나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믿소!
아, 우리 장군님
강선으로 차를 돌리고싶으셨던
이 나라의 하많은 전선길이어
그 어느 바위굽이
그 어느 리정표가
그 사연을 안고 서있느냐
하루에도 그 몇번 강선으로 강선으로
우리 아버이 마음 달려오시던
그 하늘가는 어드메나

×

큰길가
구내길로 뻗은 큰길가
량불이 노을같은 처녀 하나
큰길에 나선다
앞서가던 광국이 손짓하자
눈웃음 정차게 날리며
—늦은줄 알았네!
은희의 가벼운 탄성

춤추듯 나란히 한 두 어깨
 은희는 전기로의 조작공
 광국이는 자동화직장 용접공
 노래 《강선의 노을》을 들은 그날부터
 처졌던 광국이의 어깨도 들리고
 은희의 꿈도 하얗 커만 가더니
 출근길도 약속한듯 걷는 두 청춘
 은희의 목소리
 —들었나요?
 광국이 고개를 돌리며
 —무슨 소식?
 —재영아저씨가 그러는데
 장군님께서 글썄
 레성강언제우에서
 우리 강선소식을 물으셨대요
 광국의 가슴속에서
 활—달아오르는 불덩어리...
 어느새 거리에 높아지는 발자국소리
 불어나는 강물처럼 삽시에 물결치는 대하
 명훈이 어제 형국에게 전해준 그 소식
 온 강선이 알게 된 그 소식을 듣고
 불을 안은 이 출근길
 보라 강선이 일떠섰다
 심장처럼 추켜든 붉은기 붉은기
 다우치는 발걸음에도 바람이 일고
 길옆에도 불같은 글발이 꿈틀거린다
 강성대국건설에서 강선의 본때를 보이자는...

5장

밤은 깊어간다
 몇달째 달아오른 강선의 밤이
 번쩍이는 용접의 섬광들은
 마른 번개마냥 밤하늘을 태우고
 불꽃은 불꽃마다
 불보라로 땅을 덮고
 용접기들은 단김을 뽑고
 자동차는 숨가빠 달려오고
 전설의 장수마냥 긴팔을 쳐든
 기중기는 용을 쓰고
 이밤 태준은 전지불아래
 로동자들과 이마를 맞대고
 그 무슨 방도를 모색한다
 고질내화벽돌을 끝내 성공한
 젊은 기사는 그 무슨 보물처럼
 그것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고
 삼질소리, 전동기소리, 사람들의 노래소리

오, 땅도 달아 사람도 달아
 마주치는 웨침에도 땀이 날듯
 불의 교향곡인양
 불을 안고 높아지고 불을 안고 뒤설레이며
 깊어 깊어가는 강선의 밤
 만일 《조선은 싸운다》를 쓴
 시인 조기천이
 오늘의 이밤을 보았더라면
 강선은 싸운다고
 소리높이 웨쳤으리

×

눈앞엔 불꽃이 튀고
 눈섭엔 줄음이 매달린 밤
 얼굴에 흐르는 땀
 등골에도 내물을 짓는 이밤
 금방 바뀌끼운 용접고대가
 광국의 손에 벌써 뜨겁다
 머칠전 현장협의회때
 거대한 타원형의 하부로체를
 기중기로 들고 용접하면
 천정용접보다 수평용접이
 세배는 빨라 좋고
 그사이 용접기를 식혀서 좋다는
 기발한 안을 내놓아 보름을 더 당긴 광국이
 그래도 성차지 않아
 입술을 옥문다
 이밤만 당기면 하부로체용접도 끝나게 되리
 그러면 장군님 모실 날이 그만큼 빨리 오고
 그러면 언젠가 은희와
 첫 쇠물을 뽑고서 걸으마 약속했던
 강변길을 걸을 그날도 오리

×

밤깊어 구내길을 지나
 은희는 집에 들어선다
 집에 들어서다 어머니를 보았다
 삶은 꽃강냉이를 한입 이고
 랭국이 든 바چه찌를 손에 들고
 부엌문을 나서는 어머니를
 은희 놀라며
 —어머니 이 밤중에 어딜?!
 녀인은 웃으며
 —나라의 큰 가마가 끓어야
 집안의 작은 가마도 넘쳐나지
 은희 총총히 그를 따라선다

첫 쇠물이 끓을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녀인들의 가슴이 어이 끓지 않으리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이 밤길
 어머니를 따라나선 은희의 밤길

×

밤길 강선의 밤길!
 기쁨과 사랑으로 이어진 이 밤길
 쇠물과 인연을 맺고 사는 강선의 녀인들이
 얼마나 이런 밤길을 걸었더냐
 날마다 쇠물이 끓던 전기로에
 불이 꺼졌던 고난의 나날
 그 녀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거리의 집집에 물어보라
 저녁가마에 풀뿌리를 넣어야 할 때
 가마속의 물보다 증오가 먼저 끓던
 그 가슴들에 물어보라
 봉쇄의 철조망을 늘인 미제의 머리우에
 쇠물벼락을 들썩우는 심정으로
 파철을 모으며 별을 이고 걸은
 남편들을 도와 달을 이고 걸은
 그 많은 밤길 그 많은 새벽길에 물어보라
 강선의 녀인들이 얼마나 쇠물을 원했는가를
 아, 밤길 강선의 밤길
 불을 안은 이 밤길...

×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불빛에 모이고 날아들며
 목이며 얼굴에 지긋게 달라붙던
 모기들에 쏘인 자리에 붕대를 감고
 사수마냥 불꽃을 날리던
 광국이의 눈앞이 캄캄해온다
 어이하라
 쓰러진 그의 손에는
 달아오른 용접집게만이
 희망과 삶의 불꽃을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선잠 깬 새벽바람이
 그의 단몸을 식혀주려
 슬며시 다가서는데...
 —광국이!
 그가 친형처럼 따르는 형국의 목소리다

—광국동무! 광국동무!
 이것은 은희의 목소리
 흔들어 깨웠으나
 일으켜세우려 했으나
 그는 앞을 볼수도 걸을수도
 타는 목에 물을 넘길수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가
 가까이에서 울리는 노래소리...

...
 노을은 아침저녁 피고지건만
 강선의 붉은 노을 언제나 피네
 ...

어머니의 목소리인가
 어릴적 듣던 자장가인가
 광국이 분명 들었다
 꿈결인양 울려오는 그 부름소리를
 장군님의 그 음성을
 강선의 노을빛같은 붉은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자란 그가
 그 노래속에 울려오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
 어이 심장이 뛰지 않으리
 광국이 다시 일어섰다
 쓰러졌던 사람들도 땅을 차고 일어섰다
 오, 장군님 생각만을 가슴속에 짊 채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은
 이렇게 그 노래속에서
 장군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다
 강선은 이렇게 나아갔다

6장

사람들이 모여왔다
 강철직장으로!
 초고전력전기로로!
 바라고바라던 이날
 끝내 오고야만 시운전의 날
 어디 보자 초고전력전기로여
 은빛갑옷을 몸에 휘감은듯
 천리마의 그 위용을 보는듯
 용해장 한복판에 솟아오른
 너 강선의 기상아
 너때문에 잠 못이루고
 너를 위해 정을 끓이고 피를 끓인
 그 사람들이

너의 첫 고고성을 들으려고
 너의 첫 쇠물을 안아보려고
 모여오고 모여왔다
 이제 그 소원의 첫 쇠물이
 붉게 익어 남비에 쏟아져내린다
 우리 장군님앞에
 그보다 아름다운 꽃바구니는 없으리라
 그보다 진실하고
 그보다 열렬하고
 그보다 뜨거운 애국은 없으리라!

×

마지막돌격전의 이 시각
 가슴마다 팽팽히 조여지는
 긴장의 줄
 그 줄을 획— 당기며
 조작반에 불이 왔다
 이제 몇초그 몇초가 지나면
 사람들은 가슴후련히 듣게 되리
 새 전기로의 우렁찬 첫 고고성을
 그런데 전기로는 침묵...
 저마끔 오동작하는 계기
 로우에서 튀는 섬찍한 불꽃?!
 재영의 얼굴에도
 형국의 얼굴에도
 떠도는 불안의 그림자
 —위험하다
 누군가의 소리
 시운전을 보러 왔던
 련관부문 기술자들도
 저마다 머리를 기웃거리다
 이것은 시운전을 할수 없다는것
 이것은 설계를 믿을수 없다는것
 이것은 강선사람을 잘못 아는것
 재영의 가슴을 헤치고
 번쩍 머리를 드는 자존심
 이어 웅성이는 소음을 누르는
 태준의 목소리
 —다시 합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의 고향 사람들이며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강철로 보답해야 할
 강선의 로동계급입니다

×

조작반앞에 은희가 섰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바람소리에도 놀라던 그 눈에
 한점 당황함도 없이
 자칫하면 로가 폭발할수 있다는
 한순간의 위구심도 없이
 얼핏 떠올랐던 광국이의 모습도 사라지고...
 다만 꿈속에서 달려가던
 그 전선길을 따라
 강선소식을가지고 어서 달려가고싶은
 애타는 그 충동에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듯
 움직이는 그의 손
 오동작하는 계기...
 그의 손에도
 재영의 손에도 땀이 질벅
 허나 처녀의 랑볼은 노을마냥 불타고
 눈동자엔 열정의 불이 끓는다
 오, 아름다움이여
 강선처녀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오, 대담성이여
 그의 가슴에서 맘껏 내려치라
 다시 움직이는 손
 여전히 새 전기로는
 침묵...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천년인듯
 그 천년이 여기 멎어선듯
 드디어
 그 천년이 깨어져나갔다!
 번쩍이는 섬광, 솟구치는 불길
 땅이 흔들리고 지붕이 들리는듯
 강선의 아들이 첫 고고성을 터쳐올린다
 형국이며 재영이들이
 은희를 얼싸안는다
 장하다 강선의 딸아!
 장하다 장군님의 딸아!

×

첫 쇠물이 쏟아지던 그날
 사람들의 불을 타고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내렸다
 천만마디 말도
 열광의 웨침도
 그 눈물을 대신 못하리
 그 어떤 진정도
 무쇠가슴을 적시며 흔드는
 쇠물빛어린 그 눈물보다 진하지 못하리

사람들이여
나는 눈물을 노래한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눈물을
약자의 눈물이 아니라
강자의 눈물을
패자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물을
그 눈물은
순결한 인간의 언어였다
그 눈물은 심장속에서 고동치는
생의 노래였다
그 눈물은
강선을 다시 일으켜세운
그 심장의 환희였다

×

그날 저녁 불밝은 집무실을
장군님은 거니신다
방금전 명훈이로부터
강선소식을 들으시었으니
어이 즐겁지 않으시리
온여름 동서천리 북방천리
렬차행군을 하신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리시는듯
마치 그들이 자신앞에 서있는듯
—장해! 장하단 말이야
강선사람들이 해냈거던
용해공출신의 젊은 지배인이며
백발의 로설계가며
나어린 조각공처녀에 이르기까지
등을 두드려주고싶으신 그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신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즐겁기만 한 이 저녁
그이는 안아보신다
현대강철공업의 정수—초고전력전기로를
단 몇달동안에 자력으로 일떠세운
미더운 강선사람들의 모습을
당이 결심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장군님은 한가슴에 다 안아보신다

7장

장군님은 강선으로 떠나시였다
한해도 저물어가고
12월도 다 가던 이날
12월 24일
어머님의 탄생일로 빛나고
최고사령관의 그 이름으로
력사에 새겨진 사연깊은 이날
이날따라 그이 눈앞엔
강선길에 오르시던
수령님모습...
오, 강선길 강선길
선군혁명 장장 천만리
수령님을 한순간도 잊은적 없으신
그이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른 이 길
정으로 오고 믿음으로 오고
노래가 되어 찾아오던 이 길
강선소식을 들으시던 그날엔
꿈속에서도 달려오던
길이여 장군님의 강선길이여
천만군민의 마음속으로 뻗어흐르라
강성대국에 닿아 빛나라

×

쇠물이 끓는다
용암인양 이글거리며
기쁨의 불보라를
열풍을 휘몰아올
출강의 환희에 들먹이며
초고전력전기로에
12월의 쇠물이 끓는다
장군님은 로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보호안경마저 사양하시며
붉은 쇠물을 안아보신다
쇠물이여
너는 어이하여
장군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쇠물이여 너는
한번 믿음을 주면
불길이 되고 화산이 되는
심장의 용암은 아닌가
한번 불이 당기면
불의 나래를 펼치며
천리마가 날고

대진군의 발구름소리
하늘땅을 뒤흔들고
온 강산에 아름다운 노을로 피어나는
쇠물이어 강선의 쇠물이어
너는 어제도 오늘도
수령님을 위해 뚫고
장군님을 받들어
선봉에 타오르는
결사옹위의 불!

×

장군님은 빙 둘러선
채영이며 형국
태준이며 은희
그리고 용해공들을
한사람 또 한사람
하나의 큰 대전을 치른 영웅들인양
대견히 바라보시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신다
—동무들이 장훈을 불렀으니
이젠 온 나라가 장훈을 부를 차례요
강선이 뚫어야
온 나라가 뚫고
강선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온 나라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 기세로 강선이 앞장서고
이 불씨를 봉화로 추켜들고
수령님의 탄생 100돛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지요!
신심에 넘치신 장군님의 그 음성이
이름못할 충격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로
용해장엔 금시 해가 솟는듯

×

그날
용해공식당에도 몸소 들리시어
선뜻 느껴지는 찬기운에
용해공들이 감기에 걸리겠다고
안색을 흐리시던 장군님
일군들을 엄하게 질책도 하시더니
자욱자욱 봄날의 훈풍을 일으키시며
강선이 나아갈 길도 의논해주시고
강선의 새 전방도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고
강선을 떠나가신다

헤여지기 아쉬워
따라서고 또 따라서는
형국이며 채영이들에게
손을 흔드시며
장군님은 떠나가신다
정초부터 설달 그믐날까지
한평생을 이 하루와 같이
불같이 사시고 불같이 달려오신
우리의 아버지
누가 그이의 걸음을
순간이라도 지체하라
이때 미끄러지던 차가
소리없이 멎고
장군님은 차에서 내리시고...
형국이 급히 달려가자
우렁우렁하신 그이의 음성
—강선이 꼭 대고조의 선봉에 서야 하오!
그의 손을 확 잡으시는
장군님의 손길
가슴에 열풍을 일으키는듯
반세기전 12월의 불을 지펴주시던
수령님의 그 손길인가
대고조의 위대한 계승이 이어지는
그 손길을 잡고
이제 천만군민이
선군조선의 양양한 미래를 부르며
정신력의 힘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2012년을 우뚝 세우려니
오, 용암을 품은 산악과도 같은
거대한 힘이 실려오는
12월의 손길
장군님의 손길
그 손길이 불덩이마냥
심장과 심장에 와닿을 때
노을이 불탄다
온 강산을 뒤덮을 12월의 노을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강선의 노을이
하늘땅을 물들인다
불을 안고 일어선다

맺음시

오, 초고전력전기로여
날과 달을 쇠물의 흐름으로 이어놓고
비약의 불길로 래일을 끌어오며
온 나라에 불씨를 날리는
너 불의 기념비앞에서

나는 오늘
2012년을 향하여 불의 나래를 펼친
선군조선의 천리마를 본다
천만군민의 심장우에 타번지는
강선의 불
결사옹위의 불을 본다

×

보라 세계여
대고조의 열풍이 일어번지는
조선의 하늘과 땅을
강선의 불씨를 받아안고
지구를 들썩이며 나아가는
불의 흐름 불의 대진군을
그 대진군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 나서는
혼연일체의 대진군
결사옹위의 대진군
그 불의 선봉은 강선의 불!
그 불이 일어
주체철의 쇠물폭포가 쏟아지고
2월의 비날론숨풍경
희한한 사과풍경이 펼쳐졌다
고요하던 희천의 산발들에
대계도의 날바다우에
만년언제 만년제방을 안아일으키며
그 불이 뻗어갔다

하늘에도 불줄기를 그으며
《광명성2》호가 우주로 돌진하고
우리의 CNC 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다
이 땅은 그대로 불이 이는 강산
천만군민은 그대로 끓는 용암!
오, **김정일**결사옹위의 불
강선의 불은
하늘에 올랐다
온 나라를 덮었다
강성대국을 떠올린다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이고
김일성민족의 삶의 본태인
결사옹위의 그 불은
식을수도 꺼질수도 없으리라
영원히 타오르리라
들으라 세계여
그 불길로 창창 하늘높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새기겠다는
강선의 저 웨침소리를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선
선군조선 천리마의 무쇠발굽소리를
한번 대지를 박차면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고
그러면 민족의 숙망
수령님의 념원이 눈앞에 펼쳐지리
이렇게 백년천년을 당기며
이렇게 천만군민을 부르며
강선은 불바람을 터친다
불길을 온 나라에 날린다

상식

기후와 건강

사람의 수명, 잠, 기억력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무더운 여름이면
몸이 여위고 추운 겨울이면 몸이 좋아진다.

기후는 사람의 정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레를 들면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칠 때면 공기중에 음이온이 많아지는것과
관련하여 몸이 거뿔한 감을 느끼게 되고 겨울철
의 햇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또한 비가 오기 전의 저기압상태는 사람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는
사람들의 정서를 장애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차사고도 많다.

고기압상태에서의 낮은 온도와 습도는 흔히 사
람들의 머리를 맑게 하며 기억력도 좋게 한다.

이른아침이나 깊은 밤에 기억효과가 좋은것도
바로 이런 측면의 요소들이 작용하기때문이다.

찌는듯 한 더위는 사람들의 시력에 나쁜 영향
을 준다.

해빛이 세계 내리쬐이는 섬들에서 사는 사람들
이 30살이 넘어서기 바쁘게 돋보기를 끼는 리유도
높은 온도가 시력기능에 장애를 주기때문이다.

찌는듯 한 더위와 살을 에이는듯 한 추위는 다
심장과 대뇌를 자극하여 혈압을 높이고 나아가서
는 심장과 대뇌에 부담을 크게 주므로 몸에 해롭
다.

위대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에 대한 철학적인 형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2) 《밝은 미소》를 읽고-

김순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2) 《밝은 미소》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위대한 인간만이 지을수 있는 밝은 미소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로 편집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철학성은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사상과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의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진리를 예리하고 심각하게 제기하고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된다.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생애에서 있었던 생활사실들에서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잘 가꿈으로써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흠모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매 작품들은 위대한 어머니의 혁명활동에서 각이한 생활소재를 취급하고 형상을 창조하고있지만 하나의 철학적지향선에 일치되고있는것으로하여 그 감화력이 비상히 높으며 미학적충동이 더욱 새롭고 뜨겁다.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에 대한 미학적해명이 주는 감흥이며 여기에 바로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의 모든 작품들에 굽이치고있는 사상정서적주장과 철학적여운이 있다.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의 정화 어머니의 밝은 미소

혁명가의 미소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밝게 피어나는 최고의 정화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충정의 마음으

로 받들어나갈 때 피어나는 밝은 미소이다.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의 작품들은 이에 대한 깊이있는 사상미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여기에서 단편소설 《사진에 깃든 이야기》(조인영 작)는 평범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골라잡고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광명휴양소에 오신 어머니를 왜 사진에 모시지 못했으며 몸가짐이 방종한듯싶은 청년이 무엇때문에 사진에 끼여들었는가 하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진에 깃든 이야기를 해명하는 식으로 형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주체36(1947)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양소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촬영장에 나오시였을 때 어머니께서는 얼마쯤 떨어져있는 외진 숲언덕에 홀로 서계시면서 낮선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만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철도공장 친구의 등을 가버이 밀어보내시며 자신께서는 굳이 그 자리를 뜨지 않으시였다. 어머니께서는 절간부근의 숲속 둔덕우에 오르시여 낮선 행인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시며 오로지 수령님의 안녕만을 생각하신다. 항일전의 나날 우리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던 친위전사의 자세그대로 사진을 찍는 이 순간에도 수령님의 호위를 서시였다. 그 모습은 실로 항일의 그 시절 친위전사의 모습그대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눈물 흘리는 사진사에게서 샤타를 누르도록 하신다.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어머니를 사진에 모시고 싶어하는 휴양소일군들의 끝없는 그리움의 심정을 마다하시고 수령님의 호위전사가 되시여 수령님을 옹위하신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안도의 미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미소라는것을 만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는 감동깊은 형상이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을 지니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목숨 다바쳐 투쟁하는

에서 표현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수령님의 뜻과 념원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충실성의 참다운 귀감이시다.

단편소설 《제1의 생명》(한웅빈 작)은 이러한 어머니님의 형상을 단편적인 생활단면과 극적계기를 잘 조성하여 감동깊은 생활화폭으로 창조하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나어린 경위대원 리두성을 데리고 동패자밀영에 도착하시었을 때에는 매우 침울한 분위기였다.

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대부대선회 작전을 위한 준비로 들끓어야 할 밀영에는 귀를 집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고 참모장 림수산은 적정이 삼엄하다는데로부터 지방조직과 련계를 취할 대신 누구도 병영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부대의 식량저축은 고사하고 소부대성원들의 겨울나이식량조차 마련하지 못하고있었다. 이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것을 제1의 생명으로 여기고 생사판가름의 길을 헤치고 대부대선회작전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적극 도우신다. 우리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수령결사옹위는 곧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목숨으로 옹호하고 받들어나가는 실천행동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뜻,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깨끗한 충정을 다 바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은 단편소설 《사랑의 요람》(동의희 작)에서도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소설에는 해방직후 제사공장생활의 일단이 펼쳐지고있다.

어머니께서 제사공장에 나오셨을 때 부지배인 강분섬이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앓는 아이를 딸에게 맡기고 나온것을 비롯하여 많은 녀성로동자들은 탁아소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어머니께서는 탁아소를 꾸리는 문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마음쓰시는 문제라고, 하루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시내중심에 아이들의 사랑의 요람인 탁아소건설을 시작하도록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키우는 친어머니심정으

로 탁아소를 꾸리는게 장군님의 뜻이에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탁아소를 잘 꾸릴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봄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빨래도 하시며 정원도 가꾸고 색 고운 이불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시는 그 충정에 강분섬은 목이 꼭메여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사랑의 요람을 꾸려주시고 봄날의 해빛처럼 피어오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을 충정으로 꽃피운 위대한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단편소설 《엄혹한 여름》(최영조 작)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장군님의 반유격구창설로선을 반대하는자들과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워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관철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박력있게 형상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일제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워 이 일대를 모두 유격구, 반유격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난 동지가 오히려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며 현당조직책과 맞서 싸우시였다.

소설에서는 어머니께서 계수동지하혁명조직에서 벌어진 사태의 진면모를 똑똑히 꿰뚫어보시고 조직을 살릴수 있다면, 하여 장군님의 혁명로선을 지킬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도 두려울것도 없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투쟁하신 어머니의 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실로 이러한 형상은 수령결사옹위, 그것은 그 어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목숨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는데 있다는것을 우리모두의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는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인간애,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에 대한 찬가이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심오한 인간 문제를 안고있다.

인간문제의 심오성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거기에 담겨진 인간문제가 얼마나 의의있고 심오한가 하는데 따라 많이 좌우된다.

단편소설들은 인간문제의 심오성에 맞게 구성과 세부, 대사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심도있고 특색있게 가꾸어나가고있으며 철학적깊이를 잘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신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인간애, 인민사랑의 세계가 풍기고있는 형상적화폭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며 어머니를 끝없이 우러러 흠모하게 된다.

위대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우리 인민에 대한 고결한 정과 사랑의 세계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무한한 헌신이었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고 인민앞에서 끝없이 겸허하시고 이 나라 한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애의 세계였다.

단편소설 《집》(조창근 작)은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이 땅의 모든 집은 인민의 집이라는 깊이있는 종자를 심어놓고 비상히 기발하고 극적인 생활세부를 통하여 종자를 꽃피우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물어진 집터자리에서 찾아낸 구들장을 대추나무밑에 가지런히 놓으시면서 이제 인민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주인이 다시 돌아와 구들장을 놓고 집을 일떠세우리라고 믿으신다. 실로 어머니께서 허물어진 집터에서 한장한장 들추어내어 차곡차곡 세워놓으신 구들장마다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숭고한 뜻이 숨배여있는 생활세부이다.

위대한 어머니께서는 설음 설음해도 가장 큰 설음이 집없는 설음이라면 한 민족의 가장 큰 설음은 나라가 없는 설음, 자기 조국이 없는 설음이라고 하시며 공화국이 창건되고 나라의 권위가 온 세상에 펼쳐지면 집터주인도 다시 돌아올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신다.

단편소설은 또한 자신은 변함없이 장군님의 전사일 따름이며 인민의 딸이라고, 장군님께서 세상에서 처음보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는데 응당 인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시며 장군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다 자신의 손으로 대접해드리시며 손에 물마를새없이

일하시는 어머니의 한없이 겸허하신 모습을 다양한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특히 룡강을 양주업자의 딸 점순이를 만나 우리 한식구가 되어 손잡고 우리 장군님의 건국사업을 힘껏 받들어나가자고 그에게 힘을 주어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김책동지의 건강을 위해 보약을 만드시고 터밭에 씨뿌리기도 하시는 생활들은 자신을 이 나라의 한 공민으로 여기시고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겸허하신 품모를 한껏 부각하고있다.

우리의 인민주권을 세우시는 나날에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로고를 다양한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이른새벽》(리상룡 작)은 우리의 인민위원회는 인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호주가 되어야 한다시며 자신은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꽃피우려고 일하는 한 전사이시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어머니이시야말로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인민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공민이시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 《전조등》(주동섭 작)은 어머니께서 해방후 노동자대표들과 좌담회를 마련하시고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뽕뽕이 사방으로 흩어져간 노동자들을 데려오는것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로동계급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며 그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고있다.

작품은 여기에서 동상입은 한 노동자의 팔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지나무가지들을 몸소 절구에 쪼으시여 울퉁내 물에 손을 담그어 언독을 빼도록 하시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부각하기도 하고 본의아닌 일로 해서 서로 고통하는 한 노동자의 마음속 고충을 헤아리시고 어두운 강기슭을 외로이 거니는 그의 앞길에 전조등을 비쳐주시기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어머니께서 비쳐주신 전조등은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사상을 받들어 이 땅에서 영원히 어둠을 가셔주는 해불, 인생과 단결의 서광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활짝 꽃피우면서 어머니의 인민사랑의 헌신적인 로고를 상징적인 화폭속에 부각하고있다.

단편소설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리영환 작)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김정숙녀사께서 계시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태어난다는 철학적인 종자가 깃들어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생활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못녀성들의 운명까지 다 안으시고 녀성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권리를 찾아주시려는 김정숙녀사의 한량없는 은정을 구체적인 생활세부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로 잘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수난많은 한 녀인의 마음속 고충을 헤아리시고 그를 풀어주시려고 한 절간의 녀승이 된 그의 딸을 찾아주시고 그가 이 땅의 한 녀성으로서 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마흔살이 넘은 한 등대장의 처가 꼭 아이를 낳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 베푸시는 인민사랑의 해빛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생의 막바지에서 해매이던 못녀성들에게도 따듯이 비쳐드는 삶의 자양분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이밖에도 많은 단편소설들이 위대한 어머니의 우리 인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인간사랑의 세계를 감동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등불》(심길순 작)은 이채로운 생활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지하조직의 사업을 료해하시기 위해 국내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길에 강변에서 사경에 처했던 한 소녀애를 얼음구멍에서 구원해내신다. 어머니께서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던 소녀애를 구원해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봐주신다. 친어머니도 해입히지 못한 새옷을 지어입히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지없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형상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소녀애에게 자신께서 겪으신 수많은 고생살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시면서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배워주신다. 그러시고는 그 소녀를 연예대공연에 내세워주신다.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부모를 다 잃고 의지가없이 죽음의 막바지에서 해매이던 소녀,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 병어리가 되었던 소녀가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카바이드등불의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으며 어머니를 우러러 고마움의 눈시울을 적시였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에 의지가없이 홀로 남게 된 그 불행은 초분이에게서 노래도 웃음도 희망도 모든것을 다 빼앗아갔던것입니다. 소녀의 멍든 가슴은

얼음으로 찼고 그 애는 병어리가 되었던것입니다.

새옷을 지어주어도 자기에게 새옷을 입혀 또 어디로 팔아버릴가봐 눈물속에 만져보면서도 입지 못하고 말도 안하던 소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녀는 노래를 부르고있습니다. 소녀의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희망이 새싹처럼 움트고있습니다.

...초분이와 같은 불쌍한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누가 웃음과 노래를 주셨습니까. 지지리도 천대받고 압박받던 우리들 모두에게 어느분이 생을 주고 희망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듣고 초분이는 어머니라 부르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것처럼 실로 어머니는 초분이만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의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것보다도 더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였고 열정도 신념도 불! 꺼질줄 모르는 불이였다. 그 불이 열었던 초분의 가슴을 녹여주고 잃었던 노래를 찾아주었던것이다.

소설이 보여준것처럼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 그것은 정녕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이시였다.

이밖에도 단편소설들인 《한 녀학생의 일기》(김청남 작), 《크나큰 녀원》(김병규 작), 《해빛》(조필수 작), 《소생하는 계절에》(문상봉 작), 《밝은 미소》(로종익 작) 등 많은 작품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할 인간사랑의 령마루에 서시여 이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꺼져가는 생명을 소생시켜주시고 죽음의 낭떠러지에 섰던 인생을 구원해주시고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으며 삶의 한가닥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참다운 인생길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인간사랑의 세계와 평범한 인민의 한사람이 되시여 것처럼 겸허하고 소박하게 남너로소모두를 친혈육처럼 친근하고 정깊게 대해주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인간의 헌신과 사랑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는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봄빛처럼 흘러들어 삶의 활력을 주고 소생의 기쁨과 환희로운 생활을 안겨주는 진정 이 세상 둘도 없는 사랑의 밝은 미소이다.

여기에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의 비상한 미학적서적감화력이 있다.

참다운 동지적의리의 세계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가장 귀중한 동지적 의리의 세계에 대한 숭고한 형상적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시고 항일대전의 불바다속에서나 해방된 조국강산에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친위전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에 대하여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관을 지니신 동지애의 화신이시다.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에 들어있는 작품들에는 어머니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동지적도덕의리의 세계, 특히는 우리의 후대들도 대를 이어 우리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로 자라도록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오신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뜨거운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져있다.

단편소설들인 《크나큰 사랑》(황용국 작), 《창공》(박운 작), 《금반지》(김병훈 작), 《흘러가는 둥근달》(최치성 작) 등 많은 작품들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동지들과 그 후대들에게 베푸신 참다운 의리의 세계가 다양한 생활화폭속에 빛나는 형상으로 뜨겁게 새겨져있다. 이러한 단편소설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위대한 어머니님의 심중에 뜨겁게 흐르는 내면심리가 여러가지 생활적계기와 극적흐름을 타고 깊이있게 그려져 작품의 감정정서적전인력이 즐기치게 보장되고있는것이다.

…함박눈 내리는 선달 그믐날, 어머니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헤여져 생사여부를 모르는 박명환 중대장의 아들이 생각나시여 가슴태우신다. (단편소설 《크나큰 사랑》) 그러시던 어느날 평양시 너머에서 일하는 한옥림의 지난날 생활경위를 알아보시다가 그가 바로 희생된 리동석의 안해이며 박영남(금돌이)의 어머니임을 알게 되신다. 하지만 한옥림이 남다르게 당하는 고독과 슬픔을 헤아리시며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신다. 그러시고는 각급 정권기관들에 항일투사의 아들 박영남소년을 찾아보아달라는 편지도 온밤 쓰신다.

우리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싸우다 희생된 렬사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들의 뒤를 이어 하루빨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시며 그를 끝내 찾아주신다. 전우의 유언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서 전우의 아들이 어머니품을 꼭 찾아오도록 하신 김정숙동지의 심원한 뜻, 그이께서 바치신 애타는 노력과 로고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을 마련해주시고 끝없이 흐리는 녀사의 눈물—그것은 크나큰 사랑, 자애로운 사랑, 온 나라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주시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고결한 의리의 세계에 대한 뜨거운 화폭이다.

단편소설 《창공》은 이채로운 생활화폭으로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높이 떠올리고있다.

소설은 날개를 가지고싶어하는 소녀,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고싶어하는 소녀, 어디선가 찾고있을 아버지를 그리는 소녀를 작품의 생활적계기로 설정하고있다.

어머니께서는 희생된 전우들의 자녀들 이름을 다 적어두시였다가 해방된 후 그들을 조선혁명의 기둥감들로 키워내시려는 사명관동지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고향집에 두고온 딸애를 백일홍처럼 곱게 키우겠다고 늘입버릇처럼 외우던 전우, 김억석의 딸 영금이를 끝내 찾으신다. 영금이 일하는 제사공장 높은 담장을 헐어버리고 창문들도 크게 내서 녀성로동자들이 해빛을 함뱍 받으며 날개를 쭉 퍼도록 하신다. 해빛과도 같은 눈부신 세계, 가없이 광활한 창공이 소녀를 맞이했고 영금은 부러워하던 날개를 가지게 된다.

소설에 펼쳐지는 이 량만적인 형상은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시는 고결한 전우애, 숭고한 도덕의리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화폭인것이다.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량만적인 화폭으로 형상한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한것은 희생된 전우들의 후대들에 대한 도덕의리심은 부모들이 다 수행하지 못하고 간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려는 녀원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 량만적형상은 위대한 의리의 세계를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채색하여주고있으며 독자들에게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단편소설 《흘러가는 둥근달》도 량만적색조로 진하게 채색되어 이채로운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홀로 있을 때마다, 엄마생각이 나고 서러울 때마다 달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남호, 검푸른 하늘

을 마냥 해염쳐가는 그 아름다운 달처럼 설움에
이지러진 조각달이 아니라 래일을 믿어 희망에
넘친 보름달이 되어야 할 남호였다. 그런데 남호
는 자기가 어떤 훌륭한 엄마를 모시고있는가를
알길 없어 이지러진 조각달마냥 설움에 잠겨있는
것이다. ...

하지만 그후 김정숙어머님의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남호는 희망에 넘친 보름달이 되었던것이
다. 그 보름달을 바라보시며 어머님께서 밝은
웃음을 지으시었다. 친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뜨거
운 사랑을 남호에게 안겨주신 세상에서 제일 훌
륭하신분 어머님의 웃음, 밝은 웃음은 짓눌리고
시달리던 이 땅의 후대들에게 희망의 봄빛을 안
겨줄 가장 귀중한 삶의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면서
작품의 량만성을 진하게 채색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형상수법을 더욱 탐구하고 세련
시켜 위대한 어머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새로
운 예술적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은 그

고결한 녀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깊이
아로새겨져있고 절출한 스승으로 우리앞에 계시
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이의 인자하신 미소는 우
리의 마음속에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안겨들고
있다.

우리는 단편소설집 《밝은 미소》를 읽으면서 김
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우리 인민에 대한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 한없이 고결한 덕망과 인정미에 매
혹되어 어머님의 위대한 생애를 추억하며 그에
승고한 경의를 드리게 된다. 그렇듯 따사로운 밝
은 미소가 차넘치는이 강산에 주체혁명위업의 대,
정의와 승리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백두
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더 높은 강성번영의 령
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당이 제시한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전투성과를 축복해주시는듯 김정
숙어머님께서 오늘도 주작봉마루에서 사랑의
미소, 축원의 밝은 미소를 보내고계신다.

봄빛이 흐르는 곳

리동수

듣기만 해도 내 마음 흥그러워
직기들의 고르로운 저 소리
보기만 해도 이 몸 따스해
직포공처녀들이 필필이 짜내는
굽고고운 저 비단천

꽃순이 봄순이...
이름도 봄날같은 처녀들
그 여무진 손끝마다에서
송이송이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번개같이 내달는 발걸음따라
훈훈한 봄기운이 일어 흐르는듯

창밖엔 흰눈이 내리고
찬바람 불어도
직포공처녀들이 차지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
여기서는 뜨거운 열풍이 몰아치나니

총창을 비껴들고 전호에 선
병사들만 어찌 전사라 하라
그대들도 전선병사
강성대국건설의 대격전 그 앞장에서
승리의 봄언덕을 향해 달리기예

장하구나
새해의 첫아침부터
가슴가슴에 봄빛을 안고
만복이 꽃피날 봄을 불러오는
비약의 선구자들아

고난의 천리를 헤쳐온 우리 인민
온 세상이 보란듯이 차려입히시려
그처럼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
그이 념원 이 땅우에 꽃피우자고
불같이 사는 방직전선 직포공들

그대들이 있어
거리엔 꽃물결이 흐르고
창가마다 행복이 넘쳐날
강성대국의 봄
승리의 봄은 비단길을 따라 이 땅에 오리라

오 창밖엔 흰눈이 내리고
찬바람 불어도
공동사설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비약의 나래 활짝편 직포공처녀들의 일터
여기엔 봄빛이 흐른다
강성대국의 새 봄빛이...

이 나라 여성들의 자옥우에

박경철

오늘도 생활은 즐기치게 흐르고있다.

따뜻한 봄별이 흐르는 거리를 행복과 열정에 넘쳐 걸어가는 여성들의 활기찬 발걸음을 바라보느라니 자연히 생각이 깊어진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 날마다 찍혀지는 사람들의 발자욱 가운데서 절반은 여성들의 자옥일것이다.

하다면 그 자옥들 가운데서 어떤 자옥이 가장 값있고 빛나는 자옥이며 세월의 눈비에도 지워지지 않는 자옥인가!

그러자 얼마전 도시 먼 산촌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금시런듯 생생히 떠오른다. 그날 나는 취재길에 잠깐 고향집에 들렀었다. 오래간만에 늙으신 어머니를 만나보고싶어서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반갑게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할일이 있다며 바빠 마당에 나서는것이 아닌가.

《우리 분조에서 전나무골포전에 실어낸 거름이 아직 계획량에 이르지 못하고있단다. 그제 늘 속에 걸려있었는데 이제 저걸 마저 실어내면 될것 같구나.》하며 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으로 돼지우리결의 퇴적장에 덩지 크게 솟아있는 거름무지를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그러고보면 어머니는 새해 정초부터 거름실어내기가 끝난 후에도 지금껏 많은 거름을 생산한것이였다.

평생 고향의 대지를 밟으며 농사를 지어온 나의 어머니, 년로한 몸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며 늘 일손을 놓지 않고있는 어머니이고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오래간만에 아들도 왔고 또 래일 해도 될 일인데 오늘은 제발 쉬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래일엔 또 래일 할일이 있다며 굳이 걸이대를 쥐고 손달구지에 거름을 떠실는것이였다.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있는 나는 할수없이 함께 손달구지에 거름을 가득 실고 전나무골로 향했다. 고요한 산촌의 황토색소로길에 또렷이 찍혀지는 발자욱, 어머니의 발자욱...

힘주어 손달구지를 밀면서 그 크지 않은 발자욱을 내려다보느라니 지나온 나날에 고향의 대지에 무수히 찍혀진 어머니의 발자욱들이 눈앞에 금시 떠오르는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님 평생 이런 발자욱을 고향땅에 새기며 많은 일을 해오셨지요. 그런데 오늘도 변

함없이 찍어가시니 아들로서도 정말 감동이 큼니다.》

내가 조용한 어조로 진심을 터놓자 어머니는 흰오리가 섞인 머리를 설레설레 젖는것이였다.

《아니다. 물론 내한생 고향땅에 성실하게 자기를 바쳐왔다. 하지만 강반석어머님의 그 거룩하신 자옥에야 어찌 비길수 있겠느냐. 난 언제나 그 자옥을 마음속 거울로 비춰보며 살아오고있지만 아직도 멀고 멀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독자곶쪽으로 눈길을 보내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 울리는것을 느끼며 그쪽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93년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을 함께 모시였던 뜻깊은 집이 있었던것이다.

온 강토가 날강도 일체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하던 주체7(1918)년 11월 강반석어머님께서서는 소문도 없이 우리 고향인 의주군 피현면(당시) 정산리에 오시였다.

어머님께서 이곳에 오신것은 출옥하신 후 한달도 못되어 집을 떠나신 김형직선생님의 신상이 넘겨되시여 이곳 피현일대에서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는 선생님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생각에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거처하고계시는 독자곶 문씨네 집에 도착하신 어머님께서서는 선생님께 만경대 집소식부터 전해드리신 다음 손수 약도 달이시고 밥도 지으시며 선생님의 병구완에 정성을 기울이시였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녀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녀인들이 이렇게 병들고 비참하게 살고있는것은 나라를 왜놈에게 빼앗겼기때문이라고, 하루빨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녀성들도 힘을 한데 모아 일체와 맞서싸워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또한 봉건악습인 남존녀비사상을 타파하고 조선녀성의 강한 녀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야학에 나와 글도 배우고 세상물정도 알며 시부모공대도 잘하고 자식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키우며 이웃간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다녀가신 후 이곳 독자곶 녀성들은 독립군에 참가

했다가 은신해있던 남편들을 다시 무장대에 내보내기도 하고 독립운동에 나서서 마음놓고 싸울수 있도록 집살림도 도맡아나섰으며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쳐 서로 비밀을 지키면서 정은산과 천마동암산에서 활동하던 무장대들의 숙식조건보장과 피복을 마련하는 등 반일독립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한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이야기는 정산리일대에 전설처럼 전해지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고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이 이야기를 외우면서 강반석어머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었다.

정녕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조선의 위대한 태양을 안아올리시고 한평생 나라의 독립과 여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강직하게 살아오신 강반석어머님은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의 참다운 귀감으로 되고있으며 그이의 불멸의 자옥은 이 나라 여성들의 자옥우에 별

처럼 빛나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건대 그 자옥을 따라 얼마나 많은 여성혁명가들이 자라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며 조국의 해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보람찬 삶을 꽃피워왔던가.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고있는것인가.

우리는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전투장들마다에서 한가정만이 아니라 나라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기의 몫을 당당히 해제끼고있는 미더운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곤 한다. 그 여성들이 짙어가는 자옥들이 우리 조국의 창조와 투쟁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그렇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불멸의 자옥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이 나라 여성들의 크고작은 수많은 자옥우에 별처럼 빛을 뿌리며 이 나라 녀인들의 삶을 투쟁과 창조의 길로 힘차게 떠밀어줄것이다.

땅의 걸음마

오정로

땅이 걸음마를 땀다
풍성할 가을로
저 흰눈우에 솟은 거름무지는
땅이 걸어간 자옥이 아니냐

천지개벽의 고고성을 터치며
새롭게 태어난 그날부터
듬뿍듬뿍 안겨준 거름을 먹고
크게 내짚은 걸음

어디를 봐도
저 선경마을 뒤산
파원의 마지막파일나무밑에도
큼직하게 찍어간 그 자옥

걸어라
윙윙대는 눈보라는
네가 내뿜는 숨결이 아니냐

저 프락포르 자동차의 발동소리는
너의 발구름소리 아니냐

황황 큰걸음 내짚어라
조국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농업전선길을
넓게도 큰길로 열었다

땅아 이제
네가 입고 들어설
황금옷 가을이 어려와
가슴은 터질듯 부풀었다

내 나라 속담도 있지 않더냐
거름더미는 쌀더미란 말
너는 벌써 큰걸음 내짚었구나
오곡백과 설레일 그 가을로!

사랑하는 대지우에 바쳐진 순결한 땀과 뉘에 대한 특색있는 탐구

-장편소설 《인생의 열매》를 두고-

리윤근

《쌀!

단 한글자로 표현되는 그 쌀이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고 민족의 운명, 제도의 흥망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 창작발표된 장편소설 《인생의 열매》(김혜영 작)의 주인공 김준석의 심증을 그대로 표현한 이 문장은 바로 현시기 농업생산의 중요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으로 제시한 새해공동사실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회극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모두의 삶의 터전이며 요람인 어머니대지우에 순결한 땀과 뉘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인생의 열매》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있는것은 바로 오늘의 이러한 들끓는 농촌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한데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소설이 주는 정서적감화력은 단순히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사람들을 교양하는 데서 예술만이 가질수 있는 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현실은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것만큼 문학에 반영하는 인간성격과 생활도 웅당 참신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 주되는 요인은 바로 같은 농촌현실을 그리면서도 인간성격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는것과 관련되는것이다.

독창적인 형상세계를 창조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현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절박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발견할뿐아니라 그것을 특색있게 해명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새롭게 발견하고 특색있게 해명하려고 한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꾸는 땅과 그것이 주는 열매의 참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가꾸는 이 땅에 진정 무엇을 바쳐야 하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빛나야 하는가 하는것이 이 소설이 새롭게 탐구하고 해명하려고 한 사상미학적 의도라고 해야 할것이다.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물은 선봉리관리위원장 주인공 김준석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모를 박고 새롭게 발견한 사상미학적문제를 특색있게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소설의 주인공 김준석은 무엇보다도 순결한 량심의 소유자이다. 다시말하여 그는 량심을 목숨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고 량심이 가리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농촌일꾼이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그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농업성의 한 부서에서 지도일꾼으로 있었다.

그러던 그가 자기 손에 흙을 묻히며 농사를 짓지 못하는것이 마음에 걸리고 고향사람들이 보내온 쌀을 먹은것이 그러도 죄스럽고 송구하여 자기의 맹세가 담긴 편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리고 이곳 선봉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려온것이다. 웃음넘치고 기쁨이 출렁이는 행복한 가정, 새로 받은 좋은 살림집을 두고 수도 평양을 떠나 농사군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준석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 그의 량심은 이 소설의 주선에 놓인 연료와 비료문제를 둘러싸고 관리위원회부위원장 민영태와의 관계속에서 보다 감명깊게 밝혀지고있는바와 같이 그렇게 결백하고 고상한것이다.

새로운 연료와 비료를 연구도입하는것은 말그대로 새것을 창조하는 기술적문제이기 전에 농사의 운명문제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쌀로써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치렬

한 대결전이었어서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한것이다. 하기에 김준석이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계획하고 조직한 사업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연구였다. 그러나 민영태를 비롯한 일부 관리일군들은 립장이 어떠했는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모내기용연유를 남들보다 더 많이 충분히 받아와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 힘든 길을 걷지 말고 손쉬운 방법으로 농사를 짓자는 립장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다른 농장의 농사는 어떻게 되든 계획외분의 더 많은 연유를 끌어들여 안전하게 농사를 짓자는 그들의 그릇된 립장은 김준석의 량심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이였다.

민영태를 비롯한 관리일군들에게 김준석은 이렇게 절절히 호소한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영농자재와 지원로력을 요구한다는것은 더더욱 량심에 어긋나는 행위인것입니다.

우리는 신념과 량심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자력갱생의 길입니다.》

자력갱생의 길, 그것은 우리 당의 요구이며 당의 전사들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해야 할 신념이고 량심이다.

신념은 말로써 고수되는것이 아니고 량심은 순탄한 길에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량심이 가리키는 길에 참다운 의리가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무한한 헌신에 있다.

소설이 심화시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민영태와의 관계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김준석의 불굴의 정신력이 바로 그렇다.

민영태는 애초부터 새롭게 연구하는 연료도입 문제에 신심이 없었다. 그가 관리위원장 대리사업을 맡아할 때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도에 배치했던 아들 금혁이를 이곳 농장 수리분조로 끌어내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연료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맡겼던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를 거듭하자 신심을 잃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였던것이다.

그 손쉬운 방법이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다른 농장에 끌고루 나누어주어야 할 연유를 안면으로 가로채어 더 가져온것이였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김준석이 원칙적으로 꾸짖자 민영태는 원칙만을 내세운다고 그를 설복하려 드는가 하면

지금처럼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행위의 정당함을 고집해나서는것이다.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면서 지은 농사는 그것이 아무리 영근것이라 해도 농사군의 깨끗한 량심이 비끼고 닳이 어린 알찬 열매로 될수 없다. 그러기에 그는 모내기를 당장 앞둔 시각 그토록 기대했던 직화로(기관에 직접 설치한 작은 가스발생로)의 시험가동이 또다시 실패하고 민영태가 그 제작자인 금혁이마저 군으로 빼돌린 정황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하나의 신념으로 심장을 끓였던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자기의 바이올린독주를 꼭 보아달라던 아들 예성의 곡진한 부탁도 있고 송수화기만 들면 평양에서 들려오는 안해의 정깊은 목소리를 들을수 있으면만 오로지 직화로의 완성을 위해 완강히 돌진하는 준석의 불굴의 정신력, 비료를 해결하기 위한 어렵고 힘든 길도 그는 이렇게 헤쳐나갔다.

리당비서의 딸 수향이와 함께 건강치 못한 안해 리순에게 그 연구사업을 맡기고 여기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도록 정을 주고 닳을 심어주고 헌신의 길로 떠밀어준 김준석, 그는 량심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용납하지 않는다.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해명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민영태, 그로 말하면 준석의 아버지 김윤기가 이곳 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작업반장을 했고 또 아버지의 입당보증을 받은 사람이다. 연고관계로 보나, 농사경험으로 보나 그리고 나이로 보아도 내세워주고 존경해야 할 일군이다. 하지만 그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일을 내세워 다른 농장에 끌고루 나누어주어야 할 비료를 가져왔을 때 준석은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분격함을 이렇게 터치는것이다.

《부위원장동무한테 내 몇번을 말했습니까? 량심을 속이고 가져온 비료로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우린 어디까지나 깨끗한 량심을 이 땅에 묻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 손으로 지은 알찬 열매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들려는 우리 시대 농촌일군의 혁명적량심, 자기 농장의 쌀독만이 아닌 나라의 쌀독을 다같이 생각하는 애국공민의 량심으로 온넛을 깡그리 태우는 김준석.

량심으로 살고 량심이 가리키는 자력갱생의 한

길로만 줄달음쳐온 그였기에 끝내 직화로를 완성하고 새로운 비료를 성공시킴으로써 당이 바라는 문제를 풀고 고향땅 선봉리에서도 알곡생산의 자랑찬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것처럼 순결한 량심을 바쳐 가꾼 땅이어서 그 땅에서 준 열매는 또 얼마나 알찬것인가. 량심을 바친것만큼 알차게 맺는 열매, 그것은 그대로 땅에 바친 량심, 인간의 녀이 어린 열매이다.

바로 여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있고 특색있는 이 소설의 독창적인 형상세계가 있는것이다.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특색있게 해명한 이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땅에 바치는 량심을 인간사랑의 새로운 세계에 폭넓게 앙양시킴으로써 땅과 열매, 녀의 의미를 보다 심도있게 밝혀내고있는것이다.

땅은 농민이 가꾼다. 하기에 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보다 그 땅의 주인인 농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인간관계가 순결하고 여기에서 새형의 인간들이 사랑을 바치고 진정을 물을 때 그 땅은 비옥해지고 열매는 더욱 알찬것으로 될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인간량심의 집중적 표현으로 된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그가 행복한 도시생활과 성일군의 직책을 마다하고 고향땅으로 내려온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것이 자기 손으로 고향땅을 가꾸지 못한 량심의 가책이었다고 할 때 그 기초에는 어디까지나 고향에 대한 사랑, 고향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끓고있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고향을 떠나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 여기 봉황산 중턱 밥상바위에 향토애로 끓는 한편의 즉흥시를 남기던 그 시절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과 함께 숨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김준석.

사랑은 헌신이다. 바치는것이 사랑이다. 그러기에 그는 민영태가 뒤에서 좋지 못한 일을 하였을 때에도 그랬고 쌀겨를 놓고 영농자재를 흥정할 때에도 농장원들의 생활형편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새로 지은 집을 배정해주었을 때에도 갓 결혼한 제대군인부부에게 먼저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농전투로 바쁜 속에서도 바다와 떨어져사는 농장원들에게 조개맛을 보이고싶어 그토록 원심을 썼던것이다.

믿음을 주고 원칙적인 충고와 비판으로 도와주고 가꾸어주는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김준석의 아버지 김윤기가 데려다 키운 전쟁고아들중의 한명이었던 박영순작업반장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적극 내세워주면서도 작업반장일을 턱대고 남편을 잘 대해주지 않고 집안일에 전혀 무관심하고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엄하면서도 따뜻이 일깨워주기도 하고 간부들의 눈이 덜 미치는 강냉이밭길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의 티문은 량심을 놓고 준절히 타이르기도 한다. 또한 농장적인 버베기중간총화에서 3등의 자리를 차지한 반발심으로 추석날까지 농장원들을 동원시키는 자유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가차없이 사건화하고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참된 인간, 초급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특히 남편없이 사는 쌍둥이엄마 정춘화와 안해를 잃고 딸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사는 논물관리공 한창세가 한가정을 이루고 구김살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 그의 인간됨, 직화로 시험가동에서 실패하고 군으로 도피한 금혁이를 끝까지 믿고 서로의 사랑문제로 마음속 고충을 겪는 그와 수향이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깨우쳐주는 준석의 인간적품모는 참으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을 낳는다.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 가치있는 연료와 비료를 끝내 연구완성한 금혁이와 수향, 직화로를 설치한 모내는기계의 운전대를 틀어쥐고 환희에 넘쳐 달리는 민영태,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횡포로 하여 위협에 처하게 된 수로독을 한몸이 그대로 방과제가 되어 막아나서는 한창세, 사랑하는 고향땅, 고향사람들을 위해 무너져내리는 옥수천동쪽에 생명을 내대는 금혁이, 수많은 남녀로소가 한 덩어리가 되어 희생적으로 싸우는 그 광경은 그대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응용주의의 장엄한 화폭이었다.

그것은 정녕 김준석을 비롯한 선봉사람들의 녀이 뜨겁게 불타는 모습이다.

그 녀이란 무엇인가.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김준석의 아버지 김윤기가 운명의 그 시각 침상에서 썼다는 《수령님과 우리 가정》이라는 책의 마지막구절에

서 우리는 냇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안는다.

《…나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수령님과 당을
진심으로 받들어갈수 있게 냇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 냇이란 한알을 주면 열, 백으로 보답할줄 아는
땅과 같이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줄 아는 깊은
의리이다. …》

냇은 한알을 주면 열, 백을 보답할줄 아는 땅과
같이 우리모두의 정치적생명의 은인이시고 어버
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위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헌신으로 보답할줄 아는 의리이
다.

그 의리를 다하는것은 량심이다.

그 량심은 쌀로써 우리 장군님과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빛내이려는 그렇듯 고결한것이어야

하고 누가 뭐라든 당이 가리키는 자력갱생의 한
길로만 변함없이 가는 그렇듯 가장 결백한것이어
야 한다.

그 순결한 량심을 묻고 량심으로 가꾼 땅은 반
드시 량심의 열매를 낳게 한다.

그것은 분명 냇의 열매, 인생의 열매이다.

바로 여기에 땅과 열매의 의미에 대한 발견이
있고 참신하고 특색있는 이 작품의 창조적경험이
있으며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앞으로도 선군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
의 벽찬 현실속에서 보다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
제를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참신하고 특색있게 형
상함으로써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화원을 더욱 이
채롭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나의 착정기야

류민호

온 광산이 사랑하는
나의 착정기
장군님 보내주신
나의 착정기

나는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해
너를 떠나
나는 정녕 못살리

너의 소리는 노래같아
아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네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한밤 잠도 안와

생각하면 가슴이 달아올라
눈곱이 젖어들어
우리 재령의 광부들을 찾아
어버이장군님
눈보라를 헤쳐오셨지
그 맵짠 한겨울에

우리 광구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수고한다고
그리도 다정히
우리들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이제 착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일이 한결 쉬울것이라며
생산이 부쩍 오를 때 다시 오마

마음의 한끝을 두다가신
우리 어버이장군님

그이는 정말 약속을 지키시여
우리도 잊을뻔 했던 그 약속을 지켜
나의 이 착정기를 보내주셨거니

온 광산이 끓었다
온 광산이 감격에 울었다
착정기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그 걸을 떠날줄 몰랐다
깊어가는 밤도 아랑곳없이

우리 장군님 다시 오시여
나의 착정기 작업모습
대견히 보아주시며
호박에 동침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그리도 호탕히 웃으실 때

기쁨에 넘쳐
환희에 넘쳐
온 광구가 웃었다
온 나라가 따라웃었다

정녕 그 사랑 노래하며
오늘도 나의 착정기는 돌고돈다
아 착정기소리는 나의 노래
장군님의 사랑을 뜨겁게 간직한
나의 노래여라

강변의 석축돌 하나...

김광수

얼마전 나는 출장길에 서해기슭에 있는 고향에 들렀다.

10여년만에 관리위원장인 송아지적동무와 만나 아지랑이 피는 들길을 걸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는 전야, 해토된 땅에서 풍기는 봄냄새, 싱그러운 흙냄새에 취할듯싶다.

더우거나 변천된 고향땅을 둘러보는 그 감회는 심장을 터지게 한다.

저기가 아니었던가.

장마철 미꾸라지를 잡으러 반두를 들고 달려가다 넘어져 코밀이를 하던 길, 그 길이 밋진 포장도로가 되었구나. 메를 캐어 발두렁 풀겉볼로 불을 놓고 구워먹던 저 산비탈엔 돼지공장이 즐비하게 늘어섰구나.

벌거벗고 물장구를 치던 명산강쪽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해 석축돌이 일매지게 쭉 쌓아져 장마철마다 룡트립하며 땅을 뭉텅뭉텅 잘라먹던 사나운 물갈기도 곱게 길들여졌다고 한다.

토지개혁법령발포 65돛이 되는 이 계절에 봄빛이 무르녹는 들판에는 프락프르발동소리, 농장원들의 웃음소리가 두둥실 하늘을 누빈다.

흐뭇한 마음으로 들판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걸던 소꿉친구 박동무의 눈길이 한곳에 머물러 굳어졌다.

《아니, 저녀석들이...》

그쪽을 보니 두 청년이 강기슭의 석축돌을 뿔아내며 첩병거리고있지 않는가.

그쪽으로 급히 간 박동무의 입에서 거친 말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석축돌을 뿔으며 고기잡이를 해?》

그러자 청년들이 히뭇이 웃으며 대답을 한다.

《아, 관리위원장아바이예요. 잘 보구 욕하시라요.》

《석축돌이 허물어져 다시 쌓는중인데...》

박동무의 얼굴이 금시 누긋하게 풀어졌다.

《그럴테지, 내가 잘못 봤구만.》

청년들이 만류하였지만 우리도 역시 물에 들어섰다.

우리는 한시간 실히 걸려서야 허물어진 석축의 이를 다시 맛물려놓을수 있었다.

동쪽에 나와 구수하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박동무는 청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였다.

《우리가 쌓은 저 석축돌들은 물에 잠기여 잘 보이지는 않지. 그러나 이 귀중한 땅을 사나운 강

물의 피해로부터 굳건히 지켜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린 부모들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저 하나 하나의 석축돌처럼 살아야 해.》

평범하게 한 말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무엇인가 큰 생활의 진리가 가슴에 뭉클 안겨움을 느꼈다.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지켜온 박동무의 자서전이 쓰여져있는 들판에 깃든 그의 가정이야기가 한순간에 영화의 화면처럼 지나갔다.

땅, 그것은 그대로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다.

땅, 그것은 인간의 삶의 운명적인 바탕문제이기 에 지나온 력사의 갈피들을 헤쳐보면 땅을 놓고 피비린 살륙전과 쟁탈전이 벌어져왔다.

인간들의 슬픔과 분노, 기쁨과 희망을 이 나라, 이 땅은 얼마나 많이, 깊숙이 품고있는것인가.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주체35(1946)년 3월5일.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봄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시려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던것이다.

결과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짧은 시일 내에 훌륭히 결속되었다.

이 시기 박동무의 할아버지 박덕삼도 농촌위원회 위원으로 토지개혁에 앞장섰다.

다수확농민으로 성실한 땀을 바쳐 지은 농사에서 많은 몫을 나라에 애국미로 바쳤다.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기쁨과 행복은 꽃구름처럼 피어났다. 이렇게 되자 청산된 착취계급의 책동은 악랄해졌다.

달밝은 어느날 밤. 덕삼은 장마철이면 강물이 범람하여 땅이 류실되는 강쪽에 달구지로 돌을 날라다 석축을 하고있었다.

이때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저수지를 폭파시키려 기여들다가 덕삼과 맞닥들었다.

한놈이 뇌까렸다.

《음, 네놈이 농촌위원회에서 날뛰며 내 땅을 빼앗더니 이젠 밤잠도 안 자구 석축까지 해. 그런다고 네 땅이 순순히 될줄 알았어? 주인과 머슴은 타고난 팔자야. 우린 오늘 밤에 저 저수지를 폭파시켜 이 벌을 물바다로 만들고 말테다.》

《뭐라구? 네놈들이 감히 이 땅을 다시 빼앗겠다고?! 안된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덕삼은 다가드는 놈의 팔뚝에 도끼를 박았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달려든 놈이 덕삼의 잔등을 칼로 찍었다.

덕삼은 쓰러졌다.

놈들은 쓰러진 덕삼을 돌로 짓이기며 악의에 차서 씨벌었다.

《내 땅을 빼앗은 놈, 탕을 쳐 죽이겠다.》

그토록 땅을 사랑했던 농민의 피와 살은 땅에 점점이 뿌려져 조용히 스며들었다.

박동무의 아버지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떻게 희생되었던가.

전시식량증산에 나섰던 그는 적비행기의 폭격에 강둑이 터져 논벌이 침수될 위험에 처하자 그대로 한몸이 석축돌이 되었다.

터진 물구멍을 몸으로 막고 머리우까지 물이 차오를 때 입으로 물을 내뿜으며 마지막으로 웨친 당부는 무엇이었던가.

《아들아, 땅을 지켜야 우리가 이긴다.》

시대를 넘어 메아리쳐온 이 피의 교훈의 당부를 심장에 새기고 박동무는 30여년을 이 땅을 지켜 살아왔다.

고향의 한치의 땅, 하나의 돌, 한그루의 나무에도 그의 사랑과 심혈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넋려있던 폐기논들은 규격포전이 되었고 언덕우에는 과원의 꽃향기가 넘쳐나게 되었다.

강하천들은 가물과 장마의 피해를 모르게 정리되어 해마다 풍작의 열매는 무르익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향땅을 지켜 한생을 바쳐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로력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는 크나큰 영광도 베풀어주시었다.

박동무는 숙연한 표정으로 드넓게 펼쳐진 기름진 전야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오늘신문을 보았겠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시각도 쉬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 고계시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켜가자구. 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우리는 이 땅을 지켜가는 하나하나의 석축돌이 되어야 하네.》

그렇다.

이 땅을 지켜가는것, 그것은 곧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 땅과 더불어 선군조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영원무궁하다.

토지개혁법령발포 65돛이 되는 뜻깊은 이 봄날, 저멀리 지평선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꾸기 빠꾸 빠꾸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가세
...

땅의 진정

김명옥

땅이 어찌 말을 한다더나
땅이 어찌 정을 안다더나
아니여라
땅은 말을 하고 정을 알더라

땅 네가 아니더나
흙보다 돌이 더 많아
버림받던 샘골 구석자리
돌을 취내고 기름지웠더니

오늘은 실한 이삭 뽑아들고
좌좌 나를 찾는듯내 옷자락 붙잡고
어리광치며 속삭이누나
땅아 서덜밭도 옥답도

너는 내 고향의 귀중한 한치
내 지켜섰던 그날의 전호같아
소중히 너를 품어안은 나는 제대병사

환희에 넘쳐 웨치는
아기의 첫 고고성인듯
천만이삭들이 나를 부르며
정답게 속삭이누나

거름 주고 자래워준 어제날의 병사
내가 고마워 고마워
땅이 엄마!하고
나를 부르는듯

초침소리… 구령소리…

김력룡

우리 나라 굴지의 광산이 자리잡고있는 무산읍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에 환히 안겨오는것은 시계다. 읍거리맞은편에 높이 솟은 산중턱에 번듯이 세워놓은 대형시계… 어찌하여 이곳 사람들은 역사나 네거리도 아닌 읍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중턱에다 류다른 시계를 세웠을가.

시계란 모양이 크거나 작거나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가리켜주는것으로 사람들한테 더없이 소중한 물건이다. 하기에 시계를 보는 사람들은 의례히 시침과 분침 그리고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가느다란 초침을 한꺼번에 일별한다.

그런데 무산의 저 대형시계에는 초침이 없다.

저절로 의문이 생겨나고 아쉽게만 여겨졌다. 물론 대중장소에 있는 대형시계들에는 초침이 거의 없는것이지만 저렇듯이 희한해보이고 특색있게 산에 세운 시계엔 마땅히 초침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갈마든다. 때문에 나는 나란히 읍거리를 걸어가던 류동무에게 시계를 가리켜보이며 불쑥 말했다.

《류동무, 저 시계에 초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갑자기 류동무가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나도 우뚝 멈춰섰다. 류동무의 눈길은 곧추 시계으로 옮겨졌고 그의 얼굴에는 사뭇 진중한 빛이 어리었다. 그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회전식착정기운전공이다. 한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함께 제대되어 류동무는 광산으로, 나는 제철소로 배치되어 일하다가 몇해만에 만났다. 류동무는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물론 저 시계엔 초침이 없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할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무산의 광부들은 늘 초침소리를 듣고있는데…》

《아니, 초침소리를?》

몹시 의아해하는 나를 보며 그는 말했다.

《얼마전에 우리 광산문화회관에서선 로동자들의 웅변모임이 있었네. 그때 한 청년광부가 〈초침소리〉라는 제목으로 자기 심정을 열렬히 토로했다네.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 동문 바로 저 시계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속으로 초침소리를 푹푹히 듣는다는거네. 그것도 단순한 초침소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부르는 힘찬 구령소리로 새겨듣는다는거야. 얼마나 뜻이 깊은가. 그때 회

관안의 로동자들 전체가 약속이나 한듯이 그 청년광부에게 요란한 박수를 안겨주었지.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을 뜨겁게 내뿜었으니까.》

《!…》

이어서 류동무는 몇차례나 거둬 광산을 찾아온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파로운 철산봉정점까지 오르시여 광산이 나아갈 길을 더 환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해 걱정을 금치 못하며 이야기했다.

나는 류동무와 보조를 맞추어 걸음을 떼었으나 생각이 자못 깊어졌다.

초침소리… 구령소리…

다름아닌 이곳 무산의 광부들은 저 시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역센 심장의 박동처럼 즐기치게 높뛰는 시계의 초침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것이구나. 그러면 초침은 불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웨치리라.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렇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저 시계의 초침소리를 듣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람 사납고 산세 험한 철산봉을 찾으시여 안겨주신 크나큰 기대와 믿음과 담력을 광산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받아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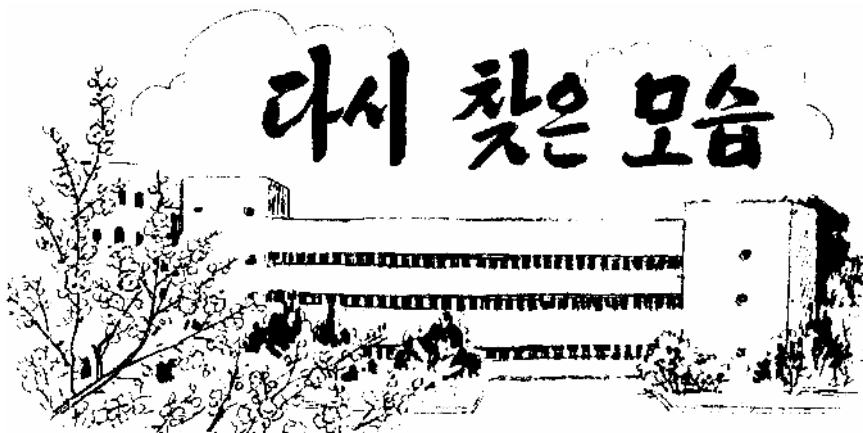
아니, 온 무산땅의 사람들이 저 대형시계를 보며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정녕 쉽없는 초침소리를 자기들의 피끓는 심장마다에 대고 웨치는 조국의 힘찬 구령소리로 받아안은 그들이기에 강성대국건설의 벽찬 진군길에서 끝바른 승리의 길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앞으로! 앞으로!

광산은 밤낮을 모르며 들끓는다. 질 좋은 철광석이 사태마냥 쏟아져나온다. 넘치게 광석을 실은 대형차들이 쉼 없이 꼬리를 물고 달린다. …

나는 지금도 무산을 생각하면 그 자랑스러운 광산의 거창한 웅자와 더불어 유난히 틀잡힌 시계의 모양이 우렷하게 눈앞에 그려진다. 동시에 초침소리, 구령소리와 함께 하늘땅을 뒤흔드는 발파소리며 용을 쓰는 자동차들과 갖가지 기계들의 들썩는 동음도 쟁쟁하게 들리는듯싶어진다.



김순철

1

박영옥은 동실한 얼굴에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방 훔치며 해별이 짹짹 내려쬐이는 큰 길을 부지런히 걸었다.

8 월의 한낮이 되어오자 도로는 무섭게 달아올라 숨이 턱턱 막히었다. 그러나 이따금 손에 든 바께쓰를 내려다보는 영옥의 땀흐르는 얼굴엔 기쁨의 빛이 력력하였다.

지금 그가 두손에 엇바꾸어 들고가는 보자기를 썩은 바께쓰안에서는 칠색송어들이 요동을 치고 있었다.

양어장책임자는 큰 고기들은 어제까지 다 판매했다고 딱 자르다가 표창휴가온 아들 이야기를 하자 선선하게 그중 큰놈들을 한바께쓰나 잡아주었다.

영옥이 바께쓰에 물까지 채워서 산채로 가져가려고 하자 책임자는 허를 찼다.

《아무래도 가마안에 넣을 고기인데 고생을 사서 하누만.》그래도 좋았다. 아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먹일수 있다면 삼십리가 아니라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영옥이었다.

며칠전 둘째아들까지 군대에 나가고 남편과 따분한 신혼생활을 하던 한적한 집안에 딸아들이 불쑥 들어섰다.

그때 출입문을 꼭 채우고 서서 싱글빙글 웃는 립 립한 병사를 맞이한 영옥은 한순간 눈만 습벽이며 굳어졌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제 철성입니다.》

《철성아!》

가슴이 터질듯 콕 차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영옥은 다른 말을더 할수 없었다. 기쁜 순간임에도 눈물은 왜 나오는지... 영옥은 그저 눈물을 훔치

며 아들을 쳐다보다가는 등을 두드리고 또 동실해진 얼굴을 쓸어보기도 하면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철성은 그러는 영옥을 덥석 부둥켜안고는 부엌안을 빙빙 돌아갔다.

표창휴가를 온 아들의 소식은 작은 산골군 읍바닥에 날개가 돌힌듯이 순간에 콕— 퍼지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기쁘겠수다.》하며 축하해주고 색다른 음식들을 들고 오는가 하면 군대에 나가있는 자기 자식을 보는것 같다며 집으로 들 청했다.

중학교시절까진 《그녀석 구실하기 힘들어.》하며 잔소리가 많던 식료공장의 오랜 기능공이며 동네좌상인 백아바이까지도 《개천에서 룡이 났어. 부모들 봐선 철성이가 멋있게 컸거든.》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짜리그루에서 짜리 나고 대끝에서 대가 나지 철성이가 누굴 닮았겠어요?》

영옥은 색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로인의 말에 악의없는 반박을 했다.

《그런것 같지두 않아. 자식은 걸만 낳지 속은 못 낳는다는 말도 있어. 허허, 어쨌든 군대가 좋은 종단 말이야.》

정말 요 며칠어간은 사람사는 집같았다. 제법 턱언저리의 수염터가 거뭇해지고 몰라보게 행동거지가 의젓해진 아들로 해서 자기의 금새가 한뼘이나 올라간것같아 영옥은 요새 붕 떠서 살았다. 중학시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니의 손을 빌리면서 속을 태우던 철성이가 무슨 일이든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해제긴다.

이삼일동안 친척들과 동무들의 환대에 등 떠있

던 철성이가 그저께부터는 갑자기 기분이 저조해졌다.

철성은 낯설은 집에 온듯 방안을 둘러보다가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황황히 눈길을 돌리었다.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아니예요.》하고 외마디로 대답하고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영옥은 섭섭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영옥은 금시 팔맥이 스르르 빠지는듯싶어 식료공장과 살림집지구로 갈라쳐들어가는 갈림길어구의 사철백양나무그늘 아래 바깥쪽을 내려놓았다.

이때였다.

지나가던 화물자동차가 스르르 벗어나는가싶더니 《영옥이 아니야?》하는 한 녀성의 발랄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그전에 식료공장에 함께 다니며 아이들도 함께 키운 동무인 미옥이었다.

《오, 미옥이로구나.》

미옥은 환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다가오더니 바깥쪽을 주시하며 물었다.

《어딜 갔다오니?》

《응, 양어장에 갔댔어. 철성이에게 칠색송어탕을 끓여먹일려구. …》

《오—그래서 이 더운 날에 삼십리걸음을 했니? 원, 참… 년 정말 아무 일이나 극성이야.》

영옥이도 웃었다. 《아무렴 너에 대겠니? 그래 어디 가는 길이야?》

《응, 원료기지에 비료실고 가댔어.》

영옥은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어 그에게 다시 인사말을 했다. 《미옥아, 그젠 고마웠어.》

그저께 미옥이가 철성이의 표창휴가를 축하한다며 영옥이네 모자를 저녁식사에 청했던 일을 녀두에 두었었다.

《참, 별말을 다 하는구나. 영옥아, 철성이가 정말 대견하더구나. 이젠 다 컸어.》

미옥의 말에 영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졌다.

이때 뱅뱅— 재촉하는듯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렸다.

《영옥아!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후에 얘기하자, 내가 한번 갈게.》

미옥은 뛰어가 차에 올랐다.

사라지는 자동차를 멀거니 바라보며 영옥은 생각했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사는 미옥이는 나이먹

을수록 점점 세련되어간다. 처녀때 공장사람들이 춘향이, 춘향이 하던 고운 얼굴에 한때는 검버섯이 끼고 주름이 느는것 같더니 최근에는 40대 녀성의 현숙한 아름다움이 온몸에 배여있다. 로동생활이 부어주는 생기가 얼굴에 가득하고 눈은 항상 희열로 반짝이는것이 영옥은 미옥을 볼 때마다 동년배녀인으로서 부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별로 그옆에 서면 영옥이 자기가 축잡히는것만 같다.

철썩—하고 바깥쪽에서 물고기들이 요동치는 소리에 영옥의 생각은 다시 철성이에게로 돌아갔다.

(철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가? 혹시 누가 그를 모욕이라도 했는가. …)이를 부정하듯 영옥은 손부채질을 활활 해대었다.

시무룩해있는 철성의 얼굴이 무엇을 묻는 모양 영옥의 앞으로 다가든다.

오늘 아침에도 밥술을 몇숟가락 뜨다가 놓는 철성에게 영옥이 바깥 다가왔으며 물었었다.

《왜, 입맛이 없니?》

《아… 아니요.》

지긋게 파고드는 어머니의 눈길을 피하는 철성의 눈빛은 무척 착잡해보였다. 무엇때문에 아들이 속을 태우는지 짐작되지 않았다.

자기네 집으로 말하면 영옥이 이악스레 집짐승 기르기를 잘해서 송아지만 한 엄지돼지만도 다섯 짝에 염소, 토끼, 닭, 오리가 한마당 가득 우글우글했다. 집짐승들을 많이 키워 저축한 돈으로 최신형텔레비존을 비롯한 전자제품들과 고급가구들까지 일식으로 갖추어놓은 영옥의 집은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했다. 흠이라면 1동2세대의 단층집인데 그래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으니 남부럽지 않았다.

그 덕에 이번에 철성이가 와서도 끼마다 닭곰이며 오리훈제, 돼지고기볶음 등 색다른 음식들을 밥상에 올려놓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철성의 속내를 두드려보느라고 생각을 굴려보았으나 시무룩한 아들의 얼굴은 영옥의 가슴속에 무겁게 걸려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철성이가 좋아하는 칠색송어탕을 해먹이려고 삼십리가 넘는 양어장걸음을 했는데…

영옥은 자꾸만 칭칭 감겨드는 생각의 동아줄을 끊어버리듯 꿈—하고 바깥쪽을 들어올리고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영옥이가 것처럼 힘든 걸음을 하여 끓인 칠색송어탕도 철성의 낯색을 다르게 하지 못했다. 펄펄 뛰는 칠색송어를 손질해서 가마안에

떨어넣고 터밭에서 방금 딴 풋고추, 풋마늘에 토장까지 넣어 맛갈스레 끓인 칠색송어탕이 흥심없이 하는 철성의 숟가락질 몇번끝에 맹랑하게 식어가고있었다.

식사가 끝난후였다.

철성은 옷매무시를 바로하더니 어머니앞에 단정히 마주앉았다.

《어머니, 전 떠나겠습니다.》

영옥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툰렁 떨어져내렸다.

《떠난다는건?...》

영옥은 허둥거려지는 눈길을 가까스로 철성의 얼굴에 모았다.

《철성아, 아직 휴가기일이 열흘이나 남았고 출장간 아버지도 안 오셨는데 불쑥 떠난다는게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 있는지 속 시원히 말하려무나.》

철성은 영문을 알수 없어 안타까이 가슴을 두드리는 어머니를 외면한채 속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방바닥만 주시하고 앉았던 철성은 무겁게 한마디를 입밖에 내었다.

《어머니, 그러지 않아도 우린 늦은 걸음입니다. 그럼 전...》

그리고는 움쭉 일어서 배낭을 지고는 역으로 나갔다.

기차에 오른 철성은 승강대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하다가 끝내 입술을 깨물고 눈길을 들었다.

영옥은 철성이가 자기를 넘어 어딘가 멀리를 초연히 바라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무엇을 찾고 그리는지 아들의 쪼프린 간절한 눈빛이 오래도록 영옥의 뇌리에 박히었다.

금시 영옥의 눈에 핑 눈물이 고여올랐다. 아들이, 네 마음엔 무엇이 있니?...

기차는, 아들은 떠나갔다.

영옥은 텅 빈 역구내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나무잎 하나도 없는 마가울의 황량한 들판에 서있는듯 온몸이 오싹해왔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인생의 행복과 슬픔, 념원과 기대의 전부나 같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고 지금껏 자부해왔는데 너는, 너는...)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말없이 부정하고 떠나가버린것이다.

영옥은 뜰안에서 먹이를 달라고 요란스럽게 고아대는 돼지들과 염소, 오리들의 울음소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망연히 앉아있었다.

영옥의 손에는 철성이가 남기고 간 편지가 쥐여져있었다. 철성이는 어머니앞에서 차마 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적어 경대우에 놓아두고 떠났던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이 아들을 옥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이 아들의 가슴속 한구석에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흐려질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줄 알면서도 서둘러 떠납니다.

어머니는 물으셨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구요.

어머니, 며칠전 표창휴가온 기쁨을 안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던 제가 길에서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다니던 식료공장의 조원택지배인동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배인동지!〉

떡 굳어져 한참이나 저를 바라보시던 지배인동지는 〈이게 누구야? 우리 영옥기사의 아들이 아니야? 맞지?〉 하며 와락 저를 그러안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그리고 제잡담 저의 손을 잡고 공장안으로 이끌고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날 예상치 않게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화된 설비들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식료품들을 보는것도 멋이었지만 구내는 또 얼마나 희한하고 멋지게 변모되었겠습니까. 그전날 제가 유년시절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때의 공장모습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동지는 야! 야! 하며 환성만 내지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제일 힘들 때 공장을 일떠세우느라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물러앉다보니 지금 이 덕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이 큰아버진 속이 좋지 않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울적해졌습니다. 공장을 나오다가 전 입구에 세워진 영예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게시판에 소개된 혁신자들의 사진을 훑어보던 전 흠칫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들속에서 낯이 익은 얼굴, 광혁의 어머니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시지요? 탁아소때부터 함께 자란 광혁이 말입니다.

없을줄 알면서도 전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지배인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겼던 울적함은 실망으로 번져지는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공장은 이렇게 번창했는데, 광혁의 어머니는 혁신자로, 고급기능공으로 떠받들리는데 어머니는 왜 거기에 없습니까?...》

영옥은 더 읽을수 없었다. 호— 하고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내가 정녕 그 시절을 과거로 밀어버리고 살았던 말인가.

그 시절, 일은 힘겹고 땀은 동이로 흘렸지만 웃음과 락판이 그 모든걸 무색케 하던 젊었던 그 시절.

정말 보람찼지.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발효기사의 자격증을 받던 날 미옥이와 손잡고 어린애들처럼 사진관으로 달려가던 일...

무두봉원료기지에서 강냉이밭 밤경비를 서는 미옥에게 가독나무잎사귀안에 잡아넣은 반디불을 두눈에 가져다대고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를 깜짝 놀래우던 일... 미옥이가 너무나 놀라는통에 내다시는 그따위짓 안하마 하고 몇십번을 빌었더랬지. 정말 재미난 일도 많고 일하기도 즐거웠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이토록 귀중하게 추억될줄 내 모르고 일터를 떠났던가.

영옥은 철성의 목소리가 불러오는 그날에도, 힘겨웠으나 더없이 보람찼던 과거에도 빠져들어갔다.

...광혁의 어머니인 김미옥과 박영옥은 중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한날한시에 식료공장에 배치받은 친근한 동무였다.

공장에서는 자그마하지만 이악하고 날쌔 영옥을 비행기라고 했고 듬직한데다 완강하고 꾸준한 김미옥을 땅크라고 했다.

두 처녀는 승벽내기로 일하여 3 대혁명기수가 되었고 몇년후에는 일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하여 기사까지 된 다음에 결혼식도 같은 해에 한 친구였다.

영옥은 대학을 졸업한 샌님같은 설계원총각과 결혼했고 미옥은 인민군대에서 제대된 후 공업대학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다.

《영옥아, 결혼생활이 어때? 재미있니?》

《음— 그 사람 평생원같은게 답답해죽겠어.

넌?》

《난 그림의 떡이야. 벼락잔치를 한데다 대학으로 훌쩍 떠나갔으니 싱겁기 짝이 없어.》

갓 결혼한 그들은 모여앉으면 달콤한 신혼생활에 대한 행복과 미래를 두고 숫접게 속삭이곤 하였다. 두녀인은 경쟁이나 하듯 한해에 떡돌같은 아들들을 낳았다.

공장에서 두 녀인은 사랑을 받았다.

공장은 드바빴다. 일욕심이 많은 조원택지배인은 이름없던 산골군의 지방산업공장이었던 공장을 현대적인 공장으로 꾸려나가 전국에 소문이 났다.

그때는 며칠밤을 새워도 힘든줄 몰랐다.

지금도 사람들이 드문히 외우곤 하는 영에게시관사진행불사건도 바로 그 시절에 생겨난 일이다.

어느날 한참 일하던 영옥은 조원택지배인에게 불리워갔다.

보통키에 단단하게 생긴 지배인이 공장영에게 시관앞에 다리를 뻗치고 서있었는데 인상이 엄엄하기 그지없었다.

《누가 이 사진을 뜯었소?》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묻는 지배인의 음성은 썩날카로웠다.

영옥은 어안이 빙빙해서 영에게시관을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영옥은 어제 아침 내다불인 자기의 독사진자리가 비여있는것을 보았다. 영옥은 놀라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영옥은 지배인에게서 한참 닥달질을 당했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날 저녁 미옥이와 나란히 퇴근하던 영옥은 집앞골목에 한가득 모여있는 철성이또래 애들과 맞다들게 되었다.

《자, 이것 봐. 우리 엄마 공장에서 만든 사탕이야, 먹어봐.》

철성이가 껍채로 들고나온 사탕을 애들에게 한 줍씩 나누어주며 하는 말이였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광혁이도 한마디 끼어들었다.

그러자 얼굴이 해사한 한 아이가 췌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이따위거, 우리 고모가 평양에서 요전번에 사탕을 가져다줬었는데 빨락지에 쓴거 이것보다 더 맛있어야—》

그러자 철성이가 《뭐야?》하고 그 애앞에 바투 다가섰다. 당장 붙어잡고 싸울판이였다. 옆에서 광혁이도 함세해나섰다.

《아니야, 우리 엄마들이 만든 사랑이 제일 맛있어. 그렇지, 철성아!》

《그럼 뭘. 그래서 우리 엄마 사진이 공장속보판에 크게 났어. 자 봐, 사랑이랑 과자랑 맛있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찍어준거.》

철성이가 애들에게 흰 종이장같은것을 척 내보이며 자랑하는것이 보였다.

《그래, 그래.》 아이들이 웅성웅성대며 평양사랑 사랑을 하던 애에게 다가드는것을 보고 영옥과 미옥은 《애들아!》하고 부르며 다가갔다. 다가가 보니 철성의의 손에 들려있는것이 바로 그 문제의 사진이었다.

두 녀인은 서로 마주보며 허거프게 웃었다.

그날 밤 영옥은 철성이가 거울 옷단에 척 붙여놓은 자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철없는 아들이 대견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집에서 세끼 더운밥을 해주지 못하고 공장에서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았지만 어머니의 수고를 장하게 여겨주는 아들이 고마웠다. ...

3

《어머니! 지배인동지를 만난 후 난 생각해보았습니다.

중학교시절까지만도 어머니가 공장을 떠나 집에 들어온 일을 크게 생각지 않은 철없던 저의 지난날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한가정의 울타리를 단아매고 들어앉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응석동기로 자란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리던 공장을 왜 떠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중학시절 얼어붙은 강가에서 눈물이 나도록 수치감을 느꼈던 그날도 없었을게 아닙니까?...》

영옥은 드디어 피로움에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였다, 공장을 왜 떠났는가고?...

...커다란 포부를 안고 가정과 공장을 가꾸어가던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공장의 기대는 자주 멎었다. 큰물피해로 논밭들이 물에 잠겨 원료가 모자랐고 정전이 자주 되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원료기지를 더 늘리고 중소형발전소건설까지 시작했다. 공장에 나와 힘겹게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한창 자라는 아들형제가 굶어자기 일쑤였고

외아들로 고생을 모르고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이 짜증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여보, 이 집 안주인이 누구요?》

《미안해요.》

《미안하다? 물론 당신이 힘들다는걸 알아. 하지만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당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고 울지나 마오.》

빨래도 제때에 해주지 못한데다 저녁밥까지 굶어 탄불이 죽은 찬방에서 꼬부리고 자는 아들형제를 바라보는 영옥의 마음은 칼로 베인 자리에 소금을 뿌린듯 쓰리고 아리었다.

《여보, 전 정말 힘들어요. 당신까지 그러시면 전 정말 공장에 다닐것 같지 못해요.》

영옥이 설분을 토하며 하소연하자 남편은 오히려 불는불에 키질하듯 약을 올려놓았다.

《제집 세간살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공장, 공장 하오?》

모든것을 참고 견디던 영옥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장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영옥에게는 원료기지확장공사며 발전소건설까지 벌려놓은 공장일들이 아득히 멀리 끝이 보이지 않았다.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집세간살이에만 신경을 쓰면 자신도 헐하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수 있을것같았다.

별들이 총총한 어느날 밤이었다.

건설장에서 돌아와 제일 늦게 둘째아들을 업고 퇴근길에 오른 영옥은 미옥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광혁이 엄마, 난 공장을 더 다니지 못하겠어.》

미옥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기관에서 일하던 그의 남편은 군대때 상했던 허리아픔이 도져 중앙병원에 입원하다보니 미옥의 가정적부담은 곱절이나 무거워졌다. 한때 춘향이라고 불리우던 미옥이의 달덩이같이 환하던 얼굴이 지금은 검버섯이 질게 내뿜고 때이른 주름살이 잡혔다.

한동안 침묵속에 걷기만 하던 미옥의 입이 열렸다.

《철성이 엄마, 나도 하루에 몇번씩 주저앉고싶다. 하지만 이걸 보고 공민적인 의무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만 량심이 허락치 않아.》

영옥은 멈춰섰다.

《량심? 넌 그럼 내가 량심이 없다고 생각하니?》

미옥은 영옥의 팔을 끼고 걸음을 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철성이 엄마, 네 마음을 모르지 않아. 그리구 지금 그 어떤 말을 해도 네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도 잘 알고...

하지만 공장 초창기부터 함께 일해오고 함께 기사의 자격증도 받은 친구로서 섭섭하구나.

혹시 후날에 네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저 이 말뿐이야.》

나지막한 어조로 말하는 미옥의 말이 심장을 찢었으나 영옥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후회 안할거야.》

다음날 영옥은 끝내 사직서를 냈다.

《지금처럼 할일이 많은 때 발효기사이며 고급 기능공인 동무가 집에 들어가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만 든다는게 될 말ियो? 동문 자식들을 호강 시키는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힘겨울 때 저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식이 안해구실, 어머니구실을 잘할수 있다는건 안될 말ियो.》

지배인은 분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함께 일하는 동무들이며 세포비서아바이며 무슨 말인들 안했으랴. 그래도 영옥은 가정쪽으로 돌려세운 마음을 그대로 고집하였다.

청춘시절의 꿈과 로동생활의 첫정이 깃들어있는 공장도 소중했지만 가정과 자식들이 더 가까이에서 끌어당겼다.

원래 이악한데다 손끝이 여문 영옥은 집에 들어온 후 착실하게 집짐승기르기를 해나갔다. 애쓰보람이 있어 집안엔 기름기가 돌고 세간살이가 윤택해졌다. 남편의 잔소리는 칭찬으로 바뀌었고 애들도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내세웠다.

한편 김미옥은 공장에 더 든든히 뿌리를 박고 땅크처럼 억척같이 일해나갔다.

철성이가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끈한 음식을 타발할 때 광혁은 제 손으로 끓인 밥보자기를 들고 공장으로 종종 다니었다. 한동네에서 사는 두가정의 자식들은 화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부모들의 이름까지 곁들여 평가되었다. 동네 백아바이는 때없이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드문히 해서 영옥의 부아를 돈구었다.

어느날 영옥이네 집에서 학습반을 하던 철성이와 광혁이사이에 거울에 붙여놓은 사진때문에 다툼이 일었다.

《너희 어머니가 아직도 혁신자니?》

광혁이가 무심히 던진 이 한마디는 철성을 들먹시 난처하게 만들었다.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고 강파로운 성격인 철성이였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희다못해 파랗해져서 얇은 입술을 피가 나게 깨물었다.

《됐어, 이젠 너하고 놀지 않을래.》

철성은 공부하던 앉은책상에서 발탁 일어서더니 그 사진을 뺨 뜯어냈다.

그날 철성과 광혁의 다툼을 목격한 영옥은 남모르게 자기의 영예사진을 사진첩갈피속에 넣어버렸다.

그 영예사진과 함께 물어버린 로동생활의 긍지감이 아들의 성장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될 줄이야.

철성의 편지구절이 다시금 영옥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왜 공장을 떠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중학시절 얼어붙은 강가에서 눈물이 나도록 수치감을 느꼈던 그날도 없었을겁니다.

제 오늘은 말씀드리지요, 그날 깨어진 얼음판에서 있었던 일...》

방불히 떠올랐다. 얼어붙은 강가, 울며 오던 철성이, 어머니의 묻는 말에 파랗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않던 아들의 모습...

철성이가 중학교 4학년 겨울방학때 있던 일이다.

집의 돼지우리에서 두엄을 채내던 영옥은 양수장근처의 강의 얼음판이 깨지면서 스케트를 타던 아이들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갔다.

한시간전에 철성이가 광혁이와 함께 스케트를 가지고 그쪽으로 나갔던것이다.

양수장근처의 강은 폭도 넓지만 샘물이 흘러들어 군데군데 잘 얼지 않는 깊은 곳이 있었다.

속이 한줌만 해서서 강기슭에 이른 영옥은 한쪽 어깨에 스케트를 메고 풀이 죽어 터벅터벅 걸어오는 철성이를 만났다. 철성이가 입고있는 체육복은 별로 물에 젖지 않았었다. 영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무사했구나. 그런데 광혁인 어디에 있니?》

철성의 어깨에 데롱거리는 두개의 스케트를 본 영옥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찌르르해났다. 그래서 다우쳐물었다. 그러나 철성은 울먹울먹하다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다.

영옥은 황황히 얼음판쪽으로 달려가 물에 빠진 아이들을 광혁이가 구원했으며 광혁이는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입을 모아 영옥에게 말했다.

《철성형님은 비겁해요. 달아났거든요, 씨—》

《광혁형님이 우리 동무들을 구원해줬어요.》

그 말에 영옥이 쥐구멍을 찾고싶은 심정으로 황황히 돌아오는데 마을어구에서 식료공장의 백

아바이가 시카스르듯 그에게 한마디 했다.

《임잔 안방에 들어박혀 시라소닐 키우고있구만.》

그 말에 껍하여 아바이를 마주보았지만 영옥은 인츰 눈길을 떨구지 않을수 없었다. …

《…어머니! 그날 저는 어른들을 찾아 부리나케 뛰었습니다.

〈애들이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목터지게 웨치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동갑이인 광혁이는 그 차디 찬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광혁이는 온 학교에 영웅처럼 떠받들렸지만 전 비겁쟁이로 동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광혁이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생활까지 버리고 이 아들을 유족하게 키웠지만 정신은 나밖에 모르는 빈곤자로 키웠다는걸 그래, 정녕 몰랐단말입니까?…》

《철성아!》

영옥은 끝내 소리내어 울음을 터쳤다. 아들의 절규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과 회오의 나락으로 떠밀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였다.

4

《여보!》

영옥은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에 자기로 돌아올수 있었다.

《철성이가 왔다면서?》

서둘러 방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눈길이 사방을 허둥대다 영옥의 얼굴에 묻는듯 와뻐었다.

《그 앤 갔어요.》

《가다니?》

《떠났어요, 이 편지만 남기고…》

영옥은 울먹이며 철성의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급히 편지구절을 따라 읽어가던 남편의 얼굴빛이 점점 심중해지기 시작하였다.

영옥이도 함께 편지를 읽으며 구절구절 불러오는 그날의 광경을 떠올렸다.

《…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광혁이와 나, 우리 동무들이 인민군대로 떠나오던 날 역구내에서 겪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영옥은 그때 남편과 함께 철성을 내려주러

역으로 나가면서 광혁의 몫까지 준비했다.

광혁이 아버지는 618 건설돌격대 지휘관으로 삼지연지구에 나가있는데다 어머니인 미옥은 소금접수때문에 제염소에 나갔다는데 그날 온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아직 도착하지 못했던것이였다.

광혁이가 측은했고 공장일밖에 모르는 미옥이가 야속했다.

하지만 역에 당도한 영옥은 뜻밖의 광경에 부닥쳤다. 의기소침해서 한쪽구석에 있을줄 알았던 광혁이가 식료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떠받들리고 에워싸여 목마를 타고 나오는것이 아닌가. 종업원들은 꽃목걸이도 걸어주고 꽃보라를 뿌려주면서 광혁을 열광적으로 축하해주었다. 더우기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광혁이를 목마태운 공장지배인 조원택이였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가 낳은 아홉번째 영웅이였다. 철성이와 광혁이는 어린시절 지배인을 무척 따랐다. 지배인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하며 따르는 그 애들을 공장구내에서 만나면 곧잘 목마태워주곤 하였다.

지배인이 광혁이를 군의 책임일군에게 소개하자 《오, 네가 미옥동무의 아들이냐? 너의 부모들은 참 훌륭한분들이다.》 하고 책임일군까지 광혁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역구내는 온통 광혁이판인것 같았다. 더우기나 열차가 떠나기 직전에 미옥이까지 도착하여 광혁이는 물론이고 식료공장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철성이와 광혁이는 조원택지배인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며 힘차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지배인동지! 우리 학교의 열번째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날에 받아안은 감정의 오묘함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영옥은 착잡해지는 심경을 누를수가 없다.

《…저는 그때 달리는 열차에서 두 어머니의 엇갈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심리적인 타격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내가 광혁이였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이 광경에 처했던 어머니이고보면 결심을 내리실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 다시 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런데…

지난해 텔레비존으로 〈병사의 고향소식〉 편집물이 방영될 때, 2 중 3 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어머니의 식료공장이 소개될 때 제가 얼마나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광혁의 어머니는 비쳐졌지만 어머니는, 종내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영옥은 이마를 싸쥐었다.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던 영옥은 잔등에 묵직한 남편의 손길을 느꼈다.

《그러지 마오, 여보! 내가 잘못했소. 그때 내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놓지 않았으면 오늘 당신이 아들에게서 이런 욕을 당하지 않는건데… 내 탓이요, 자기밖에 모른 내 탓…》

지금껏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침중한 목소리였다.

영옥은 얼굴을 들었다. 남편을 바라보니 자신에 대한 그지없는 타매와 혐오의 감정이 그의 얼굴에 진하게 비껴있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여보! 내 난생처음 이런 감정을 느끼오. 아들에게 정말 부끄럽구만. 여보, 이제라도 공장에 나가오. 정말 미안하오.》

영옥은 그만해야 자신을 더 주체할수 없었다. 일어나 황황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5

《어머니! 제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표창휴가를 와보니 어머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더군요. 여전히 자기 집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

광혁의 어머니의 초청으로 광혁이네 집에 갔던 그날이 생각나시겠지요? 전 그날 더는 참을수 없었습니다. 더이상 집에 한가하게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왔습니다.》

철성의 목소리는 계속 영옥의 마음속에서 메아리마냥 울리고있었다.

영옥은 자기의 걸음이 어느쪽으로 놓이는지 의식 못한채 황황히 밤길을 걸어나왔다.

문득 멈춰서보니 뜻밖에도 불빛이 환한 식료공장정문앞이었다.

밤교대생산의 기계동음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래, 철성아! 나도 그날이 생생하다.)

…그날은 영옥의 한생에서 가장기쁜 날중의 하루였다.

평시에 김미옥이와 마주치는것조차 꺼리던 영옥은 아들을 데리고오라는 미옥의 청에 기꺼이 응했다. 명절날처럼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경대앞에서 옷맵시를 보며 연한 화장도 했다.

미옥은 그의 인생에서 한주로를 달리는 경쟁자

나 같다고 영옥은 생각해왔다. 영옥이가 공장을 그만둔 다음부터 주로는 달라졌지만 말없는 경쟁은 계속되었다.

영옥은 자기의 한가정을 잘 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내세워야한다는 범속한 생각으로 달리였다면 미옥은 것처럼 어렵고 힘겨운 나날에도 변함없이 공장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그 나날에 미옥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선군시대 공로자로까지 되어 여러차례 중앙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참가하러 떠나갈때면 영옥은 꽃다발을 흔들며 환송해주는 군중속에 있었다.

고난을 역척같이 이겨낸 식료공장녀인들이 생산한 기초식품들과 갖가지 당과류들을 공급받을때마다 영옥은 량심이 저리어 상점에 선뜻 갈수 없었다.

그렇다고 매번 남의 손을 빌릴수도 없어 얼굴에 수건을 꼭 눌러쓰고 남들이 볼세라 식료품을 한구럭지 사가지고 황황히 돌아오던 어느날 영옥은 공교롭게도 조원택지배인과 부딪쳤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생각에 골몰하는 지배인은 자기 불찰로 길바닥에 떨어진 과자봉지를 황급히 집어주다가 영옥을 알아보자 반가운 웃음을 띄웠다.

《아, 영옥동무구만.》

두사람은 그루를 박은듯 움직이지 못했다.

영옥은 마치 남의것을 훔쳐가다가 들킨것처럼 머리를 꼭 숙이고 진땀만 빠질빠질 흘리였다. 공장이 어려울 때 도망친 주제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부르며 우리가 생산한 이 식료품들을 타갈 자격이 있는가고 지배인이 비웃는것만 같았다.

《영옥동무, 지금생활이 재미있소?》

침묵을 깨며 조원택이 조용히 묻는 말이였다.

영옥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지배인이 어서 피해 주기만을 바랐다.

재미있는가고?… 두 아들을 군대로 떠나보낸 뒤로는 때없이 찾아오는 적막감과 함께 이악하게 공장을 꾸려나가는 동무들의 활기가 부럽기도 한 그였다.

《영옥동무! 사람은 언젠가는 꼭 뒤를 돌아볼 때가 있는 법이요. 내 보기엔 그런 때가 지금 동무에게 온것 같소.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인간의 행복이란 한가정에만 있는게 아니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떼땀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수 있소. 철성이기도 아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싶어할거

요.

난 동무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소.
동무야 실력있는 발효기사가 아니요.》

지배인은 떠나갔으나 영옥은 점도록 서있었다.

진정이 담긴 지배인의 말은 조용한 수면우에 던져진 돌맹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영옥의 작은 세계를 삼켜버리려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솔직히 영옥은 미옥이가 부러웠다. 그러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한가닥의 자체위안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쏟아붓는다는 것이었다.

자식들만 성공한다면 자기의 희생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감수할수 있다고 자신을 위안해왔다. 중학교때까지 철성이형제를 내세우려고 온갖 열성을 다 발휘했지만 광혁이네 형제를 앞서지 못했다. 그것이 늘 가슴에 걸려있던 영옥이로서는 수많은 학교동창생들중에서 철성이가 제일먼저 표창휴가를 왔다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가슴퍼고 미옥이네 집으로 갈수 있었다.

미옥이네 집은 읍에서도 위치가 제일 좋은 강 옆에 일떠선 다층살림집이었다.

《우리 철성이가 왔구나!》

음식준비를 하던 미옥은 원래 노숙이 없는 성격인데도 제 아들이나 온것처럼 철성이를 부둥켜 안고 맞아들였다.

두 녀인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셈이었다.

애모쁜 정이 가득한 눈길로 영옥을 바라보며 미옥이 다시 말했다.

《영옥아, 기쁘겠구나. 철성이가 표창휴가온걸 축하한다.》

미옥은 진정으로 영옥의 기쁨을 나누는것 같았다. 방안으로 손을 잡아끌고 평소의 그답지 않게 수다스럽게 영옥이며 철성이와 말을 하였다.

미옥은 부엌에까지 따라나온 철성이와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차리었다.

영옥은 녀성본능의 관심을 가지고 처음 와보는 집의 부엌이며 전실, 아래웃방과 손님방까지 세심히 돌아보았다.

집위치와 구조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들어와보니 무척 부러웠다. 생각했던것보다 집은 품위있게 꾸려졌던것이다. 대동강타일공장에서 생산한 타일들을 조화롭게 붙인 세면장이며 부엌까지 돌아본 영옥은 눈처럼 흰 경질그릇들이 짝 차있는 찬장과 그뿐한 세간살이들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생산부원동지가 공장일에만 열성인줄 알았는데 가정살림도 소문없이 잘 꾸렸는데요.》

《뭘 내 손으로 해놓은것은 별로 없어. 집은 공

장에서 혁신자라고 배정해주고 살림살이도구까지 다 갖추어서 꾸려주었다.》

영옥은 공장에서 매해 다층살림집을 한동씩 지어서 종업원들에게 배당해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지로 자기 동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것을 보니 생각되는바가 정말 컸다.

영옥이와 아들 철성은 미옥이네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옥은 문득 미옥에게 물었다.

《광혁이에게선 편지가 자주 오니?》

영옥은 철성이만 표창휴가온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던터라 이렇게 물었다.

《응.》

미옥은 외마디대답을 하더니 시선을 벽에 붙어있는 가족사진들에 가져갔다. 액틀속의 군복입은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옥의 큰 눈에 그리움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날 영옥이네 모자를 아래워주며 미옥은 영옥에게 말했다.

《영옥이,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대답하게 결심하고 공장에 나와. 다들 널 기다려.》

...

영옥은 점도록 식료공장앞에 서있었다.

《...어머니! 그날 군내 인민들을 위하여 한몫하는 광혁이 어머니를 만나보면서 받은 충동도 컸지만 제가 더욱 놀란것은 다음날이었습니다.

글쎄 야영을 갔다온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광혁이가 벌써 표창휴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한달전에 표창휴가를 받은 광혁이는 고향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찾아주셨던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갔다는것이였습니다.

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번 된타격을 받은 심정이였습니다.

광혁이는 여전히 나보다 앞서달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떠나올적에 어머니보고 우리가 늦은 걸음이라고 했던겁니다.

어머니! 전 무척 보고싶습니다. 온 얼굴에 함뻍 웃음을 담고 공장일로 바빠 뛰고 또 뛰시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입니다.

어머니,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영옥은 표창휴가온 철성이로 하여 한껏 들떠있는자기의 기쁨이 깨여질까봐 광혁의 소식은 애써 감추고 자기들을 위해주던 미옥의 웅심깊은 마음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낮간지러운 심정에 화로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온몸이 달아올랐다.

깊은 물은 찰랑거리지 않는다. 여울물같은 자신의 경망과 판관이 다른 미옥이네 모자의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여졌다.

《...어머니, 늦은감은 있지만 저도 광혁이처럼 남은 휴가를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바치렵니다.

어머니의 영예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철성의 편지의 마지막여운은 오래도록 영옥의 마음을 흔들어주고있었다.

식료공장의 기계동음소리가 그지없이 정답게 들려왔다. 어서 뛰어들라고, 옛모습과 그 정열, 그 활기를 어서 되찾으라고 막 영옥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것 같았다.

거세찬 동음과 함께 생활의 활력이 슬며시 온

몸에 스며들고있었다.

(그래, 어머니도 가마.

네가 이 엄마를 눈앞에 두고도 찾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강성대국건설의 격류속에 어머니도 뛰어들련다.)

영옥은 공장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공장의 불빛과 동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나 마음은 생활속으로, 생활속으로 가까이 가고있었다.

한달후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지원물자를 실은 차에는 조원택지배인과 김미옥을 비롯한 식료공장종업원들속에 박영옥의 모습도 있었다.

우리 도시 방직동

김명철

우리 사는 도시 압록강기슭에는
방직동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단발머리시절부터 실을 뽑고 천을 짠
천리마의 기수들이 여기서 살아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
종업원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젊었을적 그 정신 그 열정만은
일터에 그대로 두고 사는 어머니들

아담하게 꾸린 방직공장합숙에
새로 들어온 처녀들이 있다면
찾아와요 도와줄게 없느냐고
세간난 친딸보다 더 살뜰히

공장구내의 한그루 버드나무
그밑에 서면 이야기해주어요
무더운 철 공장을 찾아주신 수령님을
이 나무아래밖에 모실 곳이 없었다고

새해의 첫새벽
우리 출근대렬이 굽이쳐흐를 때
살림집로대에 나선 어머니들
꽃보라 뿌려주며 축하해주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우리
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나붙으면

꽃다발을 들고 일터로 찾아와요
다기대운동때의 노래도 불러줘요

우리는 알아요 이 어머니들
가슴속에 불타는 그 진정이 무엇인지
방직공장처녀들 우리에게서
그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인민을 더 잘 입히시려
이 공장에 그리도 자주 오시는 장군님
폭포쳐내리는 천필을 보시면
제일 기뻐하시기에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은정에 보답하자고
살림을 꾸려도 공장결에 자리잡고
늘 마음속으로 천을 짜는 어머니들

백두밀영의 재봉대처럼
우리공장이 돌아가기를
천리마시대의 로력혁신자들처럼
우리 걸음 힘차기를 바라고있나니

아, 우리 도시 방직동구역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이예요
우리는 주공전선의 전초병이에요

가을의 체험과 가을의 서정

-시초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를 두고-

김봉민

새해의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눈앞에 부강하고 행복할 강성대국의 그날이 가까이 보이고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지켜가는 농업근로자들을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이 아름다운 강성대국의 앞날을 환히 펼쳐주신 우리의 선군대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시초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류명호, 최주원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9(2010)년 2호〕에서 풍요하고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가을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 시대적서정을 의의있게 노래함으로써 우에서 제기한 물음에 뜻깊은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인민의 무릉도원, 강성대국의 리상촌으로 꾸려가고있다는 드팀없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초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보라!》에서는 오늘 선군시대에 차넘치는 이런 시대적확신을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사색속에서 자연의 계절인 가을에 대한 서정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시초안의 작품들이 모두 종자가 독특하고 기쁨의 눈물속에, 웃음속에 노래되는 감미로운 서정을 펼쳐고있는것으로 하여 강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시초에서 우선 작품들이 모두 독특한 종자를 골라잡은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먼저 시 《미곡벌전망대에서》에서는 독특한 발견으로 작품의 사상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맞이한 미곡벌의 풍요한 가을의 의미를 뜻있게 풀이하고있다. 작품의 사상적핵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오늘의 미곡벌의 풍요한 가을이 곧 강성대국의 그날에 펼쳐질 우리 농촌들의 현실이라는것

이다.

작품에서는 어쩌면 비약된듯도싶은 이 사상적주장을 형상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증명해보이면서 작품의 서정성을 한껏 높이고있다.

시에서는 《수령님 한평생 가꿔오신 이 벌을/온 나라 농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려/천리방선전호를 밝던 그 자옥자옥을/ 여기 논두렁길에 찍으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을 형상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가을에서 시작되었고 가을로 하여 승화되는 시대적주장을 토로하고있다.

...

눈오는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오시고

여기에선 전선길에서 무르익히신

농사법 그 하나하나

혁명적군인정신, 선군시대의 일본새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

강성대국의 리상촌을 이 땅에 펼쳐시려

우리 장군님 온갖 로고를 다 바쳐

선군으로 떠올리신 이 가을

선군의 해빛으로 무르익히신

미곡벌의 풍년가을이여!

...

이 땅의 풍년가을을 안아오시기 위해 불멸의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목매여 진심의 서정을 터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잘 엿보인다.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형상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깊은 사색과 체험으로 일관된 서정을 펼쳐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이렇게 체험된 서정을 인민의 행복이 무르익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선경이 펼쳐진 미곡벌은 선군10경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에 대한 체험으로 고조시키고있다. 하여 우리는 서정적주인공이 《나날이 좋아지는 이 땅에/ 나날이

홍해가는이 땅에/ 나날이 들어가는 선군9경 선군 10경...》이라고 노래할 때 이 땅의 선군10경뿐 아닌 선군만경을 펼쳐가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그려보는 체험의 깊이에 크게 공감한다. 아울러 서정적주인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풍요하고 잘사는 나라, 강성대국의 가을을 여기서 본다고 웨칠 때 그 사상적주장에 조금도 무리가 없음을 기쁘게 받아안게 된다.

아득한 태고적부터도 이 땅에 춘하추동 사계절은 있었고 땅이 있으면 어디서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다. 그러나 자연의 땅, 자연의 계절은 한갓 자연의 조화이고 변화일뿐이다. 이러한 땅과 계절이 오늘은 인민사랑의 큰 의미를 지닌 땅과 계절로 되었으니 그 땅을 가꾸고 그 계절을 안아 오시는 아버지장군님은 우리의 선군태양이신 것이다. 또 그이가 가꾸어가시는 계절, 그이가 바라고 리상하시는 가을은 바로 강성대국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가을이기에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이런 시대적진리를 미곡벌의 가을풍경이 펼쳐진 《미곡벌전망대에서》 그토록 확신성있게 안아보는 것이다.

시 《가을바람아》에서와 시 《무계에 대한 단상》에서도 독특한 종자의 발견으로 작품형상을 이채롭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시들에서는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속에서 독특한 종자를 찾아내어 작품의 사상을 시대감이 나면서도 서정적으로 매우 여운있게 펼치고있다.

시 《가을바람아》에서 하나의 자연현상에서도 시대의 정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체험세계를 감득할수 있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풍요한 가을날에 낱알 향기를 흐뭇하게 싣고 부는 바람을 두고 그것은 전선길의 눈보라에서 시작된 바람이고 인민의 밥상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사랑을 싣고 부는 사랑의 바람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오는 계절에 앞서, 안겨드는 기쁨에 앞서 이 계절, 이 기쁨을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목메이게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진심이 감동깊게 어려온다. 그러면서 시의 종자를 독특하게 찾아쥐고 그것으로 시대감이 나는 시형상을 펼친 시적묘기의 한 부분을 느낀다.

시 《무계에 대한 단상》에서도 역시 독특한 종자와 사상으로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의의있게 형상하고 있다.

작품은 시초안의 어떤 다른 시들에서보다 철학적사색이 더 짙게 느껴지는 형상으로 작품의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

온 한해 들에서 눈비를 맞으며
사계절 장화를 벗을새 없는
농민들의 그 걸음을 다 헤아려보시는듯
장화가 좀 무겁다고
더 가볍게 만들어주자 이르는는 그이

...

생활의 어느 한순간에조차 작은 그늘이 비껴세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작은 불편마저 다 헤아려보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위인적형상이 보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철학적인 서정에 실려 의의있게 노래되고있다. 그리하여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로고에 받들려 장화는 가벼워졌고 인민의 행복은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사상적알맹이가 시대적건지에서 아주 재치있게 밝혀지고있는것이다.

작은 생활세부이지만 거기서 시대의 본질을 찾고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탐구하는 시적체험의 깊이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본다.

시초에서는 다음으로 독특한 체험속에서 찾아낸 시적표현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의 여운을 남기고있다.

시 《벼단을 안고》에서 독특한 체험이 비긴 좋은 시적표현을 찾아보게 된다.

...

낱알은 햇빛으로만 익는게 아님을
낱알은 가을에만 영그는게 아님을
풍요한 대지여, 네가 말해다오
스치는 바람아, 네가 속삭여다오

씨뿌리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김매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종자도 비료도 다 보내주시며
온 한해 마음쓰신 장군님
이 벌에 부여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이
일년열두달 익힌 가을이어서
알알이 그저는 셀수 없어

아름아름 그날은 안을수 없나니

...

깊은 체험속에서 시적표현이 매우 생동하고 뜻이 깊게 노래되고있다.

씨뿌리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김매는 계절에는 계절에 앞서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종자와 비료가 풍요한 이 땅을 가꾸어준 햇빛으로, 자양분으로 된 가을의 기쁨, 그것은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안겨준 행복이었고 사랑이었다.

하기에 서정적주인공은 낱알향기 물씬 풍기는 벼단을 안고 쌀알같은 눈물을 정히 떨구며 그 벼단에서 장군님의 로고를 뜨겁게 안아본다. 요란스러운 수식사나 감탄사는 없어도 진심의 체험이 깃든 표현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릴수 있는것이다.

시 《살구동네에 오신 날》 역시 생동하고 뜻이 깊은 표현들을 적극 활용하여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고매한 품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우리 당 력사에 뜻깊게 새겨진 날인 10월 8일 미곡벌의 선경마을에 들리시고 친부모가 되시여 새로 입사한 문화주택의 살림형편까지 알아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정서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온 나라가, 전체 군대와 인민이 끝없는 기쁨에 잠겨있는 그날 그이께서는 농장의 한 평범한 세포비서의 집에 계셨다고 하면서 너무도 자애로우시고 너무도 소박하신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가을의 진한 정서속에서 의미심장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시 《미곡벌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보다 힘있고 격동적이며 시대의 맹세가 비낀 시적표현들을 많이 찾아섬으로써 시초의 총적사상을 뚜렷이 밝히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오, 가을앞엔 또 가을
미곡벌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의 가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2012년 그날에 있다

...

표현이 매우 힘있고 기백있다.

우리가 맞이한 오늘의 미곡벌 풍년가을은 강성대국의 그날에까지 이어져야 할 가을이기에 끝나지 않았으며 주체101(2012)년까지 그리고 련이어 해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의 표현은 참 뜻깊은 표현이다. 너무도 자명한 사실 같지만 그것을 자기나름대로 시적인 감각속에서, 시대적성격을 담아 뜻깊게 밝혀낸 표현은 그대로 미곡벌 농민들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지는 맹세이고 의지인것이다. 여기에 미곡벌에 또다시 새겨지는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벌에서 마음을 심고 뜻을 가꾸어가는 농장원들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안받침되면서 깊이 음미해볼만 한 철학적인 서정표현들이 펼쳐지고있다.

시에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뜻깊은 표현들과 시어들로 작품의 사상정서적주장을 의의있게 보여주고있다.

...

쌀! 쌀을 위해
낮과 밤이 있는 땅
쌀! 더 많은 쌀을 위해
심장을 내댄 미곡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돌진하는 최전선

...

매 표현들이 시대정신을 그대로 담고있어 매우 기백있다. 시어 하나하나도 힘있는 기백에 어울리게 조화롭게 리용되고있다.

이렇게 시대적정서가 나래치고 시대적기백이 맥박치며 시대적흐름이 느껴지는 표현들이 시의 서정적형상에 의도적으로 효과있게 리용되어 주체101(2012)년을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농장원들의 불타는 맹세가 뜨겁게 노래되고있다. 하나의 표현, 하나의 시어에도 깊은 사색을 고이고 거기서 심장의 울림을 받은 정서적알맹이들을 끄집어내는 시적사색은 작품이 이룩한 큰 성과의 하나이다.

시초에서는 《분배장의 담시》와 같은 담시를 특색있게 형상하여 작품의 총적사상을 한결 더 여운있게 밝히고있다.

특히 담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주 뜻깊으면서도 시초전반형상의 질을 높이는데서 기쁨진 역할을 하고있다.

작품은 농장의 명절과도 같은 분배날에 분배받는 기쁨보다 이 기쁨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로고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농민들의 진심이 소박하게 체험되어 정서있게 울리고있다. 작품에 특이한 내용에 대한 장황한 서술은 없다. 그러나 분배명부에 우리 장군님은 왜 안계시는가고 안타까이 말하는 한 농장원의 형상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농사일에 마음을 많이 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걸음을 많이도 걸으신분이 없다는것이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노래되고있다.

이러한것을 통하여 오늘 미곡벌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의 가을은 앞으로 꼭 풍요해질것이라는것을 뜻깊게 확증하고있다.

시초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가지 형상적특징들과 다양한 양상의 시작품들을 통하여 가을의 정

서를 시대적건지에서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제기하였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장군님 가꿔주신 가을, 장군님 펼쳐주신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그대로 현실로 더더욱 아름답게 꽃피가기에 인민은 끝없는 고마움의 눈물,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흘린다고.

소박하고 평범한 시어속에서 독특한 종자를 골라잡고 기쁨의 눈물과 웃음속에서 시대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은 사상예술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우리 시인들은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새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딸의 마음

리정녀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 머리에 흰서리 내리였어도
언제나 마음속엔
처녀시절 직기가 돌고있어라

내 오늘 기뻐서 찾아왔다
어제날 내 순회길 일터에
오늘은 데트론인견천직장이 조업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희한하구나 놀랍기만 하구나
CNC화된 방직기사이를 누비는
직포공 너희들의 모습은
무대우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인듯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기대상태며 실적을 알려주는
갓가지 신호불빛들은
황홀한 무대의 조명인듯

온 나라 경사속에 조업하더니
오늘 새해의 첫아침 첫 천을 짤다지
장하다 인민들의 옷감천 짜는 너희들은
한가정의 딸만이 아닌 나라의 딸

오리오리 천만갈래 데트론실을 물고
가락맞게 울리는 기대소리는
올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소리같구나

놀랍구나 너희들 짜낸 천필들
아름벌려 재여보고싶다만
내 눈앞엔 보인다 천필이 닿을
강성대국 그날의 봄언덕이

정말 기특하다 나의 딸들아
자기들이 짠 천필을 안고
아버지장군님께
보여드리려 달려가고싶다는
애국충정의 그 마음

보여드리거라 강성대국의 그 봄날
승리의 광장의 단상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 우러러
목청껏 만세부르며 보고를 드리거라

—아버지장군님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의 비단 행복의 비단
인민들이 좋아하는 데트론인견옷감입니다
인민들의 옷감은 저희들이 다 맡겠습니다



박춘학

하늘을 치받으며 웅건히 솟아 연연히 가지쳐내린 두름봉을 굽이굽이 안고 돈 길을 밟아나온 승용차가 포장한 기본도로에 나서자 벼이삭 물결치는 무연한 벌을 꿰지르며 나눈 듯 쾌속으로 달린다. 신문기자 오영민이 ○○탄광 지배인 박유빈의 사업경험을 취재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그의 몸은 차에 실려 멀리 앞으로 내닫건만 마음은 떠나온 그곳을 뜨지 못하고있었다. 거기서 본 탄광의 이모저모가 눈에 삼삼하고 지배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귀에 쟁쟁했던 것이다.

머칠전에 그는 특색있고 심도깊은 기사를 써낼 생각을 안고 그곳으로 갔었다. 실한 몸에 나이지속해보이는 당비서가 서글서글한 눈빛으로 맞아주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가 정보수에 쓸 중요설비를 해결해보려고 떠났습니다. 빨라서 3~4일은 걸릴텐데...》

《일없습니다. 그동안 탄광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영민은 이번 일이 잘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당비서방에서 나왔다. 다음날부터 그는 작업복에 안전모차림으로 갯에 들어가 탄부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채탄, 굴진설비들의 가동실태를 알아보고 탄생산실적도 가늠해보았다.

석탄공업부문의 한 관리국에서 사업하다가 탄광에 내려와 부갱장을 하던 유빈이 지배인으로 되어 몇해어간에 새로 꾸렸다는 탄부합숙이며 문화후생시설들도 돌아보았다. 이슬비내리는 곳은날 탄광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공급기지들에도 다녀왔다.

그가 돌아본것들에는 모두 시대적미감과 실리가 담보되어있었고 지휘관의 통 큰 구상과 짜이

고 간진 일숨씨를 엿볼수 있었다. 더우기 감동을 주는것은 지난 시기 탄생산에서 뒤꼬리를 따르던 탄광이 유빈이 지배인으로 되어 6년째 앞서나가고있는것이였다.

탄부들은 불임성이 있고 소탈한 기사를 구면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해주고 그의 취재를 성심껏 도와나섰다.

영민이 갯에 들어갔다가 짧은 채탄공들과 함께 합숙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검푸른 하늘에 별들이 도글도글 영글고 짙은 어둠속에서 탄차들을 끌며 갯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전차머리우에서 병긱병긱 센광이 날린다.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탄전의 밤을 밝히는 저푸른 불빛, 그것은 하늘의 별들에 비할바없이 활기롭고 생기에 넘쳐 아름다와보였다. 인간의 숭고한 정신, 창조와 혁신의 열망으로 빛나는 불빛이였다. ...

결에서 맑은 목소리가 따라오며 영민의 명상을 깨치였다.

《기자선생님, 우리 지배인동지를 신문에 내시렵니까?》

《좀더 알아보고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말도 참고할수 있나요?》

《물론... 들어봅시다.》

그 목소리의 임자는 생각을 굴리는듯 묵묵히 견더니 얼마전에 있는 일을 들려주는것이였다.

...채탄공들이 한창 작업을 하고나서 막장휴식장에 놓은 나무걸상들에 걸터앉아쉬는 참이였다. 그들속에 끼여앉은 유빈이 목에 건 수건을 당겨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있었다.

그때 연희색작업복을 걸치고 감빛안전모를 쓴 영양제식당 책임자아주머니와 연청색잠바를 입고 파란 안전모를 쓴 처녀가 간식을 담은 비닐버치

를 맞잡고 다른 손에 늪바게뜨를 하나씩 들고 들어와 내려놓았다.

책임자아주머니가 바게뜨에서 찢은 염소젖을 국자로 떠내어 매 사람에게 부어주며 《우리 탄광 목장에서 가져온 염소젖인데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어요.》

흥들이 나서 한마디씩 응수했다.

한창 그러는데 책임자아주머니가 함께 온 처녀의 팔을 슬쩍 건드리었다.

《왜 멍했나? 이리 내려구.》

처녀가 얼굴을 붉히는데 아주머니가 그의 옷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들고 총각채탄공한테 다가섰다.

《자, 받으라구. 일전에 국필이가 우리 식당에 왔다 떨구고간 장갑이야. 영금이가 장갑없이 어떻게 일할까 걱정하면서 가져다주려고 따라왔대네.》 그 말에 중대의 좌상인 덕칠아바이가 곁에 앉은 국필이의 옆구리를 꼭 짚었다.

《아이구 아바이, 왜 이러십니까? 맞구멍 나겠어요.》

《왜냐구? 엉큼한 녀석. 이번 전투기간에 짬을 낼것 같지 못하니까 장갑을 핑계삼아 막장에 들어와 만나자구 그랬지?》

《글쎄 오늘따라 영금동무가 들어온다 했더니...》

다른 절절한 목소리가 참견들자 덕칠아바이가 덧걸이했다.

《그러면 어쩔나? 다 좋은 일일세. 탄두 캐구, 사랑두 캐구.》

《으하— 사랑두 캔대?》

젊은 축들이 웃어들 대는데 아바이가 꺼칠한 손바닥으로 턱을 뺨 쓸며 눈을 치떴다.

《왜들 웃어? 내 말을 들어보라구. 국필이가 탄을 많이 캐서 탄광 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나붙으니 탄광체네들이 국필일 눈여겨보질 않나? 노래에도 있어, 뭘했더라? 그래 〈굴진공 그 총각 영웅광부 되는 날 웃음가득 노래가득 사랑도 안겨주자...〉 저기 룡석이서건 웃지만 말구 탄을 잘 캐보라구, 싫다고 해두 처녀들이 따라와. 그러니 탄부는 탄두 캐구 사랑두 캐야하는거야.》

《야참, 신통한 소리예요.》

모두 흥에 떴는데 처녀가 버치에 씌운 흰보자기기를 벗기자 달큰한 삶은 풋강냉이냄새에 남새냄새가 물씬 풍기어 구미를 당겼다.

저마끔 강냉이나 빵을 집어들어 씹으며 염소젖을 후— 후— 불며 마시었다.

유빈이도 한식기 받아놓고 앉아 들썩하니 웃어 대고 맛나게 먹는 그들을 흐뭇이 바라보는데 저쪽에서 《지배인동지, 재미나는 말이나 해주십시오.》 하는 여무진 목소리가 건너왔다.

뜻밖의 청인지라 유빈이 《하— 그게 뭐 걸웃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거라구 척척 꺼낼가.》하고 말하는데 《들려주십시오.》하고 줄라들 땀다.

《듣고싶단 말이지?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곱게 보고 기뻐하는걸 말해줄가?》

《찬성입니다.》

모두 호기심이 동해서 숨을 죽이며 귀를 세우는데 유빈이 시치미를 뚝 따고 말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곱게 보고 기뻐하는건 저 식당책임자와 영금이가 음식그릇을 들고 땀을 흘리며 막장에 들어오는 모습이요.》

《애개개, 지배인동지두. 가슴 놀랍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에 책임자아주머니가 덴갑을 했다. 그 모양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책임자아주머니와 처녀는 덩달아 웃긴 했지만 느닷없이 가슴에 젖어드는것이 있어 물기어린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탄광뒤산골짜기에 염소목장을 꾸리고 풀밭을 조성하느라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애를 쓰고 영양제식당 원자재보장에 늘 관심하는 그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보잘것 없는 수고를 그리도 칭찬해주니 아주머니는 끝내 머리수건끝으로 눈굽을 찍었다.

채탄공들도 웃음을 거두고 생각에 잠기었다. 지배인의 우스개소리에서 탄부들을 위하는 그의 사심없고 뜨거운 정을 느꼈던것이다. 한 제대군인채탄공이 자기 뭇으로 받아놓았던 염소젖식기를 들고 유빈에게 다가섰다.

《지배인동지,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 여기 내것도 있는데.》

《병사의 진정입니다.》

《그렇다?— 그럼 내것과 바꾸어 마시기요.》

《중습니다.》

그들은 식기를 바꾸어 들었다. 유정스러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들에 환희의 빛이 넘치고있었다.

유빈이 쭈욱 들이키고나서 《어— 병사의 염소젖이 더 달고 구수하구만.》하며 그 채탄공의 팔소매를 잡아 자기곁에 앉히었다.

《그런데 동무는 왜 휴가를 미루었나?》

《전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전엔 아무데도 안 가겠습니다.》

유빈은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를 유심히 살피었다.

《목표를 높이 세우는건 좋은 일ियो. 하지만 그 목표를 돌파하자면 휴식도 잘하면서 전투를 벌려야 하오.

건강한 몸으로 그 목표를 돌파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알았습니다. 지배인동지랑 관심해주시는데 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 약속하기요.》

유빈이 좌중을 둘러보고 《동무들은 좀더 쉬오.》하며 자리를 이는데 채탄공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작업장으로 갔다. 채탄기 도는 소리가 막장이 메게 울리기 시작했다. ...

채탄공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영민은 생각이 깊어졌다.

지배인은 과연 어떤 일군이기에 탄부들이 그토록 속마음을 주며 따르는것일까... 영민은 지배인을 어서 만나보고싶었다.

영민이 이곳에 온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탄광외래자합숙에서 나와 본청사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는 그토록 바라는것을 금시안아볼듯 한 기분이다. 지배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것이다.

그가 본청사에 이르니 지배인실에서 월생산총화모임이 진행되고있었다. 유빈의 굵은 목소리가 복도에까지 울려나왔다.

《...우리는 작업탐사에 CT 탐사기술을 받아들여야 하오. 일부 사람들은 그 일을 꽤 해낼가 하며 머리를 가로젓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해내야 하오.

이것은 최첨단돌파와 CNC 화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탄광이 현대화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요.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절약하고 탄생산수준을 부쩍 높일수 있소.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소.

지휘부에서 유능한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꾸어주었는데 그들이 앞선 탄광에 가서 경험을 배워오고 과학원 지질학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도움을 받기 위한 사업을 왜 조직하지 않는가? 기술발전과장동무, 대답을 해보오.》

《대책안을 세웠는데 인츰 착수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굵프고 어설프오.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쪼개주고 하라고 다긋기만 하면 기술혁신이 일어나오?

내 그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본인들도 만나봤는데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이런저런 애로가 제기되고있소. 그런것을 제때에 알아서 반영해주면 이미 대책을 세웠을게 아니겠소. 애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안정되어 탐구에 열중하겠나 말ियो?》

《지배인동지, 명심하겠습니다.》

《고치시오. ... 여기 모인 지휘관들이 기술자들과 탄부들속에 들어가 진심을 나누고 애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면서 임무수행에 분발하도록 추동할 때 CT 탐사기술을 받아들여 탄을 많이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푹푹히들 알아야 하오.》

모임이 끝나자 일꾼들이 뿔뿔히 밖으로 나왔다.

하나같이 검은 제복차림이지만 표정은 각이해 보였다. 모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듯 1갱장은 주름잡힌 얼굴에 은근한 미소를 담았고 엄한 추궁을 들은듯 2갱장과 생산과장은 풀죽은 인상이다. 두툼한 설계도면철을 옆구리에 끼고 뒤따라 나오는 기사장은 모임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작업탐사에 CT 탐사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는듯 입술을 꼭 맞다물고 눈을 슴벅인다.

영민은 그들이 다 나오자 방으로 들어갔다. 자기 자리에 앉아 송수화기를 잡아들던 유빈이 채빛 잠바를 가쁜히 걸치고 얼굴이 멀썩한 젊은이를 의아히 쳐다보았다. 영민이 그에게 다가서며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제 ○○신문사 기자입니다.》하고 인사말을 건넰었다. 유빈이 빙긋 웃음을 보내며 마주 일어섰다.

《아, 왔다는 소리 들었소. 내 며칠간 자리를 뜨다보니... 게 좀 앓으시오.》

그는 손을 들어 창턱밑의 팔걸이의자를 가리키고 자기 자리에 도로 앉았다.

《지배인동지,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바쁘지 않은 지배인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만 찾아온 사람이야 만나야지.》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의 사업경험을 듣고싶습니다.》

유빈이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들어주기 힘든 청이군. 무슨 경험을 발표하라거나 그런 글을 적어내라면 질색인데.》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널리 소개하는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건 알지만 별로 경험이라게 없는데 내놓으라니 땀뻘노릇이 아니요? 차라리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겠소.》

《왜 없다고 하십니까? 성과가 이룩된 곳에는 좋은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며칠간 탄광 안팎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지배인동지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지배인은 기술자들과 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생산도 건설도 해제끼는 능숙하고 로련한 지휘관이라고요.》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에 유빈은 찌긋 미간을 모으며 입을 다시었다.

《허— 파찬이군. 설사 그렇다 한들 그게 무슨 신문에 낼 글감이 되겠소. 그렇게 하는거야 일군의 본분인데.》

영민이 넌지시 그를 건네보았다. 돌처럼 굳은 저 고집속에 탄부들을 위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뜨거운 정, 꺼질줄 모르는 사업열의가 넘치고있단 말인가?!

《지배인동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구려, 과장된것은 말끔히 빼고... 객관적으로 말이요.》

《물론 신문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군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경험으로 되자면 객관적반영자료도 필요하지만 보다는 성과의 요인을 똑바로 밝혀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지배인동지가 그런 작품으로 사업에서 성과를 올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떠미는지 그걸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십시오.》

파고드는 기자의 말에 유빈은 자못 신중해졌다.

《그렇다?! ... 듣고보니 그럴사하오. 그걸 바란다면 내가 펴 오래전에 뜻하지 않게 당한 일을 하나 들려주겠소.》

회억의 갈피를 번져보는듯 입술을 삐죽 빼물고 등근 눈을 꺾뻗이던 유빈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탄광지배인이 되기 전에 석탄공업부문의 한 관리국을 책임지고 일한적이 있소. 젊은 시절에 군대에 복무하고 제대되어 대학을 나와 탄광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현장기사, 부기사장, 기사장을 걸쳐 그 직급에 올랐소.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일했지. 관찰하는 기업소들의 실태가 환히 안겨오고 계획하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척척 진척되는것만 같았소.

하— 이거 이야기가 빗나가는것 같다.》

유빈은 말머리를 돌려 그때 뜻하지 않게 당했다는 그 일을 펼쳐보이기 시작하였다.

...한 부서의 부원이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빈은 그에게 따뜻하고 고무적인 말을 해주고싶어 그를 자기 사무실에 불렀다.

《말은 일을 성실히 하던 사람을 들여보내자니 섭섭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니 인젠 집에 들어가 편안히 쉬십시오.

앞으로 생활하는데서 애로될것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이 참고할것이라든지 지금껏 일해오는 과정에 가슴에 맺힌것이라도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십시오.》

다소곳이 앉아 듣고있던 부원이 머리를 들었다.

《하나 있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심드렁하니 대꾸하는 그의 표정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가시지 못하고있는듯 하였다. 그의 심경을 잘못 건드리는것 같아 유빈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무엇인지 알면 안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말에 부원이 유빈을 흘깃 결눈질해보고 석침하나 마디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 기간 일해오면서 기관책임자와 자주 마주앉아 사업토의랑 해보지 못하고 들어가는것이 서운합니다. 서로 먼데 있던것도 아니고 청사는 달라도 한구내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유빈은 부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천만뜻밖이었다. 좋은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을 하자던것이었는데 기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불러주지 못한것도 잘못이지만 만날 일이 있으면 동무가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지 않으면 부원이 기관책임자와 마주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째서요? 나는 찾아오는 사람을 홀시하거나 밀어낸적이 없고 다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그건 저도 압니다. 우리 일군들속에 믿고 찾아오는 사람을 홀시하거나 밀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만나줘야 할 사람을 만나주지 못해 사업에 후과를 미치는 경우가 있다

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그의 말에 유빈은 섬찝해났다. 일군이라면 누구나 납득하고 받아들일 충고이지만 그속에 자신과 얽힌 무슨 예리한 곡절이 스며있는것 같았던것이다. 보이지 않는 막대기에 이마를 맞는듯 머리속이 뻘근해났다.

한켠 노엽기도 했다.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년로보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난날 일해오는 과정에 섬섬한것이 있었다 해도 내색을 앓고 서로의 건강과 앞으로의 일이 잘되기를 고무하면서 기분 좋게 작별하곤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에도 떠오르지 않는 어떤것을 꺼들어 상대의 기분이 잡치게 하려는가?

유빈은 자신을 자제하며 나직이 물었다.

《동무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물음에 부원이 주먹을 입에 대고 헛기침을 하고나서 속에 품고있었던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원이 몇달전에 생산실태를 료해할 임무를 받고 관리국산하의 한 공장에 갔었다. 온 공장이 상반년도생산계획수행을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었다.

그가 조립직장 작업현장을 돌아보고 나오는데 한 사나이가 불쑥 다가섰다.

《부원동지, 오셨군요.》

전에 부원이 공장에 왔을 때 친숙해진 기술발전과의 짧은 기계기사였다.

《아— 오래간만이요. 그새 잘 있었소?》

《예, 그런데 그후 왜 이제야 내려오셨습니까? 기다렸는데...》

《그새 바쁜 일이 좀 있었소. 그때 연구과제로 하던 설계는 완성했소?》

《했습니다. 설계를 봐주시겠습니까?》

《봅시다.》

《그럼 저기 휴계실에 잠깐 앉아계십시오. 제껴 가져오겠습니다.》

기사는 급히 사라졌다가 설계도면뭉음을 들고 휴계실로 돌아왔다. 부원은 도면을 한장한장 간간히 훑어보았다. 도면에 반영된 기계설비는 작용원리가 명백하고 운동계통이 조화롭게 맞물려지고 능률이 높고 제작원가가 낮아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설계되어있었다.

결에 앉아 어떤 평가가 내릴가 하여 마음을 조이고있는 기사에게 부원이 물었다.

《심의공정을 걸쳤소?》

《예, 평가가 좋았지요. 이것을 생산에 받아들이

면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수준을 더 높일수있다는 것이 론증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도입하지 않소?》

부원이 흥분하여 묻는데 기사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맥폴린 소리를 했다.

《하— 그게 뭐 떡먹듯 쉬운 일입니까? 공장일군들은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행생산이 긴장하니 후에 보자며 미루곤 하지요.》

그럴수 있는가? 생산수준제고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것인데... 부원은 은근히 분이 치밀었다.

그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그 사실을 부서에 반영했다.

부장이 묵묵히 듣고나서 말했다.

《심중한 문제이니 다시 확인하고 우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그 기술혁신안이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된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이자면 지금의 생산공정을 얼마나 개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부원은 부장의 의견에 공감이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복잡한 사업에 복이다보니 그 공장에 사람을 파하여 료해를 심화시킬 짬이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 부원은 국장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알릴것을 결심했다. 부원은 부푸는 기대를 안고 국장을 만나려고 그의 방 전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의 부직간부들과 부서장들이 와 대기하고있었다. 부원이 되돌아 방을 나오려는데 부국장이 그에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국장동지를 만나려고 그러오?》

《예.》

《오늘은 만나기가 힘들거요. 중요한 사업을 협의하게 되오.》

《알겠습니다.》

부원은 공손히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다음날 가니 국장이 우에서 내려온 일군과 담화중이었다. 이들이 지나 다시 가니 이번엔 문이 잠겨져있었다. 그가 문앞에서 주춤거리는데 한 녀부원이 복도로 지나다가 말을 걸었다.

《국장동지를 만나려고 그러세요?》

《만날 일이 있는데 안계시는것 같구만.》

《며칠간 아래기업소에 다녀오려고 떠났습니다.》

《그런걸 난...》

부원은 국장이 누구보다 사업에 바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부원자신도 자기 직무수행에 바빴다. 그렇지만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고 그리도 만날 시간이 안 생길까 하는생각으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런데 어느날 국장이 돌아와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한다. 어떻게? 여러 일군들이 무시로 드나드는 전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국장이 일을 보다가 밖으로 나오는 기회에 만나리라. ...

부원은 복도 한옆에 서있었다. 얼마 지나서였다. 국장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엉거주춤 서있는 부원을 피끗 마주보았다.

부원이 그에게 다가가려는데 공교롭게도 종합 부원이 불쑥 나타나 국장에게 무엇인가 나직이 알리었다. 국장이 머리를 끄덕이고 종합부원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원은 아쉽기 그지없었다. 만나달라고 한마디 귀뜸하자던것이 수포로 돌아가다니.

그 다음날 부장이 부원에게 급한 임무를 주면서 출장을 가라고 했다. 그 사실을 끝내 국장에게 알리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가? 부원은 안타까웠다. ...

그 일을 옛말하듯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부원이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혼자소리로 덧 붙이었다.

《돌이켜보면 제 잘못이 크지요. 어떻게 하나 그 사실을 국장동지에게 알렸어야 하는건데 일시적 기분에 사로잡혀 입을 봉하고말았으니.》

부원의 말을 들은 유빈은 본의아니게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른듯 짜릿한 자책감을 느끼었다. 자신이 해오는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믿어온 그 나날속에 이런 간파할수 없는 일이 숨어있었던 말인가?

그는 숨결이 높아지고 낮이 달아올랐다. 저으기 당황해진 그는 부원에게 따듯하고 고무적인 말을 해주지 못했다. 유빈은 오래동안 모대기였다. 어찌하여 그 부원이 나를 만나기 힘들었는가? 웅당 내가 제때에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었는데...

유빈은 자기와 그 부원과의 관계를 더듬어보았다. 그를 개별적으로 만났거나 그가 속한 부서에 들어가 사업을 의논해주면서 그의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었는가?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 부서의 부장은 그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성실한 일군이라고 한다. 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늠할수 없었다.

유빈은 눈을 꼭 감고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 어떤 준렬한 웨침이 유빈의 뇌리속에 서 세차게 울렸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화근은 네가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사업하는데 있다. 일군의 열려진 마음의 문으로는 군중의 마음이 거침없이 드나든다. 그렇지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몸은 서로 가까이 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만리에 떨어져있다는것이 다.

일군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업할 때 스스로 군중속에 들어가게 되고 군중은 향기와 꿀을 찾는 나비나 벌처럼 일군에게 찾아와 의사를 나누게 된다. ...

리성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연방 유빈의 마음속에 흔들려주었다.

유빈은 비로소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기가 지도하는 한 공장의 면모를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새로 꾸린 청사며 생산건물들이 아지 무성한 수삼나무, 잣나무들을 둘러세우고 번듯하게 틀고 앉았다. 공장구내길 가늠으로 간격맞게 늘어선 살구나무들이 푸른 가지마다 연분홍꽃송이를 듬뿍 듬뿍 피우고 봄의 정취를 뽐어댄다.

공장이 생산으로 들썩한다. 천정기중기가 봉— 봉— 소리를 내며 연방 철소재를 물어나르고 단조망치가 북치듯 툭, 툭 울리며 시뻘겋게 단 쇠덩이를 두들겨댄다. 평삭반이 스룩스룩 미끄럼타며 쇠를 밀어깎고 선반이 쇠밥을 탈아던지며 돌아간다. 그 구성지고 웅글고 경쾌한 음향들이 한데 어우러져 관현악의 고조된 울림을 련상시킨다.

공장에 자주 내려온 유빈에게는 그 기계설비들의 고르롭고 활기로운 툭동, 툭톡하고 청아한 선물이 눈에 익고 귀에 익었다.

그런데... 공장의 면모를 머리속에 그려보던 그는 흠칫했다. 지금껏 관심밖에 두었던 하나의 사실에 놀랐던것이다.

작업현장들에 설치된 기계설비들의 종수와 대수, 결모양이나 내부구조, 동작원리와 작업능률까지도 환히 떠오르는데 그것들을 다루는 기대공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눈에도 귀에도 안겨오지 않는다. 이렇고도 공장실태를 알고 생산을 지도한다고 자처했던가?...

멀리 흘러간 그 일을 어제런듯 기억에 생생히 떠올리며 들려주던 유빈이 무춤 하던 말을 멈추며 영민에게 물었다.

《기자선생, 그때 내가 자신을 질책하면서 어떤 귀중한것을 깨달았는지 알만하오?》

《짐작이 갑니다. 지배인동지, 제 말을 랑해하시겠습니까?》

《에두르지 말고 툭 터놓소.》

《군중속에 들어가지않는 일군을 물우에 뜬 기름방울이라고 하는것은 얼마나 적중하고 생동한 비유입니까?》

《옳은 말이요. 일군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뜻이 깊은 비유요.》

그들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영민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런데 지배인동지, 그 부원이 제기한 기술혁신안도입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유빈은 묻는 취지를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었다.

《공장에서 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성과를 올리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소. 그랬지만 그 부원의 말은 나의 가슴에 좀처럼 메울수 없는 자책의 흠을 깊숙이 파놓았소.》

유빈은 말끝을 맺고 이윽히 창밖을 살피었다. 창밖건너에서는 탄의 질을 더 높이려고 저탄장의 선탄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건설전투가 한창이다.

이즈음 유빈은 밤낮으로 건설장에 붙어살다싶이 했다. 빠른 기일에 공사를 마감하고 설비들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외에 다른것에 관심할 경향이 없었다.

하건만 젊은 기자와 마주앉고보니 지난날자신이 겪고 찾은 교훈을 들려주고싶은 충동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서 눈길을 돌리며 《기자선생, 내친김에 내 인생에서 불미스러운것을 하나 말해줄까요?》하고 의향을 비치였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뜻밖에 횡재라도 하는듯 영민이 기쁨에 넘쳐 제격 응했다. 사람마다 기쁨은 제나름이겠지만 기자가 좋은 글소재를 잡아칠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이다.

유빈의 응글은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부원과 그런 일이있은 후에도 나는 관리국을 책임지고 일했소. 그러는중에 파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게 되었소. 일군이 사상정신적단련과 수양에 게으르면 저도 모르게 그릇된 작품에 물들게 되고 극복되었던 낡은 습성도 되살아나 파오를 범하고 비판을 받기 마련이요. 이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 찾은 교훈이요.

그때 비판을 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나와 함께

우리 기관에서 사업한 일군들이었소. 생동한 사실 자료를 들어가며 하는 그들의 비판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맵짜서 명치가 뜨끔하고 빠질 구멍이 없었소. 나를 쳐다보는 모임참가자들의 눈초리는 엄하기 이를데 없었소.

군중의 신망을 잃었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 아오? 밀창 없는 낭떠러지로 굴러내리는것 같고 외진 섬에 갇힌 몸이 된듯 하오...》

유빈은 그 일을 말로 옮기기조차 피로운듯 입을 다물었다.

...비판모임이 끝나고 보름만에 그는 불룩한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탄광에 내려가 채탄공으로 일하면서 단련하겠다는 그의 완강한 제기가 승인되었던것이다.

그로서는 쉽게 걸을수 없는 인생길에 올랐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비판을 웅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가 굳으면 두려울것이 없고 마음도 편한 법이다.

유빈은 마음도 가벼이 먼길을 걸었다. 가없이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흰구름들도 그를 향해 말없이 웃음을 보내주는듯 하였다.

그가 탄광본청사에 도착한것은 지는해가 하늘가에 펼쳤던 연자주빛노을을 거두어들이고 어스름이 소리없이 기여드는 저녁무렵이었다.

지배인은 성에서 소집한 회의에 가고 당비서가 자기 방에서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글을 쓰고있었다.

유빈이 방에 들어서니 이미 면식이 있는 당비서가 선선하고 자애깊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유빈은 정색하여 그에게 다가섰다.

《비서동지, 저는 이 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하자고 왔습니다.》

그 소리에 당비서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일어섰다.

《먼길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여기 와앉으십시오. 앉아 말합시다.》

그는 앞상결의 결상을 권하였다.

《그런데 무슨 채탄공소립니까? 우리는 유빈동무가 우리 탄광에 내려오면 부경장사업을 맡기려는데 우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유빈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비서동지, 넘려해주어 고맙지만 저는 막장에서 탄캐는 일을 하자고 왔습니다.》

당비서는 생각이 깊어지는듯 말없이 결상에서 일어나 어둠이 서린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한참만에 돌아섰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꼭 채탄공으로 일해야 단련과 수양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어느 부문, 어떤 직급에서 일하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 단련과 수양이 됩니다.》

당비서의 짧고도 정연한 설복에 유빈은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주일이 지나 박유빈은 정식 부갱장으로 임명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가 탄광합숙에서 침식을 하며 본신사업에 분발하는 나날에 있는 일들이 먼 추억으로 되었다.

남달리 허우대 큰 그에게 덧국수나 덧찬을 접시에 담아들고와 그의 식탁에 슬그머니 놓아주곤 하던 말쑥하고 아련한 접대원처녀가 이제는 혁신자탄부의 안해가 되어 치마꼬리에 유치원꽃봉오리를 달고다닌다.

한호실에서 친혈육처럼 다정히 지내던 끝끝한 제대군인총각탄부들… 유빈이 불편해할세라 이모저모로 돌봐주고 간식이라도 생기면 골라가며 권하는 그들이건만 밤이면 그의 코고는 소리에 질색하였다.

《이보라구, 코도 조림식이면 좋겠구만. 밤엔 땀고 아침에 붙이는…》

《췌— 아바이 잠 깨시겠네, 어제 밤에도 갯에서 새우셨는데.》

그들은 끝내 참지 못하여 침구를 걷어안고 잡자리 잡으러 다가가듯 발끝걸음으로 침실에서 나와 열방으로 갔다.

그러다가도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은듯 침실로 돌아와 《부갱장아바이, 일어나시라요.》하며 겨드랑이를 간지럽혀준다. 유빈이 놀란 눈으로 벌떡 일어나앉으면 그들은 프락프르로 논발가는 흥내를 내며 웃어댄다.

《하— 내 코 끝았나? 또 큰 죄를 졌나보다.》

《아바이, 일없어요. 죄중에 벌 안받는 췌 코고는 죄뿐이에요. 마음 폭 놓고 고시라요. 우리도 오늘 저녁부턴 파릉, 파르릉 끝겠어요. 아—하하하…》

아침까지울음소리같은 명쾌한 웃음소리에 열방의 총각탄부들이 문을 열고 기웃기웃 들여다보았다.

웃음 많던 그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가 되었다.

짧지 않은 그 기간 유빈은 석탄증산투쟁으로 날을 보내고 달을 넘기며 해를 지우곤 했다.

한덩어리의 탄이라도 더 캐려고 애를 썼고 구내길에 흘린 작은 부스럭탄도 쓸어모으고 손으로 집어 저탄장으로 가져다놓곤 하였다.

막장벽에서 뜻하지 않게 석수가 터져나오는 위기일발의 순간…

《아바이, 빨리 물러나라요. 위험해요.》

젊은이들의 당혹한 웨침소리가 가슴을 쳤다.

내 어찌 한목숨 아껴 물러난단 말이나. …

《비켜들 서라!》

유빈이 추상같이 호령치며 달려들어 젊은이들을 밀어내고 사납게 뿔어대는 물구멍을 몸으로 막으며 보수전투를 지휘했다.

그는 가슴뜨겁게 느끼곤 했다.

검은금, 공업의 식량이라 말하는 그 덩어리들에 습배인 탄부들의 구슬땀,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지하막장에서 탄케기에 묵묵히 바쳐가는 그들의 헌신성… 아— 그것은 얼마나 고결하고 값높은것인가!

유빈은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자신을 보았고 탄부된 보람과 긍지를 맛보고있었다.

지난날 관리국에서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나설수 있을것 같았다.

그들도 유빈을 마음속에 그리고있었다. 그에게 된매를 안기던 사람들이 드문히 그를 찾아주었다. 그가운데도 제일 호되게 비판한 일군이 그를 만나려고 바쁜 출장길에 탄광에 들리었다.

그는 유빈이 채탄장에 간것을 알고 수직갱사다리를 저거디디며 내려갔다. 여러명의 채탄공들이 안전모이마에 안전등을 켜달고 작업에여념이 없었다. 눈더듬으로 작업장을 둘러살피던 그는 채탄기 도는 소리에 귀가 멍해나고 사람들을 가려볼수 없어 《유빈동지!—》하고 웨치었다. 저쪽 구석전에서 《여기 있소—》 하는 화답소리가 멀리 수림속에서처럼 아슴푸레 들리었다.

그 일군이 넘어질듯 달려가 유빈의 팔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와본다고 속으로 버르기만 하다가 오늘에야… 안됐습니다.》

유빈은 솟구쳐오르는 감격으로 하여 말을 더듬었다.

《고맙습니다. 동무는 누구보다… 사업에 바쁘다는걸… 내가 잘 알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대고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몸을 돌보십시오. 우린 유빈동지의 건강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넘려해주어서.》

그 일군은 잡았던 유빈의 팔을 놓으며 옆에 웅크리고있는 채탄기에 눈길을 었었다.

《저도 좀 해봅시다.》

그는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섰다. 유빈이 말리었다.

《먼길 오느라 피곤하겠는데 쉬십시오.》

《그럼 구경을 하라는겁니까? 나같은 사람이 탄부들과 함께 탄케는 이런 기회를 맞다들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긴 그렇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수행이 뻔뻔할것 같아 골머리를 앓다가도 막장에 들어와 채탄공들과 어우러져 한탕 해제끼고나면 머리가 거뜬해나고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봅시다.》

그는 채탄기를 두루 살피며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작업에 달라붙었다. 손에 설고 힘에 부치는 일이어서 끔찍거리었다. 그러면서도 웅근 한교대를 꼬박 채웠다.

작업교대를 마치고 목욕탕에 들어가 거울앞에선 그는 깜짝 놀랐다. 서툰 일숨씨탓에 온통 넓어진 검은 얼굴, 그는 두팔을 짹 벌리며 허허 웃었다.

목욕을 하고 옷을 입던 탄부들이 낮모를 견습공의 실수를 너그럽게 히뭇이 웃어주었다.

그 일군은 목욕을 하고 유빈을 따라 그의 집에 들러 자기 가방에 포개여넣었던 갈음옷을 꺼내여 갈아입었다.

유빈의 안해는 전에 가까이 지내던 일군이 자기 집에 온것이 무등 기뻐지만 식사준비를 못해서 안절부절했다. 그는 불통을 토방에 내다놓고 연방 부채질을 하는데 연기만 피어오르고 탄에 불이 당기지 않았다.

애쓰는 모양을 지켜보던 그 일군이 그에게 다가섰다.

《아주머니, 어디 좀 봅시다. 하— 이렇게 하면 불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도와드리지요.》

그는 불통에서 탄덩이와 나무토막들을 꺼내고 불판밑의 재를 가셔내었다. 그런 다음 불판에 불쏘시개를 차곡차곡 올려놓고 그우에 나무토막들을 얹기설기 었었다. 그리고는 불을 달았다. 줌있어 불이 켜릴 타올랐다.

《아주머니, 나무가 다 타없어질가봐 밀불이 생기기도 전에 탄덩이를 올려놓으니 나무에 붙던 불이 죽고 연기만 나지요. 나무가 충분히 타 밀불이 좋아질 때 탄덩이를 올려놓고 불통숨구멍을 바람방향에 맞추어놓으면 탄에 불이 인차 달립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대주니 고마운데 저이는 연기가 싫다며 짜증만 내시지요. 탄을 켜줄만 알지 밀불이 좋아야 탄이 잘 탄다는건 모르시나봐요.》

《거참, 명답이외다.》 곁에 선 유빈이 그들의 말에 껄껄 호방하게 웃었다.

《내 여직 당신한테서 그런 명답 들어보긴 처음이요. 귀에 쑥 들어오누만. 그대신 음식을 잘만 들어주오, 귀한 손님이 왔는데.》

《걱정놓으세요. 밀불이 좋아서 탄이 잘 타는데 왜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겠나요.》

두 사나이는 마주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 헤어진 후에 었은 일들을 두고 회포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러다 유빈이 주인으로서의 체면을 느끼고 부엌쪽을 기웃이 내려다보았다.

《아직 멀었소?》

《다됐어요.》

《그럼 올려보내오.》

그는 음식그릇을 받아 등근 밥상에 주련이 올려놓았다. 유빈의 안해가 방에 올라와 손님에게 말했다.

《벌스럽진 못해도 성의인줄 아시고 어서 드세요.》

《먹겠습니다. 도시에선 맛보기 쉽지 않은 음식이군요.》

시원한 갇김치국에 만 국수가 먹음직한데 데쳐서 양념에 무친 두릅, 참나물, 도라지찬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구미를 돋구었다. 손님도 주인도 흐뭇한 기분으로 국수며 산나물찬들을 먹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고 집에서 나와 탄광본청사를 향해갔다.

청사앞에 이르니 마당가에 소소리 키를 쏘곤 백양나무들이 선들바람에 이파리 흔드는 소리가 정답게 울려왔다.

그 나무그늘밑에서 곤청색승용차가 주인을 기다리고있었다.

마당에는 우람진 몸집에 검은 탄부복을 입고 머리에 파릿한 안전모를 쓴 지배인과 그와 같은 차림을 하고 얼굴에 혈색이 넘치는 젊은 기사장이 나와있었다. 그들은 유빈을 정차게 쳐다보았다.

부갱장을 하면서 이신작칙으로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 조직적수완과 전개력으로 뒤흔어졌던 갱을 앞선 갱으로 추켜세운 그가 아닌가!

지배인은 왔다가는 일군이 그의 손님이라 하여 각별한 친절을 보이였다. 그 일군이 지배인에게 말을 건네였다.

《우리 유빈동지를 잘 돌봐주십시오. 건강이 좋

은것 같지 못합니다.》

《그건 녀려마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그대신 제가 하나 부탁하겠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힘껏 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을 했으니 툭 터놓겠습니다. 유빈동지를 우에서 뽑아갈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탄부들이 존대하고 실력이 높은 이런 일군을 제가 어데 가서 데려오겠습니까? 전 결단코 손해볼 일은 없겠습니다. 기사장동무, 내가 틀린 말을 했소?》

《아닙니다, 꼭 맞습니다.》

기사장이 맞장구를 쳐주자 지배인이 제 몸집같이 통 굵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능청스러운 제기에 유빈이도 기사장도 손님도 웃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일군이 유빈의 팔을 꼭 잡아주고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얼음지치듯 스르시 마당을 벗어나 앞도로에 오르자 속력을 내며 달리었다. 유빈은 차가 멀리 산굽이를 안고돌며 사라질 때까지 손을 저었다. 그 일군이 차창으로 내다보며 떠나가는것만 갈아서였다. ...

세월의 흐름속에 잦아든 그 일들을 기억에 또렷이 되살리며 들려주던 유빈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 내심 놀라는 기색이었다.

영민은 그가 자리를 떠 건설장으로 갈것 같아 한발 앞질렀다.

《지배인동지, 너무 지체시켜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유빈은 초조해진 눈빛을 거두며 반문했다.

《뭔데요?》

《년로보장에 들어가면서 섭섭하게 헤어진 그 부원과 지배인동지와 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물음이 천만다행인듯 유빈이 병짓 입을 벌리며 얼굴에 담백 웃음을 실었다.

《어— 요진통을 꺾들었소, 그걸 빼치다니... 몇해전 일이요. 그 부원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참으로 뜻밖이었소. 나를 믿고 편지를 써보내다니.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랐소. 가장 귀중한것을 잃었다가 되찾은듯 했소.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혁명동지간의 정이고 믿음이요.

이런 편지였소. 석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탄광기사로 배치받은 총각이 자기 막내딸과 사랑을 언약했으니 그가 선군시대 기술자로서 구실을 하도록 관심해달라는것이요.》

유빈이 저르기 젖고 갈았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그들이 찾아주고 편지를 보내올 때면 고맙고 기쁘기도 하거니와 그전날 그들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사는것 같아 눈곱이 더워나군 했소.》

영민은 지배인의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며 지그시 마음을 끄당기는것을 보았다. 그것이 물론 대번에 만사람의 가슴을 울릴 격동적인것은 아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과 같아서 겉에서는 그 깊이를 가늠키 어려워도 그 밑바닥에는 소중한것이 깔려있는 그런것이였다.

영민은 정중한 자세로 일어섰다.

《지배인동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젠 뚜렷이 잡혀됩니다. 이 탄광이 면모를 일신하고 탄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밑불,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강렬하고 아름답우며 더없이 귀중한것입니다.》

유빈은 이윽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동안 기자선생을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오.》

영민이 싱긋 웃어받았다.

《그런 말씀마십시오. 저는 이번 출장이 만족입니다.》

그들은 정겨운 눈길을 주고받으며 출입문을 나섰다. 밖에 나오니 탄차에 그득그득 실려 갯에서 나오는 탄덩어리들이 한낮의 폭양에 보석처럼 반짝거리였다, 이마에 안전등을 켜달고 막장을 밝히며 땀을 바쳐가는 탄부들의 마음이런듯. ...

경구, 격언

○ 안해를 사랑해줄수록 남편이 받는 대가가 더 크다

○ 안해는 남편의 길동무이지 식모가 아니다

○ 안해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

○ 어머니만큼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

○ 너인이 하는 일 황소메는 보습으로도 못한다

○ 안해 없는 남편은 물 없는 오리와 같다

○ 늙을수록 안해의 정은 더 깊어진다

푸르른 나무들의 설레임속에

리정옥

내가 중앙양묘장을 찾게 된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평범한 날들중의 어느날에 나는 뜻하지 않게 궤도전차안에서 앞에 앉은 두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자네 어깨가 무겁겠구만. 중앙양묘장 지배인의 중임을 맡았으니 오죽 생각이 많겠나?》

나는 호기심에 싸여 지배인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어떻게 대답하겠는지. ...

갓 마흔에 들어선듯 한 보기좋은 체격에 인상 좋은 그 사람은 생각외로 싱긋 웃기만 할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등이 달았다. 저를 넘려해서 해준 말인데 아무 대꾸도 없으니 속상한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마치 제가 지배인이 된듯이 줄줄 내리엿기 시작했다. 나무라는건 보기엔 그래도 역시 생명체라는것, 그 생명체를 다루기가 험치 않다는것. 그러면서 그는 있을수 있는 일, 앞으로 있게 될 온갖 어려움을 다 실례를 들어가며 력설했다. 아마 같은 산림경영부문에 있는 사람같았다.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고난 지배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오히려 난그 반대네. 난 요즘 매일, 매 시각 흥분속에 사네, 기쁨과 흥분속에... 이 감정은 아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거네.》

《뭐라구?》

친구의 눈이 둥그래졌다.

아쉽게도 그들의 대화는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다음정류소에서 내렸기때문이었다.

나는 지배인의 말을 곰곰히 되새겨보았다.

매일, 매 시각을 기쁨과 흥분속에 산다. ... 새 직무를 받아안은 사람치고는 쉽게 들어볼수 없는 대답이었다. 원래야 묵직한 근심이며 부담으로 가슴이 빠근한감을 느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 지배인은?...

직업적인 호기심이 즉시로 나를 중앙양묘장에 이끌었다.

궤도전차에서 본 인상좋은 그 지배인이 나를 맞아주었다.

어쩐지 그때보다 표정이 더 심중해지고 진지해진것 같았다. 그와 함께 넓으나넓은 양묘장을 메주밟듯이 다녔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 제기되는 일들을 주의깊게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일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따끔히 충고도 주었다. 지배인이

늘 가지고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에는 양묘장에서 해야 할 크고작은 일들이 빼곡이 적혀져있었다. 지배인의 머리속엔 오직 일, 어떻게 하면 양묘장을 더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 꾸리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는것 같았다.

이상한것은 하루종일 그를 쫓아다녀야 흥분은 커녕 그 무엇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하다면 궤도전차에서 한 말은?

나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기어코 그 대답을 찾아내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지배인의 하루일과를 가만히 주시해보았다.

새벽 5시면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넓은 양묘장을 한바퀴 쭉 돌아보았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만 보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는것이였다.

온실직장으로부터 양묘직장, 시험재배직장, 품종보존구직장에 이르기까지... 그뿐인가, 매 포전마다에 심어져있는 각양각색의 나무들을 한참씩 살펴보고 만져보고 무슨 생각엔가 골똘히 잠겼다가는 또 다른 나무으로 걸음을 옮기곤 했다.

이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였다.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걸까.

나는 지배인처럼 명상에 잠겨 천천히 구내를 걸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나 혼자서 그 이야기들과 더불어 떠오르는 광경들을 련상해보기도 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쌀 한알한알이 귀하건만 먼 래일을 내다보고 넓은 부지를 양묘장으로 전환시킨 우리당의 대담한 결심에 따라 세계 각국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사랑의 비행기에 실려 한가득 양묘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들먹거렸다.

불철주야로 초강도강행군을 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아질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 마음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뜨겁고 열렬한 조국애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 사랑속에, 그 믿음속에 솟아난 양묘장이였다.

그 손길에 받들려 오늘은 어디에도 짝지지 않는 대규모 나무모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서서히 끓어올랐다. 조용히 서서 명상에 잠겨있는듯한 이 짙나무며 수삼나무, 미풍에 가볍게 가지를

흔드는 은백양나무머가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푸르름을 자랑하며 한껏 가지를 흔드는 저 수림의 바다, 이제 멀지 않아 여기서 자라온 어린 나무모들이 조국땅 방방곡곡에 옮기여져 억세게 뿌리를 내리고 푸른 거목으로 자라나리라,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걱정이 온몸을 휩싸안았다.

그 걱정과 더불어 한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나무를 심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이였다. 어린 나무모에 허리를 굽히시고 몸소 흙을 덮어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모습!

정녕 한나라, 한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수령이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조국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실례가 그 어느 력사에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내 조국의 수림의 력사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손길에서 시작되였다.

무참히 파괴되고 벗기운 조국의 산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더 많은 나무를 심자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애써 심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속에서 숲이 일어서고 조국산천의 모습이 달라졌다.

취재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온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농촌을 찾으실 때마다 수림화, 원림화가 잘된것을 보면 병사들의 애국심이 대단

하다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희한하게 꾸려놓고 주변의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은것을 보니 무척 기쁘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꿰고있는 조국애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고 하셨다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이였다.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곱이 젖어든다.

눈앞에 안겨오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르창청한 기상으로 다가드는것만 같았다.

나는 여기 중앙양묘장의 지배인도 나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믿고싶었다. 아니,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것이다. 매일, 매 시각을 기쁨과 흥분속에 산다는 그가 아닌가.

나는 드디어 지배인의 말이 리해되였다. 그는 이 나무들에서 더없이 번영하고 창창할 래일의 우리 조국을 보고있는것이다.

그 흥분과 걱정이 그에게 힘을 주고 퍼내고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열정을 주는것이다.

그렇다.

주체철, 주체섬유가 쏟아져내리고 주체비료가 폭포쳐내리는 이 강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가는 수많은 선군시대의 애국자들로 하여 푸르른 나무들의 설레임으로 위대한 조선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그 밝은 미래가 나에게는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 푸르고 창청한 숲의 설레임소리와 함께. ...

한그루 나무에 실어보는 마음

김경남

몇해전 봄 식수절날

공장구내에 나무를 심을 때

동무들은 말했어오

애기나무 어린 나무

큰 나무에 가리워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엄마나무가 되겠는가고

정은 사람에게만 가는것 아닌가봐요

내 손으로 심어서인지

말 못하는 나무에도 자꾸만 가는 정

비바람 함속창문을 흔드는 밤이면

나무와 함께 밤도 새우고

가뭄철 단비 내리는 밤이면

나무와 함께 나도 꿀잠 자고...

내 정성이 나무를 키웠는가봐요

아지치고 잎새 펼쳐 큰 나무들과 어깨 겨루고

아지엔 못새들 찾아와 지종대고

잎새엔 바람도 쉬여가고

아, 작은 한그루 나무에

조국의 한모습이 비끼인듯

글쎄 이상도 해요

실실이 명주실 뽀다가도

언뜻 창밖을 바라보면

내 심은 나무 먼저 보이고

그러면 나무도 아지 흔들여 나를 손짓하고

그럴 때면 비단실 오리오리에 정이 더 깃들고

장군님 그리는 마음 더욱 불타고...

애국이란 이렇게 자라는가봐요

내 심은 나무뿌리 땅속으로 뻗을 때
 애국의 내 마음도 함께 뿌리 내리는가봐요
 내 심은 나무 하늘높이 키쫓구칠 때
 애국의 내 마음도 푸른 하늘 나는가봐요
 참말 애국은 먼데 있지 않는가봐요

장군님 안아오신 수림화 원림화의 그 높은 뜻
 이
 어머니대지를 감싸안아줄 때
 내 심은 나무 한그루 생각하니
 어머니조국이 소중한데 이 가슴에 안겨와요
 한그루 나무가 크나큰 조국을 알게 해요

어서 떠나거라 애기모들아

김영순

산기슭 진달래 망울 터치고
 길가의 가로수 첫 잎새 펼치는
 해빛따사로운 식수절 아침
 양묘장을 떠나는 애기나무모들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던 나무씨앗
 정성껏 심던 날 어제같은데
 벌써 사랑의 요람 양묘장을 떠나
 산으로 거리로 교정으로 떠난단 말이지
 아직은 너의 몸엔 두세돌기 년륜뿐
 내가 뿌려주는 단비 약비만 먹고자랐지만
 이제 너희들은 어머니대지에 뿌리내리고
 눈도 비도 맞으며 거목으로 자라려니
 내 부디 너희들에게 부탁하고싶구나
 산에들에 뿌리 내리거든 거목으로 자라
 내 나라 산천을 더 푸르게 하고
 가로수되거든 온갖 새의 요람이 되여다오
 우리 장군님 현지도 가시는 길에
 너희들 설레는 푸른 숲 보시며 기뻐하시게
 여름엔 시원한 그늘 펼쳐드리고

겨울엔 서리꽃 활짝 피워 기쁘드리렴
 그리고 살림집기둥으로 되거든
 천년을 끄떡없을 기둥감 되거라
 살림집과 학교의 창문으로 되거든
 만년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거라
 아이들이 쓰는 연필로 된다면
 총대처럼 든든한 연필이 되고
 방풍림이 된다면 만년성벽이 되고
 총락이 된다면 무쇠총락이 되거라
 어서 떠나거라 나의 사랑 애기나무들아
 그 어디에 뿌리 내리여도 그것만은 잊지 말아
 라
 너의 첫 요람은 여기 양묘장이 아니라
 해빛따사로운 모란봉기슭임을 잊지 말아라
 해방된 조국의 첫 봄날
 모란봉에 오르신 백두산3대장군
 조국의 산야마다 푸른 숲 설레일
 그날을 그려보신 그 사랑의 품인줄!

세계유모아

담배란

《당신은 담배란 무엇인지 압니까?》
 《?》
 《담배란 한쪽끝에 불이 있고 다른 한쪽끝에 자살자가 있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뜻과 정서, 생동성으로 충만한 석윤기의 자연묘사

한미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형상의 매력은 작가의 의도를 생활속에 깊이 묻어두고 그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다.》

소설가 석윤기는 자연에 대한 남다른 관찰력과 애착을 가지고 자연묘사에 뼈심을 넣어 뜻과 정서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생동하기 그지없는 산형상을 창조한 재능있는 작가였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쁨과 슬픔, 비애와 환희 등의 사상감과 정서를 자연에 비추어 표현하는것을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창작실천에서 자연에 대한 작가의 감정과 묘사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아름답고 숭고한 자연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묘사는 오직 작품을 놓고서만 평가할수 있다.

자연묘사에서 작가의 남다른 개성은 자연과 어울린 상징적인 제목선정에서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대지는 푸르다》,《봄우뢰》, 장편소설《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비롯하여 단편소설《소나무는 서있다》,《소문봉의 폭풍》,《눈석이》,《맑은 물소리》,《폭풍우》…

제목에서부터 아름답고 숭고하고 장엄한 무한대의 자연과 필생의 연분을 맺은듯 한 작가의 묘사 정신이 느껴진다.

글의 제목은 그작품의 이름이고 얼굴인바 한두편도 아니고 창작유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여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과 현상을 제목으로 선정한것은 확실히 개성적이다.

물론 많은 소설가들이 제목선정의 의의를 중시하고 여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구체적인 자연에 비추어 자기 작품의 제목을 달았다.

그 성공적실례로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혁명의 려명》,《맞은 올랐다》,《은하수》,《푸른 산악》, 총서《불멸의 향도》장편소설《푸른 하늘》,장편소설《석개울의 새봄》, 단편소설《사나운 겨울》 등과 같은 소설들을 들수 있다. 실례는 적지 않지만 한 작가의 일생에 석윤기만큼 자연과 어울린 뜻깊은 제목들이 많기로 특별히 인상적인 소설가는 드물다. 그에 있어서 제목으로

선정된 자연적대상과 현상은 단순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의 제목들이 하나와 같이 무게있고 사상정서적으로 숭엄하며 무한한 깊이가 느껴지는것은 선택된 자연적대상과 현상들이 한두마디로는 감당할수 없는 심오한 사상과 정서를 안고있기때문이다.

대지, 해바라기, 눈석이, 소나무… 등에 대한 묘사는 각 대상이 안고있는 상징적내용의 폭과 깊이가 웅장하면서도 알기쉽고 정서적이다.

《가없는 별판에 진눈까비가 훑날린다. 아직 저물시간도 아닌데 태양은 벌써 어느 구름장뒤로 숨어버렸는지 첩첩한 어둠이 저 하늘 끝까지 퍼져가더니 마침내 별판과 하늘의 경계조차 삼켜버렸다. 달도 없고 별도 없다. 진눈까비만이 방향없이 오락가락하며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갈긴다.》(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대지는 푸르다》중에서)

무수한 바늘땀처럼 그이의 얼굴우에 쏟아져 내리는 차거운 진눈까비— 마침내는 함박눈으로 변한다. 솟눈으로 하얗게 덮인 무인지경, 허허벌판에 한줄기의 발자국이 깊숙이 찍힌다. 몸살을 앓으며 인민을 찾아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발자국이다. 그러나 오가자사람들은 그이께서 몸살을 앓으며 홀로 지나오신 그 대지처럼 무표정하고 완고하다.

온갖 운동자들과 주의자들에게 속고 실망해서 이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를 틀어막고있는 인민대중의 광막한 대지— 이것이 오가자의 첫인상이다.

단편소설《눈석이》의 묘사 첫 부분은 아직은 일정한 사상적내용이 뚜렷이 짚이지는 않고 다만 범람하는 정서의 흐름이 보여진다. 다음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력사의 환희가 눈석이마냥 소리치며 흐른다.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봄시위물이 넘쳐난다. 무수한 혁명의 물방울들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어 얼어붙었던 대지를 휩쓸어간다. 거기에는 자기들을 것처럼 믿어주시고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는 사령관동지의 사랑에 목메인, 오늘은 장군님 친솔부대의 어엿한 대원으로 된 어제날의 《민생단》협이자 100여명동무들의 감격의 눈물도 섞여있다. … 무송현성전투가 있는 후 눈석이와도 같

이 견잡을수 없는 혁명의 물결이 와와 소리치며 장백으로, 국내로 세차게 번져간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김일성동지는 태양, 빛의 원천이시고 그이 품에 눈뜨고 성장하는 조선의 모든 혁명가들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이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형상들은 한결같이 시대와 력사라는 거창한 무대를 펼치고있다.

자연과 어울린 상징적묘사에서 작가는 그 사상적의미를 처음부터 내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해당 대상에 대해 회화적으로 묘사하면서 미끄러지듯 넘어간다. 점차 인간관계가 심화되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앞에서 슬쩍 그려진 자연이 두번, 세번으로 거듭 그려진다. 그에 따라 뜻이 심어지고 정서는 더욱 짙어진다. 마지막에는 그 상징적인 뜻과 정서가 거의 시적인 주정토로에 가까울 정도로 팽창된다.

앞서 실려든 제목들이 펼쳐보이는 상징적화폭들이 시대와 력사, 인민대중을 저력있게 그려보임으로써 다주인공적성격을 띤다면 단편소설 《소나무는 서있다》에서의 소나무는 독자적주인공의 독자적얼굴을 개성있게 비치고있다.

석윤기의 자연묘사는 인간과 그 생활의 본질적내용과 특징을 형상적으로 살려내고 뜻깊은 인간문제와 사회적문제를 해명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의의를 가진다.

석윤기의 자연묘사는 또한 의인화의 수법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게 그려보여주는 인격화된 묘사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작가가 그려보인 인격화된 자연묘사에서 중요한점은 그가 언제나 묘사의 생동성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것이다. 인격화를 통한 그지없이 생동한 자연묘사속에서 작가는 인간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있게 론하는것을 잊지 않는다.

《양상하게 혈빛은 이깎나무우듬지가 뿌연 재빛하늘을 배경으로 가볍게 떨고있었다. 하늘은 연한 구름발로 잔주름이 잡혔는데 그 역시 몇억겹을 잘못 살아온 자기의 죄책감때문에 그렇게 울적한 표정으로 침묵에 잠겨있는듯 하였다.

〈한생을 잘살기란 험치를 앓어.〉

신재림은 그 하늘을 위로하듯 이렇게 중얼거렸다.》(총서 《불멸의 력사》장편소설 《봄우뢰》중에서)

이 묘사문에는 인생에 대한 탐구와 사색이 깃들어있다. 인생의 희노애락, 풍족하게 사는것이 인생인가. 아니, 떼떽하게 사는것이 인생이다.

독자들은 인격화된 자연묘사를 통하여 살아움직이는 진리를 본다. 그러고보면 작가에게 있어서 자연은 순수 산과 들이 아니라 인간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산인간이다. 더우기 그 자연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며 투쟁할것인가에 대해 집요히 사색한다고 볼 때 작가의 자연묘사는 실로 작품의 주제해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다.

《갑자기 꽃샘이 시작되었다. 다 쫓겨간줄 알았던 겨울이 먼 산줄기에서 불리다 남은 눈을 휘몰아다가 겨우 눈뜨기 시작한 새싹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놓았다. 이 발악이 지나가자 미처 상처를 가실 사이도 없이 봄은 무르익어서 벌써 머지않은 언덕우에 여름이 그 이글이글 타번지는 얼굴을 내밀었다.》(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중에서)

이 단락에서 겨울, 봄, 여름은 불과 한두줄씩에 해당되는 인격화된 묘사문구를 타고 각기 개성화되었다.

작가에게서 인격화된 자연묘사는 비교적 큰 단락을 단위로 깊이있게 전개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스치는듯 한 감각을 주면서 짧게 그루박히기도 한다.

단락은 단락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자기나름의 깊이와 양상을 가지고 형상에 적극 기여한다.

《끝없이 뻗어간 산의 표정》, 《길가에 널린 부역군들의 한숨처럼 아득히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그 고개의 마루턱》, 《개인하늘에서는 높은 한낮의 태양이 심술궂게 눈을 똑바로 뜨고 세찬 직사광선을 내쫓면서 그들의 무모함을 비웃는가 하면》, 《할미꽃은 벌써 백발이 되어 목대가 구부러졌다》, 《아마 날씨도 무엇인가 느껴지는게 있는 모양 같다》, 《참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진짜배기 밀림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생명이 약동하는 진짜배기묘사—이것이 작가가 구사한 인격화된 자연묘사의 기본매력이다.

뜻과 정서, 생동성으로 충만된 작가의 자연묘사는 훌륭하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아름답고 숭고한 자연, 약동하는 자연에 비추인 소설가 석윤기의 산 얼굴을 다시금 본다.

소설창작에서 작가가 보여준 묘사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세계적인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우리 작가들의 사색과 실천에 참으로 귀중한 경험으로 되고있다.

전쟁의 마지막이야기

와실리 수보진

리정임 역

회색건물

날이 밝아왔을 때 히틀레르의 집에 있던 모두는 의사당건물을 보려고 창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건물이 가로막아서였다.

네우스프로예브도 창턱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지하실의 창문은 높은곳에 있었던것이다.

오른쪽에는 아직 앙상하고 거무튀튀한 나무들이 있었다. 지난해의 묵은 잎사귀들은 썩어서 물기가 축축히 흐르고있었다. 왼쪽에는 도랑이 보였다. 안개도 채 가셔지지 않았다. 지붕우에서 물이 똑똑 흘러떨어지고있었다. ...

네우스프로예브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정방형의 높지 않은 건물을 보았다. 건물우에는 둥근 지붕이 있고 양쪽에 두개의 탑이 있었으나 특별하게는 보이지 않았다.

창문가에 모여섰던 병사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의사당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그곳에는 의사당같은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다른 대대의 대대장 다비도브는 지하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수 있다고 하며 지휘관들을 데리고 우로 올라갔다. 둘러보았으나 거기서도 어느것인지 명백치 않았다.

그들은 두층 더 올라갔다. 슈쁘레예쪽에서 아직도 안개가 밀려오고있었다.

늑늑한 공원안은 텅 비었다. 거기에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것이 있었다. 온 광장이 참호들로 뒤덮였다. 구석마다 장갑엄개들이있었고 땅크들도 보였다. 공원 깊숙한 곳에는 자동무기들도 있었다. 참호를 제외하고도 앞에는 물이 넘쳐흐르는 수로가 있었다. 탑이 달린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볼때와는 달리 여기 높은 곳에서 보니 웅장했다.

런락병이 달려왔다. 네우스프로예브가 호출되었다.

사단장 샤펠로브는 그에게 왜 공격을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77번동지! 회색건물이 가리워서 그렇니다.》

《가만, 가만... 무슨 건물이라구?》

《우리 딱 앞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에돌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하실구석의 전화기결에 서있던 네우스프로예브와 모아비프에 있는 사단지휘부에 있던 사단장은 둘 다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

《뭘가 방해를 한다는거요? 지도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하나씩 측정해보고는 제외해버렸다.

물리뜨께다리... 슈쁘레예... 히틀레르의 저택...

《네우스프로예브동무! 이게 바로 의사당이요.》

그러나 정방형의 이 회색건물이, 창문앞에 있는 이 건물이 자기들이 찾던 그 의사당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의사당까지는 아직 가고 또 가야 한다고만 생각되었다.

릉형으로 된 지붕우에는 평평한 공지가 있었고 그우에 뾰족탑이 있었다. 건물 앞쪽에는 금방 짝이 트려는 나무들이 꺾어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은채 뻗뻗이 늘어져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것도 잠시뿐, 이 이론아침뿐 일것이다. 한시간 지나서는 의사당을 《까츄샤》들과 화력무기들이 정확한 원거리사격으로 타격할것이고 그러면 의사당은 순간에 사진에서 보곤 하는 그런 건물로 될것이다.

몇사람이 알고있다

우리가 도이칠란드국회의사당우에 기발을 쫓은 후에도 의사당에서 전투가 2일낮 2일밤동안 계속 되었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몇사람뿐이었다.

여기 베를린으로 공격해들어온 첫날에 벌써 1500명의 도이칠란드놈들이 의사당건물의 지하실에 들어가박혔다. 그놈들은 우리에게 반땅크수류탄을 던져댔다. 그러나 제놈들이 다시 탈환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지자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 창문과 파렬구로 연기가 쏟아나오더니 다음엔 불길 이 타래쳐나왔다. 내 생각에는 300명이상 되는 우리 병사들이 불타는 건물에서 싸우고있었다. 하지만 정세가 어렵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5월 1일 아침에 방송원은 우리 군인들이 베를린중심에 있는 도이칠란드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승리의 기발을 높이 쫓았다고 보도하였다. 이 소식은 쓰팔린의 5.1절명령에도 지적되어있었다.

빠리와 런던, 뉴욕에서는 기도식들이 진행되었다.

라지오를 켜니 레베당의 종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 그러나 이 순간에 불길이 벽을 휘감은 의사당건물안에서는 우리 병사들이 팔소매로 눈물을 가리우고 서있었다.

사람들을 구출해내올데 대한 명령이 대대장에 게 전달되었다.

《건물에서 나와 원형방어를 하시오. 불이 꺼지면 다시 탈환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나를 출구가 없었다. 비좁은 한 방에서 연기에 숨이 껍껍 막혔던 병사들은 방독면을 뒤집어쓰고 바닥에 엎드렸다. 불길은 이미 이곳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지끈 하며 무너져내렸다. 무너진데로는 누런 연기가 솟어나왔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위험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 이 예상치 않았던 파열구가 열린것으로 하여 병사들은 이미 다 불타버린 열방으로 옮겨갈수가 있었다. 놈들은 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기발은 불이붙지 않았고 좀 끄슬렸을뿐 의사당 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불길이 사그라졌을 때 지하실의 모든 출구들은 또다시 봉쇄되었다. 5월 2일 아침이 밝아왔다.

케니그런병장을 지나서

《출구, 출구, 출구.》 교환수가 계속 반복하고있었다. 응답이 없다. 이날에 선을 복구하려 간 열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부는 도착지까지 가지도 못한채 전사했고 또 일부는 돌아오는 길에…

그러나 전화가 또 련결되었다.

《출구 듣는다…》

네우스트로예브는 수화기를 잡았다. 중대돌격대장 일리아 씨야노브가 보고했다. 브란덴부르크성 문부근에 적들이 공격을 하려고 모여있으니 사격을 해줄것을 부탁했다. 머리우에서는 모두에게 익숙된 쇠뿔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고 어딘가 앞쪽에서 육중한 박격포들이 포장도로에 구멍이를 파고있었다. 이 기나긴 하루동안 의사당앞 광장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출구가 가까이 없었었다가 공격을 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화점들은 계속 불을 토했다.

이 큰 광장을 지나서 지금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자그마한 공지에는 의사당을 탈취할 병사들과 지휘소와 관측소, 대대화력을 지휘하는 사람들을 련락해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붉은 전화선이 늘어져있었다. 포격때마다 매번 파열조각이 선을 끊어놓곤 했다. 그러나 누구인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선을 련결했고 그러면 선은 또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의사당건물을 점령할 때 거기에 뻗치고있던 적들의 대부대도 지하실에서 몰아냈고 전투는 끝났다. 슈쁘레예기슈의 지하실에서 의사당의 크지 않은 방으로 옮겨간 대대지휘소에 대대교환수 웨라 아브라모바가 들어왔다. 그는 눈이 충혈되어있었으며 군복상의는 찢어져 너덜너덜했다. 대대지휘관은 그가 말없이 자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 하면서 전화기가 있는 구석에 무릎을 꿇고앉아 펜을 놀리는것을 보았다.

《출구는… 검열했음.》

그는 무슨 말이든 할 차비가 아니었다. 자기가 얼마나 오래동안 포탄구멍이에 숨어있었으며 끊임없이 떨어지는 포탄으로 구멍이 송송 나버린 광장에서 끊어진 곳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끊어진 곳을 련결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이 하루에 대해서…

수로를 넘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수로우로는 철길이 지나갔다. 허물어진 다리에 남아있는것은 레루뿐이었다. 옆구리에 있는 전화선줄토리가 기여가는데 참 불편했다. 교환수는 레루를 가로타고 앉아서 팔에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했다. 물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여갔다.

지휘관은 수화기를 놓고 그에게 돌아섰다.

《동무가 선을 련결했소?》

《예!》

련대장 베레스뜨

지하실밀에서 흰기가 불쑥 던져졌다.

광장아래계단에 장교가 나타났다. 외투단추를 열어제끼고 손에는 8련발자동총을 쥐고있었다.

그놈은 도이쉴란드군지휘부가 담판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것을 표명하였다. 하지만…놈은 군사등급을 지닌 군관들하고 하겠다는것이다.

도이쉴란드놈들이 있는 계단아래로 베레스뜨가 향했다. …

베레스뜨는 정치부대대장이였고 겨우 중위였다.

게다가 이 군사칭호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가 베를린에 들어섰을 때에야 명령을 받았던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소위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몇달동안이나 대대장 네우스트로예브의 대리로 일하여왔다.

알렉세이 베레스뜨는 이제야 겨우 20살이었다. 얼마전야 그는 공청에 가맹하였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스스로 이 일을 말아나섰다. 병사들이 그에게 군용물통에 남은 물을 부어주었고 그는 얼굴에 묻은 검뎅이를 씻어냈다.

어려웠던 그 이틀이 지난 지금도 그는 아주 꼼꼼한 사람으로 보였다. 어제 광장에서 그는 대대의 전사들과 함께 폭탄구멍이안에 들어가있었다.

다음에는 정찰병들인 칸파리야와 예고로브와 함께 기발을 쫓았던것이다. …

베레스뜨는 군복상의우에다 누군가의 가죽반의투를 걸쳤다. 정치지도원인 대위 마트베예브가 딸 기색테를 두른 자기의 새 모자를 그의 머리에 씌

워주었다.

네우스프로예브도 베레스프와 함께 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고 자기 훈장들이 보이게 숨저고리마저 벗어던졌다.

베레스프는 훈장이 얼마 안되었지만 네우스프로예브에게는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더 위풍당당해보일것이라고 생각한것이다.

그들은 얼마전에 포로되었다가 풀려나온 한사람까지 해서 셋이서 갔다. 그 사람이 도이칠란드 말을 좀 알았던것이다.

지하실밀에서 적들은 벌써 기다리고있었다.

그곳은 흰했다. 화불이 타번지고있었다. 도이칠란드군병사들이 그들을 즉시 에워쌌다.

베레스프와 그의 일행한테로 한 도이칠란드장교가 다가왔다. 련대장이였다.

도이칠란드군병사들은 이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며 비켜섰다.

련대장놈은 베레스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베레스프는 자기의 모자채양에 손을 가져다대며 말했다.

《련대장 베레스프요.》

까만 가죽외투를 입은 대리대대장인 전권위원은 머리를 쳐들고 서있었다. 눈에 띄우게 어깨가 짝 벌어진 그는 자신심에 넘쳐 서있었다.

놈들중 누군가가 말했다.

《젊은 사람이 벌써 련대장이군.》

베레스프가 말했다.

《난 당신들에게 항복할것을 권고하오! 당신들은 지하실에 포위되었소. 당신들은 더 빠질 구멍이 없소.》

그러자 그놈은 대답했다.

《누가 누구의 포로로 될지는 아직 모르오. ... 당신네는 여기에 다해야 300명밖에 없소. 그러나 우리는 10배나 더 많소.》

《무기를 던지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여기서 놔주지 않을것이요.》

베레스프는 말하고 이것으로 담판을 끝냈다는듯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도이칠란드장교는 또다시 베레스프네가 자기들의 포위속에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 그리고는 황당하게도 자기들이 브란덴부르크성문쪽으로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베레스프는 자신을 겨우 억제했다. 그는 20살밖에 안되는 청년이었으니 자기가 외교관이라는것을 그만 잊었다!

《우리가 왜 베를린에 왔는지 알기나 해!》

그는 투박하게 놈들에게 물었다.

《너희네 더러운 자식들을 놔주라구? 만일 네놈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린 네놈들을 소멸해치우겠어.》

도이칠란드장교가 항의했다.

《련대장나리, 군사대표들끼리는 그런투로 말하

게 되어있지 않소!》

베레스프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적련대장이 갑자기 로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주 괜찮게 말을 했다.

《우리도 우리 처지를 알고있소. 우리도 항복하려고 하오. ... 그러나 당신네 병사들은 흥분되어있소. ... 당신은 그들을 모두 내다가... 정렬시켜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나가겠소.》

《아니!》

베레스프는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들앞에 병사들이나 정렬시키자고 베를린에 온것은 아니요. 당신네가 2천명이고 우리가 200명이라 해도 말이요.》

더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베레스프는 거수경례를 했다.

병사통역관과 네우스프로예브는 계단을 오르면서 련대장 베레스프가 성나서 《독사, 독사.》 하면서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당지하실에 있던 놈들은 다음날 아침녘에야 투항해왔다.

잊혀진 병사

의사당을 탈취한 병사들과 군관들의 이름가운데서 빠뜨니쯔끼의 이름은 잊혀졌다. 뽀프르 빠뜨니쯔끼의 이름은.

바로 그가 공격이 개시되자마자 히믈레르의 집에서 도로로 맨 처음 뛰어나왔다. 불빛이 비치는 도로옆에 오래동안 중대들이 었다있을 때 붉은기를 든 그가 일어나 동지들의 앞장에서 달려나갔다. 그가 뽀프르 빠뜨니쯔끼였다.

우리 병사들이 히믈레르의 집 앞쪽에서 나타나 계단으로 뛰어들어가는것과 기발을 날리는것이 보였다. 다음기발을 든 사람이 넘어졌다. 빠뜨니쯔끼였다.

저녁녘에 포병들이 준비를 한 후에 다시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때 대대전사들은 의사당으로 달려나갔다. 빠뜨니쯔끼는 출구앞에 기발을 쥔채 쓰러져있었다. 그를 짓밟지 않도록 날라다 원기둥옆에 눕혀놓았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전투가 끝났을 때 그를 어딘가 전사자합장묘에 묻었다. 내 생각에는 찌르가르젠에 묻은것 같았다.

뽀프르 빠뜨니쯔끼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몇사람은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하기 2~3일전에 그의 지휘관이 그에게 하사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는 대대장의 련락병이였다.

우리는 그때 우리 사단신문에 그에 대해 편지를 썼으나 그후 신문은 그 내용을 게재하지않았

다. 점차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일이 뜸해졌다. 그는 죽었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있었다. 브란쉬나에는 그의 안해 예브도끼야 빠뜨니즈까야와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이 있다. 아마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어떻게 전사했는지 모르고있을수도 있다.

세월이 흘렀으니 함께 싸운 사람들도 수로앞광장으로 포복전진하여오던 병사들을 그가 어떻게 불려일으켜세웠는가는 자세하게 이야기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출구앞에서 기발을 들고 쓰러진 이 병사가 누구였는가를 알도록, 그가 어떻게 광장을 따라 달렸으며 어떻게 전사하였는가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

우리결을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않을것이다. 그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영광을 지녀야 한다.

기발과 함께

승리의 기발은 예고로브와 칸파리야가 쫓은것으로 사람들은 알고있다. 하지만 나는 기발을 쫓은 또 다른 두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들은 경찰병 칸파리야와 예고로브가 속해 싸웠던 네우스트로예브대대사람이 아니라 와셀리 다비도브대대사람들이다. 그 가렬한 날에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이야기하겠다.

그들 두사람의 자태가 불빛에 드러났다. 다리밀을 지나 높이 않은 수로제방우로 기여올랐다. 의사당까지는 멀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의사당의 거대한 원기둥과 화려한 입구의 계단들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에는 접근할수가 없었다. 붉은기는 표슈카르바예브가 숨저고리밑에 건사하고있었다. 머리조차 들수가 없었다. 도이칠란드놈들은 옷층에서 엄폐호와 뒤집혀진 아스팔드덩어리뒤에 숨어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사격을 해대고 있었다. 포탄은 광장의 바닥들을 물어뜯었고 탄알은 자갈들에 맞아 튀어났다. 등뒤에서는 집들이 불타고있었다.

나어린 블라프브는 (그한테 상의는 널널하고 여름군모 역시 컸다.) 놀라서 표슈카르바예브의 겨드랑이밑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어떻게 할가요?》

하고 그는 표슈카르바예브의 눈을 의심쩍게 바라보며 물었다.

표슈카르바예브는 저격수소대의 지휘관이였다.

블라프브는 경찰병이며 평범한 전사였다.

라히프잔 표슈카르바예브는 까자크였고 블라프브는 로씨야사람이였다.

중위 표슈카르바예브가 말했다.

《우리 이 기치를 의사당의 첫번째 계단에나 거

우 쏴겠는지?》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손에 있는 그리 크지 않고 좀 투박한 질의 붉은 천폭을 《기치》라고 불렀다.

그들은 기폭에 서명하기로 했다. 녹녹한 화학연필로 재빨리 자기의 이름을 토박토박 써넣었고 아래에는 《674》라는련대번호와 구분대번호를 새겨넣었다.

저녁녘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2개의 서로 다른 대대의 중대들이 속해있었다. 빠뜨니즈끼가 불려일으켰던 첫번째 공격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성공하지 못했고그 조는 다 전사했다.

표슈카르바예브는 블라프브와 함께 자기의 엄폐호에서 출입구쪽으로 튀어나갔다. ...

블라프브와 표슈카르바예브는 처음에는 자기의 기발을 가운데기둥에 고정시켰는데 건물의 왼쪽부분을 차지하자 자기들의 기발을 2층창문으로 내밀었다.

...그다음 그들의 기발이 지붕우에 나타났으나 둥근 지붕우가 아니라 돌출부의 어느 한 탑주변이였다.

승리의 기발

...그들은 아직 싸움이 벌어지고있는 건물안에 있었다. 그들의 우에서도 또 아래층에서도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사위를 분간할수가 없었다.

창문은 돌로 밀폐되어있었다. 암흑이였다! 어둠속에서 어디에 어떤 입구가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구분할수 없었다. 누구도 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못했다. 사위를 분간하자면 어디로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때 바로 계단이 나타났다. 마침 그들에게 필요한것이 나타났다! 계단앞에 련결된 또 하나의 계단이 있다. 이것은 곧바로 지붕우로 나있었다.

여기는 아직도 얼마나 밝은가! 그들은 이제 이미 깊은 밤일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붕이 평평한것이 얼마나 좋은가... 어디다 매야 한다? 돌출부우에는 녹슨 조각이 있었다. 기마병이였다.

아니, 기마병우에는 안되지, 그가 기발을 쥐고 있는것으로 생각될테니까. ...

또다시 지붕우에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둘러야 했다. 만일 거기로 가면 둥근 지붕우에 무엇이 있겠지. ... 이 철근모서리는 왜 이렇게 날카롭담! 계단도 구불구불했고 다 뜯기워서 철근란간을 잡고 내려가야 했다. 견고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아주 녹슬어버린 철근들이였다. 그러니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것이 더 나았다. 아래에는 무너진 강당이 무슨 골짜기같았다.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이게 뭘가. 목적지까지 다 왔나? 부상당하지 않은 다리에 지붕이 닿았다. 그러나 그 둥근 지붕에서 계단까지 또 기여가야 했다. 머리가 땡했다. 그렇다, 내려다보지 말아야 한다. ...

엎어매고 잡아당기였다. 혁띠로 엎어매었고 기발을 감쌌던것을 잡아당겼다.

두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이 순간밖에 보지 못했다.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발이 그들의 머리위에 펼쳐졌는지, 얼마나 인차 기발이 힘차게 나뭇겼는지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빨리 자기편으로 돌아가야 했던것이다. 그러다나니 그들은 승리의 기발이 세워진것을 보지 못했다. ...

쉐르비나

전투를 끝낸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나는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그들은 의사당의 계단에 서있다. 그들가운데는 좀 아래쪽에 머리에 흰 붕대를 감은 전사가 있다. 거기에는 군관도 있고 병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찢어지고 하나같이 어지러운 옷을 입고있었으며 어깨에는 찢어지고 반나마 타버린 외투들이 걸쳐져있었다. 이들중 누가 병사이고 누가 군관인지 구분을 못할 지경이었다.

머리가 검은 나어린 병사가 계단의 맨 아래쪽에 서있었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있었고 군복상의소매를 걸어붙인 손에는 자동총을 쥐고있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생동한 전쟁사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아직도 계속 불타고있는 의사당 계단에 서있다. ... 그의 이름은 뽀프르 다로페예비츠 쉘르비나였다. 그때 그는 19살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의 집주소는 자뽀르쥬스까야주 스켈리까마을이었다. 베를린의 슈쁘레예에서 그는 머리에 부상을 당했으나 위생소로 떠나지 않고 대대에 남았다. 쉘르비나의 부대는 처음으로 의사당의 출구에 다달았고 중앙현관에서 전투를 했다. 그런데 의사당의 매방들이 연기로 꽂차기 시작했고 도이칠란드놈들이 반공격을 시도하였을 때 전사들은 후퇴하였다.

《어디로 가는가? 제자리에 있으시오!》

쉘르비나가 소리쳤다.

병사들은 엎드려서 돌출부에 나타나는 놈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연기가 계속 눈을 자극했다. 머리가 땡하였고 눈앞도 어두워졌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반땅크수류탄이 떨어졌는지 세찬 진동으로 해서 벽이 울렸다. 무너지는 벽체에 병사

들이 묻힐번 했다.

쉘르비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날 따랐!》하고 쉘르비나는 소리쳤다.

그역시 연기를 들이켰고 숨쉬기 힘들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었으나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는 앞으로 나갔고 그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갔다. 연기속에서 보이는 흰 붕대를 따라서 희미한 불빛사이로 그들은 연기가 더 적게 찬 건물의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동안 복도와 강당을 따라 돌고돌았다.

칸파리야와 예고로브가 지붕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을적에 쉘르비나와 그의 전사들은 아래에 남아서 후위에서부터 엄호하고있었다.

그 의사당앞 광장에서 하사 쉘르비나가 붉은기 훈장을 수여받았다.

슈쁘레예를 지나는 다리우 전투에서와 히믈레르의 저택뒤에서 있는 전투에 대해서도 또 뽀프르 빠뜨니쓰끼가 전사했을 때 그의 기발을 뽀프르 쉘르비나가 들었다는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것이다. 부상당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의사당의 계단에 서있는 그 전사가 바로 쉘르비나였다.

어떤 의사당을 점령해야 하는가

네우스프로예브가 자기앞에 의사당이 있다는것을 리해하지도 믿지도 못한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싸움의 길이 멀었으니까.

다른 사단안의 대대인 썸쏘노브대대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

썸쏘노브대대는 그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대대의 두 전사들, 미하일 예레민과 그리고리 싸벤코가 의사당건물의 구석에 자기의 기발을 꽂아 놓았다.

대대장은 도시의 중심에 더 빨리 뚫고들어가기 위해서 방어구간을 우회하도록 했다. 그들이 목적지에 더 접근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 완강했다.

《바로 우리앞에 의사당이 있었습니다. 첫 순간에는 우리는 이것을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당을 본 네우스프로예브가 오래동안 자기앞에 정말로 의사당건물이 있다는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면 썸쏘노브는 자신에게 물었다.

《의사당은 의사당인데 그게 이 의사당인가?...》

의사당을 잘 안다던 포로들도 어떤 의사당이 필요한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런대장 네고드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당이 한개만 있다고 하던데 아마, 이젠

그 의사당이 아닙니까. ... 어떤 의사당을 탈취해야 합니까.) 련대장은 침착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른것을 점령하십시오.〉

나는 싸벤코와 예레민을 불러 기발을 주고 말했습니다.

〈의사당을 탈취하자마자 기발을 쏘시오.〉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앞장에 섰습니다.

그들중 한사람인 예레민이 부상당했으나 싸벤코와 함께 벽의 파렬구에 기발을 쏘았습니다.〉

쌈쏘노브는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운수가 좋았습니다. 이 의사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 아이들

베를린의 중심에 의사당과 나란히 브란덴부르크성문이 있다. 그우에는 4마리의 말이 발을 뻗치고 서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1944년생인 내 딸이 이젠 다 자란것을 보니 세월은 빨리도 흘러가는것 같다. 그 애는 9학년생이다.

저녁에 나는 그 애가 도이취어교과서를 읽는것을 들었다. 나는 이것을 알아들을수도 있다.

...우리 나라 소년인 워프르가 자기와 같은 소

년인 오토에게 손님으로 초대되어 베를린에 간다. 이 도이쉴란드소년은 자기의 친구에게 도시를 보여준다. 그들은 중심까지 지하철도를 타고간다. 오토는 자기 손님을 넓은 운쎄르—젠—리젠으로 데리고간다. ...

《그런데 네가 어디를 읽었는지 보여주렴?》

나는 그 애의 손에서 책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나는 찾지 않아도 되었다. 그 폐지에 브란덴부르크성문의 사진이 있었다. 6개의 기둥과 5개의 공간이 있었다. 말도 있었다! 그 말들이 그우에 있다. 말들을 이룬마차앞에 가져다 매놓았다.

나는 계속 읽었다. 그리고 놀라운것을 발견했다! 빈터와 폐허였던 거기에는 집들이 일어섰다. 말들도 또다시 브란덴부르크성문우에서 뛰어다니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소년들과 도이쉴란드아이들이 만나고있다.

오토란 애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있는데 우리나라 소년에게자기 나라를 보여주며 그 애를 여기저기로 데리고다니고있다.

그들은 운쎄르—젠—리젠을 따라 함께 가고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베를린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붉은 브란덴부르크성문이 서있다. 거기에는 맹렬히 솟구쳐오르려는 말들이 있다. 이제는 이것이 그저 동으로 무어진 4마리의 말뿐이다.

상식

음식물의 색깔과 건강

○ 흰색식료품; 우유제품, 흰쌀, 마늘 등
초조감을 없애고 안정감을 주며 독소를 인체밖으로 내보낸다.

○ 풀색식료품; 부추, 배추, 완두콩 등
우선 뇌수의 영양을 보충하고 활력을 높여주며 긴장감을 해소한다.

또한 적혈구의 생성을 추동하며 면역계통을 활성화한다.

○ 붉은색식료품; 사탕무우, 도마도 등
물질대사를 촉진하며 피순환을 개선하고 로동능력을 높인다.

○ 오렌지색식료품; 감, 살구, 복숭아, 호박, 귤, 홍당무우 등

신경세포와 근육조직의 재생을 도우며 기운을 좋게 하고 머리아픔을 없앤다.

○ 노란색식료품; 노란사과, 강냉이, 닭알노란자위, 바나나 등

소화를 촉진하며 원기를 복돋아주고 피를 맑게 한다. 즐거운감을 더해주며 소화기계통 및 간장기능을 높여줄뿐아니라 피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한다.

레르몬토프의 생애와 창작적특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 펼쳐지는 생활현상에 대한 작가의 감성적태도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수 있다.》

엠. 유. 레르몬토프(1814—1841)는 로씨야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초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로씨야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름있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끝없는 조국애와 열렬한 자유애호정신이 차넘치는 그의 시가는 당대의 진보적인사들속에서 찬사를 받았으며 원썬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였다.

모스크바의 퇴역군인가정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레르몬토프는 모스크바종합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시를 쓰기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그 대표작으로서는 서정시 《뫓》, 《념원》, 《검은구름》, 서사시 《동승》, 《악마》를 들수 있다. 이외에 서정시 《시인의 죽음》,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과 같은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도 창작하여 사실주의문학발생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그는 1837년 뿌슈킨이 결투에서 치명상을 당하고 죽게 되자 《시인의 죽음》이라는 시를 써서 지배계급의 음모에 의해서 시인이 죽었다고, 정부가 그를 죽였다고 단죄함으로써 뿌슈킨의 죽음에 비친 정부의 검은 축수를 발가놓았다. 바로 이 시로 하여 그는 남방으로 추방되였다. 레르몬토프 역시 뿌슈킨과 마찬가지로 결투를 하다가 죽었다. 그는 봉건농노전제제도에 대한 격렬한 반항아였고 자유로운 조국 로씨야에 대한 리상에 불타던 열정적인 시인이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의 특성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레르몬토프의 창작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사상적내용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지향과 압제에 대한 반항정신, 자유에 대한 열렬한 동경으로 일관된것이다. 그는 자유에 대한 갈망에 불타던 뿌슈킨의 랑만주의시가들을 탐독하면서 언제나 자기 창작활동의 기준을 그에게서 찾았고 하여 그의 시가에는 항상 정의롭고 진보적인 사상이 흘러넘쳤다.

이것은 서사시 《동승》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서사시는 그가 1837년 그루지야지방의 흑해연안을 행군하던 도중에 한 수도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창작적상을 받아안고 쓴 작품이다. 서사시는 주인공의 내면독백형식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바라던 당대 인민들의 지향을 뚜렷이 반영하였다.

작품에 반영된 이야기줄거리는 숨막히는 수도원생활에 짓눌리어 고생하던 주인공(동승)이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폭풍이 일어난 어느날 수도승들이 저녁례배를 드리러 갔을 때 수도원을 탈출하여 산중의 밀림속을 헤매다가 쓰러져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 자기의 생을 돌이켜보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가 수도원을 탈출하여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도 궁지높게 자기의 생을 총화하는 그 근처에는 강렬한 자유애호정신이 짙게 깔려있다. 동승은 강한 자유애호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유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있다. 다시 살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해도 다시 도망쳐 자유로운 생을 살겠다는 그의 말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

나의 일생은 짧았고 그나마

포로의 일생이였소

허나 만일 할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두개의 생활을 하나의 생활

오직 싸움에 찬 생활과 바꾸었을것ियो

...

동승의 성격은 그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당대 사회에서 자유가 없이는 사는것이 죽는것만도 못하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격이다.

레르몬토프의 창작의 특징은 다음으로 예술적형식에 있어서 강한 박력과 드세찬 열정, 깊은 사색, 심각한 정서 등이 강렬하게 굵이치고있는것이다.

다른 작품들도 그러하지만 서정시 《단검》은 이러한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시에서는 첫편에서 보여주는것처럼 《나는 사랑하노라/내 디마스크의 강철의 검이며/서리발같이 싸늘하게 번뜩이는 나의 동무여/침울한 그루지야사람이 복수를 위해 너를 버렸고/자유로운 체르케스사람이/피의 싸움을 위해 갈았느니라》라고 노래하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이 성스러운 싸움인 동시에 피를 동반하는 치열한 싸움이라는것을 보

여주고있다. 그의 시에서 맥박치고있는 강렬한 열정, 드세찬 박력은 애인의 눈물을 보면서도 진리의 싸움을 위해 떠나는 주인공의 진리에 대한 지향과 그 어떤 사랑을 바쳐서라도 복수를 위해서 굴함없이 살아가리라는 시인의 굳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의 시가에서 강한 박동과 심각한 정서를 안고있는 작품으로서는 서사시 《악마》도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악마는 말그대로 그 어떤 관습이나 유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악마는 신의 압제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천상과 지상의 폭정에 항의하여 불신임과 비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린다.

진실한 행복도
영구한 마음도 없이
죄악과 형벌만 있고
저급한 색정만이 살아있어
두려움없이는 증오도 사랑도 못하는 곳
...

바로 이것이 악마가 내린 천상과 지상의 생활에 대한 결론이다.

악마는 형상에 있어서 동승과 비슷한 반항아이다. 그러나 엄밀한 차이가 있다. 동승이 자유를 찾아 내달리는 지향의 인간이라면 악마는 말그대로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있는 악의 신—고독한 거인이다. 이러한 형상은 시형상전반에 강한 박동과 힘을 안받침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레르몽토프의 창작의 특징은 자기의 귀족적사교방식으로 하여 회의와 고독의 감정이 짙게 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창작적특징인 동시에 제한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회의와 고독감은 뿌슈킨이 반동적인 통치체급의 음모에 의해 살해된 이후에 표면에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온 나라가 떠받드는 세계적인 시인도 자기들의 정치에 거치장스럽다면 가차없이 처리해버리는 지배계급의 악랄한 폭정앞에서 레르몽토프는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자기의 창작세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는 짜리전제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자기의 투쟁에서 점차 고독감을 느꼈으며 자기의 세계관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였다. 귀족적인 세계관의 소유자였던 그는 진리를 위한 투쟁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전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으며 현실의 거대한 악에 단신으로 맞섰다는 고독감, 그 투쟁의 승리에 대한 회의와 염세주의적감정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느낌을 서정시 《사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내 슬픔에 차 우리 세대를 바라본다
그들의 앞날은 공허 아니면 어둠
그리고 분별과 의혹의 무거운 짐에 눌러
하는일없이 그들은 늙어버릴것이라

...

작가의 창작에서 나타난 이러한 고독과 회의는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비록 작가의 작품창작에서 이러한 제한성이 나타나고있지만 레르몽토프는 자기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당대의 부패한 사회현실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그에 대치되는 자유로운 새 사회에 대한 지향을 힘있는 랑만주의적필치로 보여줌으로써 로씨야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 향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3호 (루계 제761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0 (2011) 년 3 월 1 일
발 행	주 체 100 (2011) 년 3 월 5 일

ㄱ—1604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